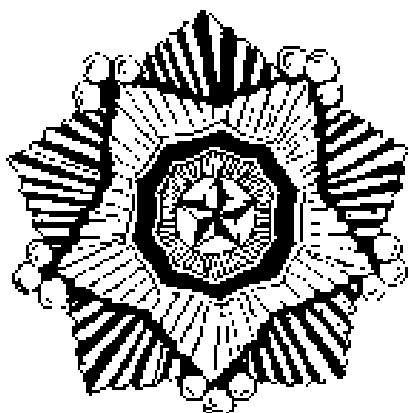




4

주체 90 (2001)

문학예술종합출판사



#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 90(2001)년 제4호

(루계 제 642 호)

◇◇◇◇◇◇◇◇◇◇◇◇

## 차 례

◇◇◇◇◇◇◇◇◇◇◇◇

태양절이 밝았습니다.....	4
고향집뜨락에서 .....	4
그 밤은 .....	5
다래나무지평이 .....	6
장군님과 차수.....	13
수령님 만세로 빛나는 땅.....	14
꿈을 지키신 사랑.....	18
새 세기 명작창작의 앞길을 밝혀 준 강령적지침 .....	19
명언해설 .....	22
나의 그리움이여 .....	23
칠보산명승가.....	23
한 지식인이 받아 안은 사랑 .....	24
한상의 사진앞에서 .....	25
새 세기를 빛내일 영생하는 태양의 노래를 .....	26
병사의 그리움.....	28
아버이의 고귀한 사랑.....	29

사랑하노라, 우리의 최고사령관기! .....	30
선군의 나라(외 1 편) .....	31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다 .....	31
로병시인들의 심장의 웨침 .....	32
시대정신과 시인의 모습 .....	36
고향의 모습 .....	46
우리 중대 병사들은 명배우라네 .....	47
생활의 격류 .....	48
지름길 .....	58
병사의 과녁은 .....	58
지리산의 메아리 .....	59
컴퓨터가상현실의 리용기술 .....	71
고전소설 《량반전》과 《홍부전》에 대하여 .....	72
스물한발의 《포성》 .....	73

# 태양절이 밝았습니다

김창호

태양이 솟습니다  
누리를 붉게붉게 물들이며  
희망찬 21세기의 첫 태양절  
인류의 명절이 밝았습니다

꽃들도 기다린듯  
서둘러 망울 터쳐 향기를 뽐고  
하늘도 땅도  
수령님 그리는 우리 마음 담아  
끝 없는 환희로 설레입니다

인류가 부르는 흠모의 노래로  
태양은 더욱더 빛을 뿌립니다  
해를 두고 쌓여 지는 그리움  
일심의 대오앞에 맹세의 붉은기로 휘날립니다

애국으로 혁명을 시작하시고  
애민으로 정치를 펴나가는  
인민의 태양이 솟아 오른 날입니다  
반만년 민족사가 기다려 맞이한  
인민의 명절 태양절입니다

여기서 시작된 날들이 아닙니까  
더 늙기전에 가보아야 한대시며  
백리 미루벌에 바치신 일요일의 그 하루  
보안경 드신채 쇠물이 익기를 기다리시며  
황철의 용해장에 서계신 그 시간들은

봄을 안고 오시여  
인민을 봄빛으로 품안으시고  
태양으로 솟아 오르시여

온 세상에 광명을 안겨 주신분  
세월의 눈비를 한몸으로 다 막으시며  
천하제일 사회주의경치를 펼쳐 주신  
수령님과 더불어 빛나는 태양절입니다

자연의 태양이 아닌  
인민의 마음속에 태양이 솟아 오른 날입니다  
수령도 전사도 동지애로 뭉쳐  
천하를 다스리고 대적을 이기는  
일심단결의 시원이 열린 뜻 깊은 날입니다

금지로 존엄으로 빛나는 명절입니다  
주체사상의 조국, 영웅조선, 천리마조선...  
격찬에 넘치는 무수한 창조의 기념비들과 함께  
온 세상에 이름 떨치는 내 조국  
강성대국에로의 힘찬 발걸음을 뻗  
**김정일** 새 세기에 찬연히 빛날 환희의  
명절입니다

아 태양이 솟습니다  
20세기를 빛내인 주체의 빛발로  
새 세기 사회주의항로를 밝게 비치며  
락원예로의 총 진군길을 축복하는 새날이  
밝습니다

이 아침  
불멸할 태양의 미소를 담고  
붉은기는 더욱더 붉게 타며 퍼덕입니다  
위대한 장군님 이끄시는 강성대국건설의  
진군길에  
아, 태양절이 밝았습니다

# 고향집뜨락에서

정예남

만경대고향집의 열려 진 사립문  
이제 방금 물동이 이시고  
강반석어머님 나가시며 열어 놓으신듯  
저 부엌안에선 어머님 안치고 간  
타개죽이 지금도 끓고 있는듯...

그 타개죽 달게 드시고  
이 사립문 나섰으리  
할아버님과 할머니님  
이른 아침 들판으로  
김형직선생님은 력사의 새벽길로  
우리 수령님은 백두산으로

그 타개죽도 모자라  
물은 또 얼마나 부어야 했던가  
그러면 멀건 타개죽,  
죽음을 각오하고  
혁명의 먼길 가던 그분들에게  
한덩이 주먹밥으로도 되어 주지 못한  
가슴 아픈 끼니여

그러나 가난을 알게 하고  
인민을 알게 하고  
조국을 알게 한 만경대의 타개죽

형수님 뚫여 주시던  
타개죽 들며 자란  
만경대의 삼촌이기에  
김형권선생님 그렇듯 웃으시며  
못관우에 오르신것 아니라  
만경대의 지조를  
지키신것 아니라

우리 수령님  
항일의 모진 눈보라속에서도  
쓰러질래야 쓰러질수 없으신것도  
귀전에 들려 오던  
만경대의 타개죽 끓는 소리 그때문이 아니던가  
오, 그것은 그대로 멀리서도 미쳐 오던  
어머님의 사랑과 정이었다  
조국이 만경대의 아들을  
부르던 소리였다

그 사랑 그 정을 안고

기다리는 사람이 없다면  
사립문은 벌써 닫겼으리  
하나 그날처럼 변함없이  
만경대일가분들 부르며  
타개죽 끓는 소리  
들려 오는 프락

오늘은 그 프락으로  
천만이 물결쳐 들어 서나니  
만경대의 대식술들  
제 집마냥 찾고 찾는 고향집이여

이제 또 얼마나 불어 날것인가  
혁명가의 식솔들  
억만이면 어떠리  
다 품에 안으려  
사립문은 저렇게 열려 있지 않는가  
오늘도 고향집 부엌에선  
여전히 들려 오는 타개죽 끓는 소리...

## 그 밤은

전계승

은하수도 추위에 떨고  
하늘땅을 삼키려 드는 눈보라속에  
맹수의 울부짖음마저 얼어 붙는 밤  
압록강얼음길우에 한채의 말파리 달린다  
세찬 눈보라속에 나어린 소년 셋을 태우고

철쇄를 부시고 탈출하신  
아버님의 행처를 찾아  
일제의 경찰들과 특무들  
피눈되어 날뛰는  
삼엄한 국경의 밤  
굽이굽이 막아 서는 천길벼랑 감돌아  
캄캄한 어둠속을 누벼 가는  
말파리, 말파리

천리준령 넘고 넘어 압록강 건너  
그립던 집문턱 넘어 섰건만  
만경대집 장손앞에 닥쳐 온 위험이여  
정 깊은 제 집에 하루밤 목을 새 없이  
어머님의 간곡한 당부를 안고  
피신의 림강길에 나선 밤이여

모진 눈보라에 추워서 떨고  
칠칠어둠에 무서워 떠는  
나어린 두 동생을 품 안은 만형이여  
세찬 눈바람 온몸으로 막아 주며  
조선의 옛 장수이야기 들려 줄 때

힘준한 산발우에 새별 유난히 빛나던 밤

오 조선이 독립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 오지 않을  
비장한 맹세를 다지며  
압록강을 넘은 조국의 장한 아들  
만경대집 한 가정의 운명뿐 아닌  
조국의 운명을 한가슴에 안은  
장하고 장한 아들이었건만

조국은,  
조국은 그 아들에게  
천리 먼 길의 로독을 풀  
만리 먼 길 떠날 새힘을 보태드릴  
하루밤의 아래목조차 내여 드리지 못한  
너무도 준엄한 밤  
너무도 눈보라 사납던 밤

온 겨레가 신음하는  
짓밟힌 조국을 뜨겁게 안으시고  
오, 우리 수령님  
열네살 그 나이에  
다진 맹세 실천의 첫 걸음 떼신 그 밤은  
항일의 진두에서 수령님 열어 가신  
혈전만리 20성상의 첫밤으로  
이 나라 력사의 갈피속에  
고이 간직되어 있어라

## 다래나무지팡이

승용차는 산길을 달리였다.

몇달전에 새로 포장한 길이었어서 경사와 구배가 어지간히 급해도 차체의 흔들림이나 충격이 별로 느껴지지 않았다.

뒤좌석 등받이에 몸을 기대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아까 차에 오르실 때부터 손에 쥐고 계시는 신문에서 좀처럼 눈길을 떼지 못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신문의 글줄을 더듬으시다가는 때 없이 가슴에 깊은 숨을 담으시며 창밖으로 시선을 옮기시였다.

단풍이 점점이 타기 시작한 산밭들을 바라보시는 그이의 안광에선 자연이 환기시켜 준 정겨운 미소와 가슴속 깊은곳에서 피여 오르는 추억의 근엄한 표정이 서로 엇바뀌였다.

승용차 앞좌석에 앉은 책임부관 리준호는 후사경에 비낀 수령님의 그 모습을 우러르며 마음을 진정하지 못하였다.

조국땅 북변, 두만강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이곳에 도착한 순간부터 도당과 군의 책임일군들이 수령님을 꼭새골혁명사적지에 모시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비쳤던것이다.

수령님께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기 꼭새골혁명사적지를 못내 잊지 못하시여 깊은 회고의 말씀을 자주하셨다.

그런것만큼 지금 수령님을 모시고 꼭새골로 찾아 가는 리준호의 마음은 즐거운 려행길에 오른 어린애처럼 마냥 기쁘고 행복하였다.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엔 이름할수 없는 의혹이 자꾸만 크게 자리를 잡았다.

그것은 수령님께서 벌써 몇번이고 읽어 보시는 신문으로 하여 생겨났고 또 시간이 흐를수록 커만지는 의혹이었다.

당보도 아닌 도일보에 무슨 기사가 실렸기에 꼭씩어 읽어 보시며 저렇듯 깊은 생각에 잠기실가? 더구나 승용차가 읍거리를 벗어날 무렵에 그이께서 오늘호 도일보를 보았는가고 물으셨던것이다.

리준호는 《로동신문》은 보았으나 도일보는 보지 못했노라고 솔직하게 말씀 올렸다. 그 순간 수령님의 안광에 한가닥의 그늘이 얼핏 스쳐 지나갔으나 아무 말씀도 없으셨다.

승용차가 산골이를 몇개 돌자 시창으로 넓은 골짜기가 안겨 왔다.

포장한 길우에는 산그늘이 깔려 있었고 알릴락 말락한 안개발이 떠돌며 흘렀다.

차창밖으로 언뜻언뜻 스쳐 지나가는 가을날의 수려한 풍경을 바라보시는 수령님의 입가에 밝은 미소가 어려 있었다.

그것은 한 없는 애무와 정겨움으로 충만된 미소였다.

산버들과 잡관목이 무성한 실개울을 옆에 끼고 한동안 곧추 달리던 승용차는 옆으로 꺾어 들였다.

수령님께서서는 눈길을 돌려 시창앞을 바라보시였다.

길옆에 《꼭새골혁명사적지》라고 쓴 표식말뚝이 새겨 저 있었다.

수령님께서서는 나직한 어조로 차를 세우라고 이리시였다.

《수령님, 사적지는 아직도 5리가량 더 올라 가야...》

《알고 있소.》

수령님께서서는 정중한 어조로 올리는 리준호의 말을 가볍게 밀막으며 손수 문을 열고 차에서 먼저 내리시였다.

그이의 손에는 여전히 도일보가 들려 있었다.

리준호는 어안이 병병해 졌다. 그다음엔 무엇인가 심장을 치는 느낌이 있어 저도 모르게 긴장해짐을 어쩔수 없었다. 동시에 아까 점심식사가 끝난후에 꼭새골로 찾아 가보자고, 그런데 이곳 일군들에게는 알리지 말라고, 그저 조용히 다녀오자고 당부하시던 수령님의 말씀이 귀전에서 되살아났다.

피할수 없는 서운한 예감과 안타까운 감정이 가슴속에서 교착되기 시작하였다.

승용차에서 내리신 수령님께서서는 허리에 두손을 얹으시고 산밭들과 골짜기 그리고 이끼 오른 바위돌을 타고 넘으며 흐르는 실개천을 그윽한 눈길로 바라보시였다.

해는 중천에서 두발나마 기울었는데 가을날답지 않게 자글자글 따져왔다.

산정에서 문득 한줄금의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왔다. 바람결에는 산열매들이 무르익는 달콤하고 들크무례한 향기가 섞여 있었다.

옷자락을 날리고 얼굴에 스치는 훈풍의 포근한 감촉을 받으시며 그이께서는 유정한 감개에 휩싸이시였다.

(꼭새골... 꼭새골...)

마음속 아주 깊은 언저리에서 불쑥 튀어 오른 생각이 구름처럼 서서히 머리에 떠오르시였다.

그이께서는 숲속으로 뻗어 간 포장길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시며 조용히 말씀하셨다.

《이 길을 따라 얼마쯤 올라 가면 꼭새골밀영이요. 우리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당조직을 결성한 잇을수 없는 고장이지. 이제 수십년 세월이 흘렀으니 나무들도 몰라보게 컸을거요.



그때 안길을 비롯한 우리 동무들이 해방된 조국땅을 눈앞에 그려보면서 나무들에 구호들을 써놓았더랬는데…》

수령님께서서는 뒤말을 채 잊지 못하시였다.

《수령님, 사적지도국 동무들과 이곳 일군들이 많은 구호나무들을 발굴하여 원상대로 보존관리하고 있습니다.》

리준호는 정중한 몸가짐과 어조로 말씀 올렸다.

《…》

수령님께서서는 다른 말씀을 더하지 않으셨다.

침묵이 흘렀다. 그것은 수천마디의 말을 대신하며 그리고 수천수만의 갖가지 목 메이는 생각들을 불러 일으키면서 더듬게 하는 그런 양양된 상념의 순간이며 숭고한 세계였다.

수령님의 머리우에는 구름 한점 없는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해빛을 받은 수림의 옷차림들은 바람결에 흔들리면서 은빛의 밝은 빛발을 뿌리고 있었는데 수림을 등지고 서신 그이의 모습은 후광처럼 비쳐 오는 그 해빛으로 하여 신비한 색조에 싸여 있었다.

선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며 오래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 있던 수령님께서서는 포장길이 아닌 오솔길로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였다.

이름 모를 갖가지 풀들이 발등을 묻어 버릴 정도로 자란 오솔길은 저 멀리 산중턱에 자리 잡고 있는 한채의 자그마한 귀틀집과 잇닿아 있었다. 귀틀집주변에선 수많은 염소와 양들이 풀을 뜯고 있었다.

방목지가 분명하였다. 잡관목들이 듅듬듬성하고 그밑에 깔린 풀판은 탐스럽고 푸르렀다.

수령님께서서는 이마에 손채얹하고 귀틀집과 염소와 양떼들을 자주 올려다 보시였다. 걸음보다 마음이 앞서시는 모양이었다.

가을날이라고는 하지만 날씨는 무더웠다. 땅에서는 열기가 피어 오르고 나무잎들은 진액을 흘리고 있었다.

손수건으로 이마의 땀을 훔치며 걸으시던 수령님께서서는 문득 생각이 미치신듯 리준호한테로 몸을 돌리며 물으셨다.

《차에 지팡이를 싣고 왔겠지?》

《네-》

리준호는 얼굴에 대답 올리고는 숨을 죽였다. 삽시에 온몸이 굳어 지는듯 싶었다.

(그러니 수령님께서 사적지가 아니라 저기 방목지 귀틀집을 찾아 가신단 말인가!

가슴속에 풀길 없는 웅어리처럼 맏혀 있던 의혹은 점차 명백하고 석연해 지기 시작하였다.

마음이 무척 피롭고 무거워 졌다.

《그 지팡이를 좀 가져다 주오.》

수령님께서서는 귀틀집에서 여전히 눈길을 떼지 못하며 나직한 음성으로 부탁하시였다.

《…》

리준호는 선뜻 걸음을 떼지 못하였다. 어찌된 영문인지 발걸음이 천근처럼 무거워 저 저만치에서 있는 호위병들과 승용차쪽으로 선뜻 다가갈 수 없었다.

《어서-》

수령님께서서는 다시금 재촉하시였다. 그제서야 리준호는 승용차에 보관한 지팡이를 가져다 수령님께 드렸다.

《허- 사람의 나이를 속일수 없거든… 요만한 산길에 지팡이를 찾다니… 허허.》

수령님께서 지팡이를 길우에 내려 짊으며 큰 소리로 웃으시였다.

수령님의 그 모습과 웃음소리는 리준호의 마음을 아프게 찔렀다. 불시에 눈곱이 확 달아 오르면서 말 못할 죄책감과 안타까움이 가슴속에 밀물처럼 가득 차올랐다.

수령님께 리준호가 처음으로 지팡이를 올린것은 작년 이맘때 가을날이었다.

묘향산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승용차를 기념품상점앞에 세우고 리준호에게 지팡이를 하나 사오라고 하셨다.

상점에는 마음에 드는 지팡이가 없었다. 말라죽은 다래나무를 꺾어다가 대충 손질한, 이를테면 장식도 도색도 없는 수수한 지팡이들뿐이었다. 등산객들이 대체로 그 지팡이들을 하나의 벗으로 사들고 산발을 오르다가는 아무런 미련도 없이 팽개치는 까닭에 별로 품을 들여 만들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 보잘것 없는 지팡이를 수령님께 올리지 않으면 안되는 리준호의 심정은 웅색하기 그지없었다. 하지만 당장은 어쩔 방도가 없었다. 그리하여 리준호는 상점전원대에 가득 무저 있는 지팡이들중에서 그중 탐탁하게 여겨 지는것을 골라 사들고 그것을 수령님께 올리였다.

그날 리준호는 지팡이를 짊으시며 등산길을 오르내리는 수령님의 모습을 우러르며 남 몰래 뜨거운 눈물을 삼키였다. 어찌면 자기의 충성심이 부족하여 수령님께서 지팡이를 짊으시게 된 것만 같은 생각에 가슴이 저려 났다.

동시에 이젠 수령님의 년세가 80이 지났건만 아직까지 변변한 지팡이조차 마련해 드리지 못한 죄책감에 고개를 들수 없었다.

묘향산등산을 마치고 평양에 돌아 온 리준호는 그날로 만수대창작사에 수령님의 지팡이를 부락하였다.

만수대창작사에서는 3일만에 지팡이를 완성하여 올려 보냈다.

지팡이는 훌륭하였다.

첫눈에도 창작가들이 온갖 지성과 성의를 다하였다는것이 알렸다. 가벼우면서도 무게 있게 보이는 도색과 조각무늬, 섬세하고도 기묘한 금세

공을 한 손잡이는 부근부근하면서도 감칠맛 있게 가공하였다.

리준호는 만족한 마음으로 수령님을 찾아 갔다.

《이건 뭐요?》

수령님께서 지팽이를 정중히 올리는 리준호를 의아한 눈길로 지켜 보면서 물으셨다.

《수령님…》이 순간 리준호는 불현듯 목이 짝 메여 올라 뒤말을 번지지 못했다. 수령님께 지팽이를 올린다고 생각하니 어쩐지 가슴이 미여지며 아팠던 것이다.

《지팽이가 아니요?!》

《네-》

리준호는 북받쳐 오르는 뜨거운것을 녹잡히며 간신히 대답 올렸다.

《허- 어디 한번 보지요.》

수령님께서 지팽이를 받아드시고 유심히 살펴보시었다. 그 다음엔 땅에 꼭 박으며 몇걸을 걸어보시다가 웃음이 섞인 어조로 말씀하시었다.

《핑 장 한 지팽이로구만. 금세공까지 한걸 보니… 허-허- 동문 날 영국신사로 여기는게 아니요?》

무더운 여름날에도 검은 모직양복에 중절모를 쓰고 개화장을 질고 다니는 영국의 신사제씨로 말이요.》

《?!》

리준호는 급기야 숙였던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는 수령님께서 지팽이를 사양하신다는 느낌에 저도 모르게 입을 열었다.

《수령님, 만수대창작사 동무들이 며칠밤을 꼬박 새우면서 만든 지팽이입니다. 그러니 꼭 받아 주십시오.》

《…》

수령님께서 말씀이 없으시었다. 그이의 안방에 생각 깊은 그리고 어찌 보면 우수에 가까운 빛이 어려 있었다.

한동안 그런 얼굴빛으로 지팽이를 손에 들고 서계시던 수령님께서 문득 밝은 웃음을 지으시며 말씀하시었다.

《부관동무, 나는 언젠가 어느 한 소설책에서 이런 대목을 읽은적이 있소. <세상에는 그 누구한테서 선사 받은 지팽이에 의거하여 한생을 편안하게 살아 가는 사람도 있다.

인생의 앞길을 가로 막는 가시덤불도 그 지팽이로 헤치고 기운이 진하면 운명의 무게를 지탱하며 평지에서는 그것으로 거드름을 부리고 탐욕이 동할 때에는 거꾸로 추켜 들고 아무나 후려갈긴다. 그런 사람들은 그 하나의 막대기를 천부의 보물로 여기지만 자기의 팔다리가 날이 갈수록 허약해 지는 까닭은 모르는법이다.…>

어떻소. 그럴듯 한 말이 아니요?》

《…》

리준호는 고개를 떨구었다. 가슴속 밀창에선 이름할수 없는것이 끓어 올랐다. 숨이 몹시 가뼀다.

수령님께서 소설의 한 구절을 인용하시는 까닭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것이다. 그리하여 수령님께 두번 다시 더 간청하지 못하였다. 그대신 다래나무지팽이는 언제나 승용차에 싣고 다녔다.

수령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당부하셨던것이다.

방목지로 올라 가는 오솔길 주변엔 초록색용단 같은 선대식물이 한벌 쪽 깔렸는가 하면 어떤 곳에는 새풀들이 허리를 치게 자라고 있었다. 키 낮은 잡관목속에서 까투리의 소리가 들려 오는데 길섶 여기저기에 피여 난 때 이른 들국화가 응석을 부리듯 바람결에 진한 향기를 풍기며 한들거리고 있었다.

수령님께서 허리를 낮추 굽히시고 보라색들국화 한송이를 꺾어 드시고 코언저리에 가져 갔다.

《참으로 향기가 좋구만.》

강렬하고 독특한 정서와 느낌… 그이께서는 한송이 들꽃을 통하여 조국땅의 아름다움과 향기를 심장에 새기듯이 내내 꽃에서 시선을 떼지 않으신채 어느덧 귀틀집에 당도하시었다.

귀틀집 마당어구에선 아름답게 자란 잣나무 한그루가 진록색잎새를 펼치고 있었다. 아지마다엔 소담한 잣송이들이 다람다람 댔혔다. 오른쪽산턱 저만치에는 키높이 자란 참나무로 촘촘히 울타리를 치고 새초로 이영을 한 짐승우리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귀틀집 부엌문은 열려 저 있었다. 하지만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수령님께서 쥔고 오시던 지팽이를 잣나무밑 등에 기대놓고 토방돌우로 올라 가셨다. 그무렵에 인기척을 느꼈는지 스무살 남짓한 처녀가 부엌문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순간 처녀는 흠칫 놀라며 굳어 지고 말았다. 그리고는 속눈썹이 류달리 길고 까만 두눈을 연신 깜빡거리면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였다.

너무나도 놀랍고 뜻박이어서 처녀는 지금 꿈속을 헤매고 있는듯 싶었다. 그래서 눈앞에 닥친 현실이 도무지 믿어 지지 않는 모양이었다.

《처녀이름이 봄순이지?》

수령님께서 먼저 까딱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처녀의 손을 따듯이 잡아 주시며 물으셨다. 그이의 어조와 얼굴에 사품쳐 오르는 정이 한가닥 비껴있었다.

그제야 처녀는 꿈속에서 깨어난듯 더 한층 화다닥 놀라며 탄성을 질렀다.

《수령님!》

처녀의 두눈에 급기야 물기가 핑그르 고여 올랐다. 하면서도 빨강게 상기된 얼굴엔 분명 자신



을 무척 걱정하고 의심하는 빛이 확연하였다.

사람이 행복의 절정과 무아의 경지에 들어 가면 커다란 걱정과 근심이 생기는데 그것은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이 꿈이나 환각이면 어쩌나 하는 그런 걱정과 의혹이었다.

《봄순이가 보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 왔다.》

수령님께서 밝게 웃으시며 정겨운 시선으로 처녀의 얼굴을 찬찬히 여겨 보시었다.

《!》

처녀는 솟구치는 걱정을 참느라고 입술을 깨물었다. 하면서 풀물이 오른 손을 치마자락에 훑치고는 수령님의 팔에 매달리며 두발을 동동 굴렀다.

건강하고 탄력 있는 처녀의 몸에서는 싱싱한 풀냄새가 풍기는것 같았다.

《오늘 도일보에 봄순의 아버지와 너에 대한 기사가 실렸더구나.》

수령님께서 해빛에 감실감실하게 탄 처녀의 얼굴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시며 말씀하셨다.

《수령님, 아버지와 제가 일을 했으면 얼마나 했다고 이 험한 산길을 찾아 오셨습니까!》

순진한 처녀의 두눈에 눈물과 함께 환희의 불꽃이 섬광처럼 타올랐다.

《그런데 아버지는 왜 보이지 않느냐?》 하고 물으시며 수령님께서 주위를 둘러 보시었다.

《당생활총화에 참가하기 위해 아까 낮에 마을로 내려 갔습니다.》

《당생활총화?!... 여기서 마을까지는 얼마나 되나?》

《30리가 좀 넘습니다.》

처녀는 두볼에 땀을 지으며 스스럼없이 대답을 했다.

《30리라...》

수령님께서 처녀의 대답을 입속으로 되뇌이시며 산발들에 시선을 옮기시었다.

산발은 눈썹리가 모자라게 아득히 뻗어 갔다.

사위를 둘러 보면 크고 작은 줄기찬 산발들에 둘러 싸인 여기 방목지골안은 거치른 파문이 일다가 갑자기 굳어 저 버린 하나의 호수를 방불케 하였다.

이윽고 생각 깊은 눈길로 산발과 방목지골안을 천천히 둘러 보시던 그이께서 조용히 말씀하시었다.

《봄순의 아버지는 참으로 훌륭한 사람으로구나!》 하시며 수령님께서 오늘 아침 도일보에 실린 기사내용을 다시금 머리속으로 새겨 보시었다.

향일투사들의 발자취가 어려 있는 여기 쪽새골안에 양과 염소떼가 옥실거리게 할 마음을 안고 30여년동안 성실한 땀을 아낌없이 바쳐 가고 있는 로당원의 숭고한 모습을 눈앞에 그려 보며 자주 깊은 숨을 내쉬시었다.

《아버지의 일손을 도와 주던 두 언니는 시집을

갔다지?》

《네- 말언니는 3년전에 그리고 둘째 언니는 작년 가을에...》

봄순이는 안타깝게도 감격과 흥분이 자꾸만 앞서서 말을 더듬었다.

《그래서 이번엔 봄순이가 산판으로 올라 왔구나.》

《수령님, 저는 방목지에서 영원히 살겠습니다.》  
촉기 빠른 봄순이는 수령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기쁘게 해드리려고 생긋 웃었다.

《그럼 봄순이는 시집을 가지 않겠단 말이나. 허-허-》

수령님께서 크게 웃으시며 말씀을 이으시었다.

《때가 되면 시집을 가야 한다.》

《수령님 전 가지...》

봄순의 얼굴빛은 금시 홍당무처럼 익어 번졌다. 그리고는 부끄러움과 수집음에 몸 둘바를 몰라 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순박하고 귀염성스러운지 그이께서는 두팔을 벌리고 가슴에 담썩 안아 주고 싶은 충동을 금할수 없으시었다.

《봄순아, 깊은 산속에서 외로울 때가 많지?》

《일없습니다. 아버지가 계시구 양과 염소들한테 정이 들어서 잠시도 산판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아니- 아니-》 수령님께서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다.

《영화관에도 구경 가고 명절날이면 동무들과 같이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거다. 그것을 모두 참고 견디겠지...》

문득 수령님의 얼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그에 따라 목소리는 매우 낮고 조용하였다.

《리와 군의 간부들은 종종 산판에 찾아 오느냐?》

《저-》 봄순이는 선뜻 대답을 올리지 못했다.

그러다가 머루알 같은 두눈을 밝게 빛내이며 말씀드렸다.

《작년 여름에 관리위원장아저씨가 찾아 왔습니다. 그 다음엔...》

봄순이는 다시 두눈을 감빰이며 기억을 더듬다가 그 무슨 발견이라도 한듯 기쁨에 겨워 입을 열었다.

《아- 며칠전에 리당부비서가 기차선생님을 데리고 올라 와서 하루밤 묵어 갔습니다.》

《군에서는 찾아 온 사람이 없구.》

《...》

봄순이는 그만 말문이 막혀 눈길을 발치에 떨구었다.

《음-》

수령님께서 군기침을 툴아 올리며 한동안 말

숨이 없으시었다.

그 순간 옆에 서 있는 리준호의 등골로 식은땀이 흘렀다. 그는 수령님께서 지금 매우 가슴 아프고 피로운 심정에 잠겨 계신다는것을 깨달았던 것이다.

그러자 가슴속에선 이곳 일꾼들에게 대한 노여움과 반감이 치밀어 오르면서 오히려 자신이 수령님앞에 죄스럽기 그지없었다.

몇초 지나서야 수령님께서는 근엄한 표정을 밝은 빛으로 바꾸시며 봄순에게 방목지일이 힘들지 않는가 물으시었다.

《수령님, 막 재미납니다. 염소와 양들이 풀들을 맛 있게 뜯어 먹는것을 볼 때면 시간이 가는줄도 모르겠습니다.》

처녀는 가뜩이나 고운 얼굴에 꽃 같은 웃음을 함뱉 담고 말씀 올렸다. 구김살 한점 없는 그 목청이 또한 얼마나 맑고 명랑한지 수령님께서도 소리없이 웃으시었다.

《그런데 안타까운것은...》

봄순이는 얼굴에서 웃음을 거두며 말꼬리를 흐렸다.

《뭐가 안타까우냐?》

수령님의 음성은 가볍게 울렸으나 눈은 심중한 빛을 담고 봄순이를 지켜 보았다.

《염소젖을 미처 탁아소와 유치원에 실어 가지 못해서...》

봄순이는 또다시 말끝을 맺지 못하며 저도 모르게 한숨을 내그었다. 아마 지금까지 내내 가슴속에 맺혀 있던 가장 큰 안타까움과 피로움이었던것 같았다.

수령님의 얼굴에 불현듯 지을수 없는 피로움이, 가슴을 압박하는 안타까움이 스쳐 지나갔다.

그이께서는 봄순이의 얼굴에서 잠시도 떼지 않던 사선을 풀을 뜯고 있는 염소와 양떼로 옮겨가며 한참동안 움직이지 않으시었다.

그 시선과 표정에는 처녀의 안타까움과 피로움을 더없이 가슴 아파하고 녀려하시는 심정이 뚜렷하게 비껴 있었다.

《그렇게도 애 쓰며 힘들게 키워서 짜낸 염소젖을...》

수령님께서는 마치 호흡이 가쁘시기라도 하신듯 매우 힘겹게 말씀을 하다가 그것마저 채 하지 못하시었다.

리준호의 가슴은 저릿저릿하였다. 그는 그토록 피로와 하시는 수령님의 무거운 심중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수 없는 안타까움에 몸부림치고 싶었다.

《봄순아, 염소를 몇마리나 방목하고 있느냐?》

《150마리를 기르고 있습니다.》

《양은?》

《100마리... 아니 어제 밤에 새끼를 네마리 더 낳았으니 이젠 104마리입니다.》

《염소 150마리에 양을 104마리를 키운단 말이...》

봄순의 말을 되받아 외우시던 수령님께서는 더없이 만족한 표정으로 리준호에게 말씀을 건네시었다.

《어떻소. 우리 봄순이네가 여기 산판에서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소?》

《네- 아버지와 딸이 소문없이...》

웬 영문인지 리준호는 가슴이 뭉클 젖어 올라 고개를 떨구었다.

《대단하오. 대단해...》

수령님께서는 더없이 만족한 표정으로 봄순의 어깨를 정겹게 다독여 주시면서 물으시었다.

《밤에 산짐승들이 염소와 양우리에 달려 들지 않느냐?》

《처음엔 승냥이와 사나운 짐승들이 염소와 양들을 습격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짐승우리둘레에 참나무울타리를 치고 거기에 함정을 파고 몇도 놓아 이젠 아무 걱정도 없습니다.》

금년 봄과 여름에만 해도 함정과 덫으로 승냥이 두마리와 여우 다섯마리나 잡았습니다. 때로는 덫에 송아지보다 더 큰 메돼지도 걸린답니다.》

《저런...》

수령님께서는 말씀을 더 잊지 못하시었다. 그대신 고개를 끄덕이시는 그이의 안광에 이름할수 없는 그늘이 한벌 덮이였다.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 왔다. 마당가의 잣나무 잎새들이 설레고 풀잎이 흔들렸다.

골짜기풀판에서 문득 어미를 찾는 염소새끼의 울음소리가 정답게 울려 왔다.

봄순의 어깨우에 손을 얹으신채 한동안 아무 말씀도 없던 수령님께서는 깊은 생각에서 깨어나시며 물으시었다.

《겨울에는 짐승들을 어떻게 기르느냐?》

《초겨울까지는 그냥 여기 방목지에서 기르다가 눈이 두텁게 쌓이면 작업반축산분조로 내려 갑니다.》

《축산분조에도 짐승우리들을 지어 놓았느냐?》

《네.-》

《사료는 어떻게 장만하구?》

《가을이면 농장밭과 탈곡장에서 강냉이대와 콩깍지들을 걷어 들이고 또한 여기 산판에서 청초들을 베어 저렇게 쌓아 둡니다.》 하며 봄순이는 골짜기아래 저기 한끝에 무저 놓은 풀더미를 가리켰다.

수령님께서는 집채보다 더 높은 풀더미를 오래도록 지켜보며 연신 고개를 끄덕이시었다.

그러시다가 귀엽고 대견한 딸자식을 애무해 주시듯 봄순의 어깨를 자꾸만 두드리 주시며 말씀하시었다.

《훌륭해. 정말 훌륭해.》

《!...》

형용할수 없는 걱정과 기쁨에 휩싸인 봄순이는 두볼을 타고 흐르는 눈물도 느끼지 못하며 그이를 우러러 쳐다보다가 그만 입술을 깨물며 머리를 외로 돌리었다. 그의 어깨가 조용히 떨리었다.

수령님께서는 잔물결치듯 오르내리는 봄순의 어깨우에 그냥 손을 얹으신채 처음엔 매우 낮은 그러면서도 준절한 어조로 말씀하시었다.

《준호동무, 나는 아까 방목지 오솔길을 걸으면서 마음이 몹시 무거웠소. 동무도 보았겠지만 사적지로 올라 가는 길은 세멘트로 멋지게 포장했는데 방목지를 찾아 오는 길은 오솔길인데다가 풀까지 무성하게 자라고 있더라 말ियो.

물론 사적지에 찾아 오는 사람들이 많으니 포장을 해야지... 나는 그것을 탓하고 싶지는 않소. ... 하지만 사적지길을 포장할 때 일꾼들이 조금만 관심을 돌리고 흙을 들었더라면 방목지길도 넓혀 봄순이네가 짠 염소젖을 달구지나 자동차로 운반할수도 있지 않겠소. 이 애가 나한테는 그저 안타깝다고 말했지만 아마 수십번을 더 눈물을 흘렸을거요...》

수령님께서 잠시 말씀을 끊으시자 리준호는 숨소리를 죽이고 마른침을 삼키었다. 온몸은 불시에 채찍에 얻어 맞을 때처럼 화끈 달아 오르면서 흠칫흠칫 떨렸다.

《나는 못 쓰게 된 몇통의 염소젖이 아니라 이처럼 깨끗하고 성실한 마음을 외면하고 무시한 이곳 일꾼들의 처사때문에 가슴이 아프오.

사람들이 어찌면 그럴수 있소...》

격한 심정을 녹았히시며 그이께서는 어조를 낮추다가 말씀을 더하지 않으셨다. 가슴속에서 말 못할 의분이 끓어 올라 말씀조차 더하실수 없었던것이다. 그대신 얼굴엔 리준호가 여때까지 본적이 없는 그런 엄하고 복잡한 감정의 파문이 일어번지였다.

귀들집마당가엔 정적이 깃들었다.

바람에 잣나무잎새들이 설레이는 소리, 옷자락을 스치는 소리조차 다 들릴만큼 정적은 깊었다. 참느라고 모지름을 썼건만 어쩔수없이 터치는 봄순의 흐느낌소리만 귀전에 아프게 파고 들었다.

수령님께서는 호주머니에서 손수건을 끄집어 내시여 눈물에 얼룩진 봄순의 얼굴을 닦아 주시면서 말머리를 돌리시였다.

《봄순이, 방금 집안에서 뭘 하했나?》

그이의 음성은 무척 온화하고 부드럽게 대기를 흔들었다.

《...》

처녀는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웬 영문인지 선뜻 입을 열지 못하였다. 그는 다시 눈길을 발치에 떨구었다.

《?》

수령님께서는 의아쩍은 눈길로 봄순이를 더욱도록 바라보시였다.

《양 두마리가 갑자기 배가 불러 나면서...》

몇순간 지나서야 목안으로 기여 들어 가는 소리로 간신히 대답 올리는 봄순의 얼굴은 그 무슨 큰 죄를 지은 사람처럼 피기가 사라졌다.

《양들이 갑자기 배가 불러 났다구... 어디 보자.》 하시고 그이께서 먼저 토방돌우에 올라 서시며 부엌으로 들어 가시였다.

리준호도 봄순의 뒤를 따라 다급한 마음으로 문턱을 넘어 섰다.

양 두마리가 부엌바닥에 누워 있었다.

고무풍선처럼 배가 잔뜩 불러 난 양들은 두눈을 데룩거리면서 가쁜숨을 몰아 쉬고 있었다.

수령님께서는 무릎을 꿇고 앉아 양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며 물으셨다.

《언제부터 이렇게 배가 불러 났나?》

《아까 점심무렵때부터 먹지 않고 나무그늘밑에 누워 있었습디다.》

수령님께서는 머리속에 떠오르는 짐작에 고개를 끄덕이시며 자리에서 일어 나시였다.

《봄순아, 내 생각엔 양들이 독풀을 먹은것 같구나. 집에 록두가 없느냐?》

《록두 말입니까?》 하며 봄순이는 경리한 눈길로 방안을 둘러 보다가 갑자기 밝은 어조로 말씀드렸다.

《수령님, 있습니다. 아버지가 당반우에 건사한 록두가 몇사발 잘됩니다.》

《그럼 됐다. 어서 그 록두를 망에 갈아서 먹여라. 아마 그러면 한시간이후에는 양들이 자리를 차고 일어 날게다.》

《알겠습니다. 수령님!》

처녀는 환성을 지르며 당반우에서 록두자루를 내리워 그것을 망돌에 갈기 시작하였다.

수령님께서도 무릎을 꿇고 앉으시며 망손잡이를 움켜 잡으시였다. 그순간 봄순이는 불에 덴 사람처럼 화닥닥 놀라며 제발 그만 두시라고 간절하게 청을 드렸다.

그러자 수령님께서는 일없다고... 이렇게 봄순이와 마주앉아 망질을 하니 더없이 기쁘고 즐겁다고 말씀하시며 망손잡이를 천천히 돌리시였다.

리준호의 심장은 쿵-하고 뒤편이느것만 같았다.

금시 코언저리가 쩡-저려나면서 목구멍으로 뜨거운것이 치밀어 올랐다. 그리하여 땀림이 섞인 목소리로 말씀 올렸다.

《수령님, 제가 하겠습니다.》

《동무가 언제 망질을 해보았소?》

《어렸을 때 할머니의 일손을 도와 두부콩망질을 많이 했습니다.》

《허, 그렇다면 할머니를 추억하면서 망질을 해보라구.》 하시며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수령님의

안광에 미소가 한껏 어려 있었다.

그것은 정녕 햇빛보다 더 밝고 따뜻하고 자애로운 미소, 이 세상에서 오직 수령님께에서만 찾아볼수 있는 그렇듯 정겨운 미소였다.

10여년동안 수령님을 보좌해 온 리준호는 그 누구보다 그이의 고결한 성품을 잘 알고 있었다.

수령님께서는 보통인간의 상식으로서로는 도저히 그 진가를 알거나 이해할수 없는 자신의 독특하고 크나큰 기쁨과 행복관을 가지고 계셨다.

그것은 바로 사랑을 베풀어 주는 기쁨과 행복이며 다른 사람의 기쁨과 행복도 선뜻 그리고 쉽게 자신의것으로 받아 들이시는 천품이 가져다 드린 위인의 기쁨과 행복이었다.

귀틀집부엌에서 이름 없는 방목공처녀의 일손을 도와 주는 지금 이 시각에도 바로 그런 기쁨과 행복을 느끼고 계셨던것이다.

망질이 끝나자 봄순이는 양들에게 록두물을 먹이었다. 뜨거운 생각속에 잠겨 있던 리준호는 봄순이를 도와 발버둥질치는 양들을 붙잡았다.

아닐세라 록두물을 먹인지 30분가량 지나자 기척없이 누워 있던 검은 양이 몸체를 뒤채이며 일어났다.

수령님의 안광에 미소가 어렸다. 봄순이도 생긋 웃었다.

어느덧 시간이 흘렀다. 하늘중천에 떠 있던 해도 서쪽으로 퍼그나 기울었다.

리준호는 자주 팔목시계를 쳐다보았다.

수령님께서 오후에 북부지구 탄광지배인들과의 협의회를 예견하고 계셨던것이다.

그 시간이 이제 두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수령님께서도 때없이 손목시계에 눈길을 주시였다. 협의회시간의 촉박을 느끼심이 분명하셨다. 했지만 조금도 내색하지 않으시다가 두번째 양까지 자리를 털고 일어나자 문밖으로 나오시였다.

《아버지는 언제쯤이면 돌아 오실것 같으냐?》

그이께서는 어딘가 모르게 무거운 어조로 물으셨다.

《밤이 깊어야 돌아 오실겁니다.

마을에 내려 갔던 길에 짐승들의 약도 구하고 소금과 된장도 사가지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

수령님께서서는 아무 말씀도 없이 귀틀집마당가를 천천히 거니시면서 골짜기를 따라 떠오리처럼 뻗어 내려 간 오솔길을 자주 지켜 보시였다.

하늘가에 노을이 비끼였다.

건너편 산발들은 연분홍색노을빛에 포근히 잠겼다.

방목지 귀틀집마당가에서 바라보는 노을빛은 참으로 아름다웠고 그것은 다함 없는 명상과 고요 그리고 분출하는 서정시적인 힘과 감동적이며 회화적인 색채로서 가슴속에 젖어 들었다.

수령님의 안광에도 한가닥의 노을빛이 와닿았다. 했지만 그이께서는 저녁노을빛의 아름다움도 전혀 감수하지 못하신듯 여전히 깊은 생각에 잠겨 마당가를 거니시였다. 차차로 노을빛이 진하게 비끼는 그이의 얼굴에 이름할수 없는 표정이 두텁게 자리를 잡았다.

리준호는 그것이 수령님께서 매우 난감하고 안타까운 심정에 잠기실 때마다 자리 잡히는 표정이라는것을 체험을 통해 어렵지 않게 깨달았다.

리준호의 깨달음은 옳았다.

《봄순아, 나에겐 지금 너에게 줄것이란 이 신문밖에 없구나. 아직 아버지와 너에 대한 기사가 실린 오늘신문을 보지 못했겠지?》

수령님께서는 입가에 어슬픈, 그러면서도 웃모를 미소를 지어 보이시며 쥐고 있던 신문을 봄순에게 내미셨다.

《?!》

얼결에 두손으로 신문을 받아 든 봄순이는 얼굴에 웃음을 지어 보려고 애를 썼다. 하지만 어느새 솟구쳐 오는 맑은 눈물이 감빛으로 상기된 얼굴을 적시며 줄지어 흘러 내렸다.

봄순이는 신문을 가슴우에 소중히 껴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입을 열었다.

《수령님, 고맙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는 내가 너한테 해야 한다. 이 깊은 산속에서 항일투사들의 념원을 쫓 피우기 위해 그리고 풀과 고기를 바꾸라는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그처럼 애쓰며 수고 많은 너와 아버지에게 절이라도 하고 싶다. 시간이 없어서 아버지를 만나보지 못하는 것이 마음에 걸리는구나... 이제 내가 평양에 돌아가면 텔레비죤촬영가들과 기자들을 보내줄테니 텔레비죤과 신문을 통해 너의 아버지를 만나보겠다. 봄순이도 다시 보구... 그랜 지금처럼 눈물을 흘리지 말고 곱게 웃으면서 촬영도 하구 사진도 찍으라구...》

《수령님, 꼭 웃으면서...》

봄순이는 걱정에 못 이겨 말을 맺지 못했다. 두볼로 맑은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 내렸다. 썩처럼 솟구쳐 오르는 뜨거운 눈물이 심장속에 차고 넘친 말을 대신하는듯도 싶었다.

《그래 - 그래 - 꼭 곱게 웃으면서 찍어야 한다...》

수령님께서서는 좀처럼 진정할줄 모르는 봄순의 손을 잡고 오래동안 놓지 못하시다 마침내 귀틀집마당을 떠나시였다. 자꾸만 따라서는 봄순이를 굳이 만류하신 그이께서 몇걸음 못 옮기시다 또 다시 뒤를 돌아 보시였다.

봄순이는 두팔을 마구 내저으며 수령님을 바래워 드렸다.

어느새 봄순의 그 모습도 이제 보이지 않았다.

이마전에 내뿜힌 땀을 흠치시며 방목지 오솔길

을 내려 오시던 그이께서 그 무슨 생각에 미치신 듯 문득 멈춰 서시었다. 하시고는 얼굴에 매우 난처한 빛을 띠우시며 리준호를 향해 돌아 서시었다.

《이 정신 보라... 지팽이를 잊고 왔구만.》

《!》

순간 리준호는 자신의 실책을 느끼며 흠칠 걸음을 늦추었다.

《수고스럽겠지만 봄순이네 집에 다시 올라 갔다 와야겠소. 지팽이는 잣나무밑동에 세워 놓았소.》

《수령님, 협의회시간이...》

《어서-》

수령님께서 리준호의 말을 중도에서 밀막으며 재촉하시었다. 《협의회시간이 좀 늦더라도 지팽이를 가져 오오.》

《수령님, 만수대창작사 동무들이 수령님께 올린... 다른 지팽이가 있습니다.》

《준호동무...》 수령님께서 다소 질책이 섞인 어조로 리준호가 조심스럽게 올리는 말허리를 찌르시었다. 그 다음엔 잠시 말쑥없이 점차 진홍색으로 변해 가는 노을빛을 바라보시며 타이르시듯 나직하면서도 절절한 목소리로 말씀을 이으시었다.

다.

《내가 지팽이를 짚고 방목지에 찾아 온것을 알게 되면 봄순이는 두말할것 없고 당생활총화때문에 30리나 되는 먼 길을 다녀 온 그에 아버지까지도 그 지팽이를 불안고 눈물을 흘릴거요. 그러지 않아도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이젠 제발 험한 길을 걷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는데 그 지팽이가 지 보게 되면...》

수령님께서 말씀은 더 잊지 못하시며 리준호의 등을 가볍게 떠미시었다.

불시에 가슴벽을 치는 세찬 충격에 리준호는 저도 모르게 헉- 하고 바람을 삼키며 고개를 떨구었다. 아무 말씀도 드릴수 없었다. 이 순간의 심정을 표현할 그 어떤 말마디도 찾을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눈가에 가득 차오르는 물기를 감추느라고 쫓기듯 바삐 방금 내려 온 방목지 오솔길로 걸음을 옮기었다.

걸음걸음은 말과 글로써는 다하지 못할 생각들을 불러 일으켰다.

그것은 이 땅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는 알수 없고 또한 이해할수도 없는 인민을 위해 바쳐가시는 우리 수령님의 한평생에 대한 가슴 뜨거운 생각이었다.

## 장군님과 차수

김정철

차수아바이도 이런 때가 있구나  
칭찬을 받으면 아이로 되고 마는가  
멋지게 정리된 서해곡창 황남벌-  
장군님께선 환히 웃으시며 거듭거듭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큰 일을 했다고

그러시는 그이앞에 송구한 마음 금치 못해  
금테 두른 팔소매를 맞잡고  
기쁨을 감출줄 모르는 아바이  
어이하랴 순박한 인간들의 그 천성  
더구나 장군님앞에서임에라

그래서 아니라 강원땅의 산골짜  
군당과 리당의 창문들을 두드리며  
새벽마다 울려 가던 석십한 그 목소리  
일군들은 빨리 나와  
자기 위치를 차지하라던

평복의 수령논을 밀어 가던 때엔  
자기 야전차의 윤활유를 뽑아  
불도젤의 기관에 채워도 주던 그  
해불을 추켜 들고  
길잡이도 하던 그가 아니나

차수라면 더없이 높은 군사칭호  
그아래 장령은 얼마고 군관은 얼마랴만  
장군님앞에선 언제나  
차수이기전에 부위원장이기전에  
돌격선의 병사로 사는 그 마음

아 수령결사옹위란 그 말을  
구호가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겨 가는  
일군  
순결한 그 마음이 내뿜는 빛발로  
어깨우의 큰별은 더 눈 부시구나

## 수령님 만세로 빛나는 땅

홍철진

백두에서 떠난 붉은기진군대오는 21세기 문어 구에 금지높이 들어 섰다.

새 세기와 뜨겁게 포옹하면서도 우리는 지난 세기와의 작별의 손만은 차마 놓지를 못한다.

20세기, 우리 수령님의 세기였고 수령님의 만세로 빛났던 세기였다.

승리와 영광의 상징으로 불리워 온 우리 수령님 만세!

우리는 이 말을 노래처럼 사랑했고 목숨처럼 지켜 왔다. 가장 기쁘고 행복한 순간에도 이 만세를 불렀고 총탄이 자기의 심장을 꿰는 마지막 순간에도 이 말을 남겼다.

이 말과 떨어 저 자기의 한생을 생각해 본적 없는 이 땅의 사람들이다. 이 말과 떼여 놓고 자기의 앞날을 상상해 본적 없는 우리 조국이다.

위대한 수령님 만세를 목청껏 부르며 살아 온 20세기, 우리는 그 20세기를 영원히 잊을수 없다.

### 1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만세!》

땅우에서 생겨 나 하늘에 닿은 말이다.

이 땅의 가장 높은 곳에 인민이 금문자로 아로 새긴 글밭이다. 이 글밭을 기밭처럼 날리며 우리 조국은 얼마나 빛나는 년대들을 자기의 갈피마다 수놓아 왔는가. 이 만세로 우리는 미국놈도 이겼고 채더미우에서 세상이 보란듯이 락원도 일떠세웠으며 천리마를 타고 세기를 주름 잡아 오늘에로 달려 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만세!》

이 말은 그대로 승리란 말이며 우리에게 하늘이었고 땅이었고 공기였고 물이었으며 빛나는 래일까지도 약속되어 있는 삶과 운명의 전부였다.

그러나 심장의 이 웨침은 저절로 태어나지 않았다. 우리에게 승리의 상징, 삶과 운명의 전부로 되기까지 우리 수령님 조국과 인민 위해 넘고 헤치신 험산준령은 얼마였고 겪으신 고생은 그 얼마랴. 어버이수령님의 한평생은 그대로 인민만세를 불러 오신 위대한 생애였으며 력사의 위대한 구간이었다. 인민만세의 그 로정을 말이나 글로야 어찌 다 전하랴.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야 했다.

우리 수령님께서 인민만세를 어떻게 불러 오셨는가를, 우리 잠시 준엄한 전화의 나날 최고사령부가 자리 잡고 있던 그날의 혁명사적지로 발걸

음을 옮겨 보자. 여기에 우리의 눈시를 뜨겁게 하여 주는 한벌의 보위색승마복이 있다.

승마복, 최고사령관의 옷이라 하기에는 너무나도 수수한 보위색군복이었고 어깨우에 별 하나 수 놓지 않은 너무나도 평범한 수령님의 옷이었다.

그러나 우리 알고 살았던가. 이것이 수령님의 단벌옷이었던줄, 이 옷을 입으시고 우리 수령님 포화속의 불비를 다 헤쳐 오신줄.

우리 수령님에겐 가보중의 가보였고 우리 인민에겐 국보중의 국보인 미국놈을 쳐이긴 사연 많은 승마복이다. 우리는 너무나도 모르고 살아 왔다.

전쟁이 어려운데 수령님께 해드릴 옷 한벌 이 땅에 없었던 말인가. 그 아무리 이 땅이 불바다가 됐단 한들 이 나라 장농엔 군복천 한벌감 없었던 말인가.

인민은 수령님께 옷 한벌 변변히 해올리지 못했는데 어이하여 수령님께 그 인민이 그러도 귀하셨던가.

인민의 숨결이 들리는 곳이라면 두메라 인적 드문 심심산골에도 사랑의 길을 내여 위대한 전설을 수 놓으신 어버이이시였다.

비가 오면 비에 흠뻑 젖으시면서, 눈이 오면 눈을 다 맞으시면서 수령님은 이렇게 인민만세를 이 땅에 새겨 가지였다.

백만리라 천만리라 혁명의 장화를 벗을새없이 인민만세를 써가신 로정 어찌 알랴, 학이 나는듯 조선기와를 틀지게 쳐든 농촌마을들 우리 수령님께서 발목까지 빠지시며 걸으셨던 어제날 버림받던 그 수령님에서 솟아 난 사회주의농촌문화주력은 아닌지.

그러하신 수령님께 물 한그릇 정히 못 떠올린 인민, 아궁목에 젖은 장화 한번도 말려 못 드린 그 인민 위해 수령님은 한생을 다 바치셨단 말인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님은 위대한 령도자이시였을뿐아니라 위대한 혁명가, 위대한 인간이시였으며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였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여, 백성된 도리를 우리 얼마나 잊고 살았는가를 알려거든 오라.

우리 수령님의 한생의 자옥자옥을 다 밝아 불

수 있는 여기 조선혁명박물관으로.

어버이수령님의 체온이 따뜻이 습배여 있는 듯한 외투, 이앞에서 삼가 걸음 멈추고 부디 눈 여겨보시라, 우리 어버이 어떤 옷을 입으시고 사셨는가를.

얼마나 오래 입으셨던지 소매며 깃이며 이제는 닳고 닳아 보풀로 색 바래진 수령님 외투.

이 외투 입으시고 찾으신 공장은 그 얼마며 넘으신 설령은 또 얼마랴.

어버이수령님의 손길아래 이 땅에 수많은 방직 공장 섰건만 닳고 단 수령님의 외투한벌 못 바뀌드린 그런 굴뚝의 흰 연기 무엇에 필요했던 말인가. 년간계획 완수했던 그 자량은 과연 무엇에 필요했던 말인가.

우리 수령님 이 옷을 입으시고 사나운 눈바람 다 막아 주셨기에 등 시린줄 모르고 배 고프줄 모르고 살아 온 우리건만 그 사랑, 그 은덕을 알고 산 날보다 모르고 산 날이 더 많은 우리였다.

세상에서 제일 위대하시면서도 너무나도 평범하게 사신분이시기에 우리 수령님은 오늘도 인류가 쌓아 올린 만세의 봉우리 만수대 높은 언덕우에 인민복차림새로 서계신다.

인민만세를 써가시던 손길을 오늘도 여전히 내리지를 못하시고 서계시는 수령님.

덕망이 위대하고 업적이 위대하여 세상에서 제일 높은 언덕우에 수령님 만세를 금문자로 새겼건만 우리 수령님은 그 우에 인민만세를 올려 놓으셨다.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인민인가,

공지의 봉우리, 만수대 높은 언덕에 올라 천하를 굽어 보라. 세상을 둘러 보라. 우리보다 존엄 높은 민족이 어디에 있는가를.

그리고 가슴 헤쳐 마음껏 자랑하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만세!》를 부르며 산 **김일성**민족, 우리 조선민족이 세상에서 제일 으뜸이라고-

##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만세!》

유구 반만년 우리 민족사에 언제 이렇듯 땃땃한 만세를 부르며 산 때가 있었는가.

만세는 그전에도 있었다.

그러나 그 만세가 우리 인민에게 가져다 준것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 한번 력사의 이끼 돋은 기와장들을 벗겨보자. 잠들었던 력사를 흔들어 깨워 보자. 흘러간 옛 세월을 다시 한번 불러 보자. 조선봉건왕조의 색 날은 옛 추녀아래 먼저 들어서보자.

그러면 들려 오는 만세소리 만세소리, 통상을 우리러 땅에 닿은 머리조차 들지 못하는 그날의

옛 사람들 보게 되리라.

목이 쉬도록 봉건의 허리를 감고 감은 만세소리, 그 만세소리로 궁궐의 추녀는 높이 들렸건만 이 나라 초가들은 피눈물에 놀리워 잤아만 들었다.

그것이 조선의 만세로만 알고 산 옛 사람들에게 우리 말해 주고 싶다. 머리 들어 똑똑히 보라. 저 궁궐은 만세 불러 바쳐 진 그대들의 피땀으로 추녀를 씻는다 기둥을 닦는다.

정녕 허리가 무겁도록 만세를 불렀건만 그 만세소리가 가져다 준것은 이 땅을 짓밟던 포악한 왜놈의 말발굽소리였다.

그리고 아름답던 내 나라 산천이 왜놈의 구두 발에 더럽혀 지고 그 산천마다 감돌던 이 나라 백성들의 만세소리는 왜놈의 총끝에서 산산이 흩날렸다. 그리고 쉽게 잃어 버릴걸 목이 다 꺼지도록 만세를 불렀던가. 무심쿠나. 이 나라의 통상아, 너를 위해 세세년년 불러 온 만세 네 어찌 그리고 쉽게 망국의 울분으로 변성시켜 놓았느냐.

이제는 노예로 된 통분함에 살것인가 죽을것인가, 2천만 백의동포를 소리쳐 부르던 《시일야방성대곡》은 또 얼마나 우리 민족의 가슴을 찢었던가.

만세 아닌 만세로 너무나도 헛되이 울대만을 아프게 오르내렸다. 악착한 왜놈들은 그 울대마저 꺾으려 드니 당당히 웨쳐 볼 만세가 없은탓에 왜놈의 만세를 강요 당했던 그 모진 아픔은 조선아 어떻게 이겨 냈느냐, 쓰라린 그 설음은 어떻게 참았느냐.

그대로 묵묵히 참고 살기엔 죽음을 삶으로 택한 민족이었다, 굴종을 수치로 아는 자존심 강한 민족이었다.

우리 알지 않는가. 열혈청년 안중근이 어떻게 침략의 피수를 쓰러뜨리고 그 더러운 몸통이를 딛고 서서 내 나라 만세를 목청껏 불렀는지.

허나 달아 오른 그 만세 식기도전에 사무라이 칼날에 찢기워 소리없이 내려 앉을 때 동강난 그 만세조각들을 붙들고 우리 조선은 얼마나 몸부림쳤던가.

《3. 1인민봉기》가 그렇게 일어 섰다가 피를 베고 력사에 누웠다. 《조선독립 만세!》를 두손에 추켜 든채 력사의 갈피속에 굳어 저 버렸다.

이렇게 시작했던 말인가, 조선의 만세소리, 피눈물로 닦을 올린 이것이 정녕 내 나라 만세의 기슭이란 말인가.

우리 민족을 깨운 만세라 하기에는 피를 토하던 두견새울음 같은 슬픔의 웨침, 고삭은 력사의 추녀를 나서 우리 다시 올라 보자 대성산혁명렬사릉 주작봉언덕으로-



바라보면 만세로 서 있는 투사들의 모습 피눈물에 젖은 그 옛날 만세를 머금고 섰다며는 영생의 모습으로 저렇듯 땀땀하게 안겨 올수 있으랴.

수령님만세로 빛나는 모습들 걸음걸음 그앞을 지날 때마다 값 높은 인생의 마지막목소리 금시라도 귀전에 들릴듯 싶다.

허나 한 투사앞에서는 돌처럼 발걸음 굳어만 지니 이제라도 말을 할수 있다고 해도 말 못할 투사가 여기에 있다, 누구나 목청껏 웨쳤던 만세 작은 목소리로나마 이 땅에 남기지 못한 투사가 여기에 있다.

허, 허를 이발로 끊은탓에 목청의 대문을 영영 달아 버린 투사여, 달리 할순 없었던가. 혁명가의 한생을 빛나게 장식해 줄 **《김일성장군 만세!》** 그 마지막웨침은 어떻게 터치려고-

그러나 투사예젠 그것이 수령님 만세였다. 인간의 존엄을 준 고마운 은인 위해 스스로 선택한 보답의 길이었다.

우리는 보았다. 수령님 만세-그것은 목소리로만 울려 지는것이 아님을, 이 땅이 진리로 새겨안았다. 이 나라 력사가 철리로 새겼다.

그래서 아닌가, 말 못하는 투사앞에 섰건만 더 크게 들려 오는 수령님만세소리-그 만세로 펼쳐진 우리의 푸르른 하늘과 땅.

이 만세 없었더라면 초볼처럼 영영 꺼졌을 우리 민족, 우리 어찌 만세사의 첫장에 순종과 피눈물의 만세를 먼저 놓을수 있으랴.

자주적인간으로 만세를 부른 첫 주인들이 바로 이 투사들이다.

다시 보면 대성산혁명렬사릉-그것은 그대로 붉은기였다. 영생의 대들마다 서 있는 투사들은 그대로 기폭에 아로새긴 수령님 만세의 글밭이었다.

**《한별 만세!》**로 시작된 우리 혁명의 력사, 그것은 붉은기의 력사이고 우리 조국의 력사이다.

그 만세로 이 땅은 영웅조선이 되었고 우리는 영웅인민이 되었다. 어버이수령님 만세로 빛나는 우리의 땅은 얼마나 눈부신것인가. 수령님 만세로 펼쳐진 우리의 하늘은 얼마나 맑고 푸른것인가.

### 3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만세!》**

우리 장군님의 호흡이고 맥박이고 심장의 박동이다. 5천년 력사이래 가장 큰 상실의 아픔이 찾아 왔던 7월에는 우리 장군님의 의지로 된 글밭이다.

눈물에 땅이 패이고 피 젖은 통곡에 하늘이 찢기던 그 나날, 이 땅에서 새날은 어떻게 밝았던가. 피눈물로 무거웠던 글밭들은 어떻게 빛났던가. 수령님 계시던 그날처럼 똑같이 세월의 흐름

을 맞춰 주시고 수령님숨결로 더웁던 그때처럼 이 땅의 체온을 맞춰 주신 장군님.

한걸음을 옮기셔도 수령님의 그 걸음으로, 그 어디 가시여도 그날의 수령님모습으로 우리 장군님은 이 땅에 수령님 만세를 이렇게 새겨가셨다. 끊임없이 이어 가시는 전선길도 수령님 만세를 써가시는 로정이었고 때없이 찾으시여 힘을 얻곤 하시던 자강땅, 강계의 그 눈덮인 설령도 다름 아닌 수령님 만세의 행군길이었다.

어버이수령님 만세를 써가시는 로정 산세 험한 고지나 눈보라길만이 아니었으니 원쑤의 숨소리 들려 오는 곳까지 우리 장군님은 가서야만 했다.

수령님의 맥박이 금시라도 들릴듯한 판문점 천필비앞에 서시여 장군님은 오래도록 발걸음 못 떼셨다.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고동마저 민족의 대단결에 고스란히 바치시고 순직하시는데 마지막 순간에도 자고 깨면 래일인듯 통일을 그리셨을 우리 어버이!

하늘땅이 무너져도 수령님념원을 반드시 이룩할 의지로 불 타시던 그날의 장군님안광 우리는 보았다, 온 세계가 보았다.

분별은 조선말이 아니다! 장군님의 이 의지앞에서 반세기동안 굳어 진 분별세월에 마침내 금이 가기 시작했다.

**《6. 15공동선언》**이 발표되고 **《북남합의서》**가 채택되었다.

이것은 수령님 만세로 의지를 버리신 우리 장군님께서만이 내리실수 있는 대용단이였다.

이렇게 써가신 수령님 만세 이 땅 어디에 비운 자리 있으랴. 바라보면 무심한 저 물결에도 빛나는 글밭은 새겨 저 있지 않는가.

위대한 수령님 만세로 거연히 일떠선 안변의 100리 물길굴이여, 말하라, 빛나는 글밭 어떻게 여기에도 씌여 저 있는가들.

물이 깊어 이제는 더 들어 가시기 힘들건만 장군님께선 발걸음 멈추지 않으셨다. 병사들이 피로써 열어 놓은 길 자욱자욱 끝까지 가 보시려나.

가시다 멈춰 서시길 그 몇번, 병사들의 고귀한 피와 땀의 구간들을 그냘은 그렇게 지나실수 없으시여 장군님은 손수건만 자주 적시시였다.

어찌 알겠는가, 거세차게 흐르는 이 물소리가 수령님념원을 소중히 품고 산 조국의 아들들이 소리높이 웨치는 위대한 수령님 만세인지.

누가 알겠는가. 이 물결의 푸른 빛이 맑은 눈동자를 가지고서도 마음 놓고 바라보지 못한 병사들을 대신하여 저 푸른 하늘이 고이 비낀것인지를. 이런 병사들과 함께라면 못 헤칠 고난이 그 무엇이랴. 이런 정신이라면 세상에 무서울게 무엇이겠는가. 전당, 전민이 따라 배우게 하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백배로 가다듬으셨던 그날의 그 의지가 바로 혁명적군인정신이었다.

우는 소리 하려거든 가보라, 안변청년발전소  
군인건설자들이 어떻게 맨손으로 100리 물길굴을  
뚫었는가를.

혁명적군인정신은 패배의 한숨을 여지없이 조  
겨냈다. 《고난의 행군》의 나날 이 정신이 없었  
더라면 오늘의 승리를 기약하기 어려울것이다.

혁명적군인정신이 온 사회에 차넘치고 인민군  
대가 혁명과 건설을 이끌어 가는 우리의 선군정  
치! 이것은 수령님 만세를 영원히 고수하고 지켜  
가시려는 우리 장군님의 독특한 정치방식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만세!》

이것은 동지였다. 선대수령과 후대수령사이  
에 오고 가는 뜨거운 동지였다.

아버이수령님을 우리 공화국의 영원한 국가주  
석, 수령님 창시하신 주체사상은 우리 당의 영원  
한 지도사상, 김일성 헌법의 제정, 이렇게 뉘을 모  
아 장군님 써가신 필승의 글발에 떠받들려 수령  
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것 아닌가, 인민  
의 심장속에 이 세상 끝까지 사시는것 아닌가.

이 땅에 새겨진 수령님 만세 다 모여 빛나는  
영생의 집, 금수산기념궁전이며, 세상에 전해 가  
라, 이것이 우리 장군님 이 땅에 펼치신 위대한  
수령님 만세, 만만세라고-

위대한 수령님 만세, 그것은 그대로 신념이고  
의지이다.

전향의 몽둥이에 청춘이 꺾일 때도 수령님 만  
세로 산 전사의 가슴에선 진달래가 피었다.

진달래, 진달래. 피멍이 든 전사의 가슴속에서  
승리의 노래되어 피워진 꽃, 그것은 수령님 만  
세로 끝끝내 승리한 신념의 꽃이고 의지의 꽃이  
였다. 어제는 지옥행에서 한떨기 진달래가 락원  
행을 타고 와 피어 나더니 오늘은 수많은 신념의  
꽃들이 장군님품에 안겨 활짝 피었다.

어찌 신념으로만 불렀다 하라.

그 누가 보는데 없는 망망대해, 거기서도 우리  
의 만세소리는 깨끗한 량심으로 검증되었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가장 평화로운 나날에  
수령결사옹위를 량심으로 깨우쳐 준 서해의 13명  
용사들을, 죽어 이름조차 새길수 없고 죽어 덮  
을 흙 한줌 없는 망망한 바다의 한가운데서도 우  
리의 량심이 어떻게 지켜 지고 있었는가를.

여기에 무슨 다른 말이 더 필요하랴. 물 한점  
스며 들지 않은 두분의 영상, 젖을래야 젖을수  
없는 깨끗한 량심이 다 말해 주지 않는다.

우리는 들었다. 최후의 순간에 그들이 웨쳤을  
량심의 만세소리, 오늘도 이 땅에 메아리친다.

좋은 날 좋은 때만 골라서 허끝으로 만세 부른  
신념의 약자들은 상상도 못할 일이다.

시련의 시기가 조금 닥쳐 와도 전혀 탄 목소리  
로 변성해 버리는 만세의 배신자들이야 어떻게  
알겠는가. 가장 어려운 때마다 우리 혁명이 진리

로 가르쳤다. 신념의 만세, 량심의 만세를 잃어  
버리면 우리는 또다시 노예가 되고 거지가 되어  
피눈물을 흘리게 된다는것을.

그 진리 허몰어 버리자고 제국주의자들이 졸라  
댔던 고립과 압살의 쇠사슬, 유혹의 올가미는  
그 얼마였던가. 어리석은 놈들이었다. 신념의 만  
세로 숨 쉬는 이 땅에서 질식의 신음소리 듣고저  
했다.

해봐라 그 어떤 제재라도-

어제도 우리는 제힘으로 살았고 오늘도 우리는  
제힘만을 믿고 산다. 할테면 해라, 누가 최후에  
웃는가 보자, 누가 만세의 승리자가 되는가 보자.  
이것이 우리 장군님의 의지였고 장군님을 닮은  
우리의 배짱이었다.

임으로만 웨치는 만세가 아니기에 등짐으로 저  
나른 거름은 얼마며 손끝에 피가 지게 쌓아 올린  
발전소의 언젠는 또 얼마랴.

제힘을 믿으면 살고 남을 쳐다보면 우리는 죽  
는다. 오직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다!

이런 인민앞에 오늘은 고난도 굴복하고 원썬들  
도 굴복했다.

강성대국의 휘황한 래일이 눈앞에 펼쳐진 우  
리 조국, 초대국이라고 자처하는 제국주의렬강들  
이 우리 눈치를 보게 만든 배심 있는 조국이다.

어제는 강원도가 변모되고 평북도가 달라 지더  
니 오늘은 황해남도땅에서 천지개벽의 발동소리  
높아 간다. 총대로는 제국주의코를 꿰여 마음 먹  
은대로 다불러 세운다.

우리 장군님 세월속에 수령님 만세는 더욱 찬  
연히 빛나고 있다.

그 만세 영원한 조선의 상징으로 빛내 주시려  
장군님은 제정해 주셨다, 인류의 태양절과 주체  
년호를.

얼마나 목 마르게 기다려 온 날인가. 온 세상에  
소리높이 장군님 웨치신 수령님 만세의 최고  
절정이며!

저 하늘에 빛나는 태양과 더불어 영원한 우리  
의 김일성 동지! 태양처럼 영원한 수령님과 더불어  
길이길이 불리워질 조선의 만세여!

태양의 명절과 태양의 년호를 한꺼번에 받아  
안은 우리는 얼마나 복 받은 인민인가.

그래서 더 위대하고 그래서 더 매혹되는 우리  
의 장군님, 수령님 만세의 영원한 수호자이신  
장군님을 우러러 인민은 목청껏 만세를 부른다,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 만세를, 오늘날의 위대한  
수령님 만세를!

땅.

복 받은 땅이며.

위대한 수령님 만세로 빛나고 장군님 만세로  
영원무궁할 내 사는 땅, 죽어서도 다시 안길 사  
회주의 내 조국이며!

## 꿈을 지키신 사랑

리충평

봄맞이 한창인 농촌마을 돌아 보시고  
동구길 나서시던 어버이수령님  
잔디밭우에 화첩을 펴놓고  
이제 떠나야 할 자신의 승용차를 그리는  
한 소년앞에 걸음 멈추시었네

어린 《화가》의 영특한 재간을 보시려는듯  
가까이 가까이 다가서시며  
그림을 눈 여겨 보시며  
수원들을 부르시었네

-이 애 숨씨가 여간 아니구만  
그런데 아직 차바퀴를 채 그리지 못했소

그만 부끄러움에  
소년은 연필을 모두어 쥔채 망설이는데  
다정히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며  
그이께선 호탕하게 웃으시여라

-우리가 떠나면 이 애가  
얼마나 섭섭해 하겠소  
시간이 좀 바쁘지만 기다려 줍시다

아, 이렇게  
수령님께선 기다려 주시고  
소년은 다시 연필을 달리고  
참으로 귀중한 시간은  
어린것을 위해 한초한초 흐르는데

어찌하라  
산 넘고 들 지나 이제 또 가셔야 할  
공장과 어촌마을...  
하루해도 저물어 석양을 불러 오거니  
수원들은 이젠 떠나셔야 한다고  
안타까이 말씀 올리는데

너그러우신 안색으로

새싹 움 트는 봄들판을 바라보시며  
수령님께서는 말씀하시여라

-얼마나 좋은 시간이요  
이런 시간을 얻기란 쉽지 않거든  
너무 서두르지 맙시다

그러시고는 다심한 어버이눈길로  
소년이 옮겨 가는 점과 선을 눈 여겨 보시네  
놓쳐선 아니될 귀중한 화폭인듯  
하나하나 정거이 보아 주시네

그러히도 아껴 주신 시간속에  
어린 꿈을 지켜 주신 그 사랑속에  
또렷이 살아 난 승용차의 모습  
그것이 그리도 대견스러우신듯  
손에 들어 보시고 또 보아 주시여라  
소년의 얼굴엔 기쁨이 한껏 피어 오르고...

-그것 참 신통하구나  
앞으로 좋은 그림 더 많이 그려라  
나하구 약속하자

어느덧 승용차에 오르시여  
정답게 손 흔들어 주시는 수령님 우러러  
이 세상 행복을 독차지한듯  
소년은 기쁜 마음 걸잡지 못하고  
꿈 많은 그의 머리우엔  
저녁노을이 곱게 비껴 내려라

한 소년의 꿈을 지켜  
마음을 지켜  
수령님 이토록 바쳐 가신 시간속에  
이 땅의 또 하나 꽃망울  
나라의 아름다운 화원속에 피어 내려니

아 수령님 지켜 주신  
그 시간은 짧았어도  
구만리 화창한 조국의 미래에 아롱질  
행복의 열매는 자라고 있었네

## 새 세기 명작창작의 앞길을 밝혀 준 강령적지침

류만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우리 식 사회주의붉은기를 높이 추켜 들고 강성대국건설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 나가는 21세기의 벽찬 진군길에서 우리 작가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문학예술부문에서 명작을 더 많이 창작하자》**를 발표하신 5돐을 뜻 깊게 맞이한다.

기나긴 인류력사에서 5년은 순간에 지나지 않지만 지난 5년간 우리의 문학예술발전에서는 전례없는 거대한 력사적전변과 경이적인 성과들이 이룩되었다.

우리 작가들은 20세기 마지막년대를 명작풍년으로 주렁지운 주체문학발전의 자랑스런 년대를 돌이켜 보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시대와 혁명, 인민대중의 요구와 지향을 반영하여 로작에서 전면적으로 새롭게 밝히신 명작창작에 관한 리론의 진리성과 정당성, 생활력을 다시금 가슴 뜨겁게 되새겨 본다.

로작이 발표되던 주체85(1996)년으로 말하면 우리 인민의 력사에서 참으로 준엄한 시련이 겹쌓인 시기였다.

사회주의가 붕괴되고 자본주의가 복귀된것을 기회로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은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나가는 우리 나라를 고립압살하기 위하여 온갖 책동을 다하였으며 경제봉쇄를 더욱 강화하였다. 우리는 사회주의나 자본주의나 하는 총포소리 없는 전쟁을 하고 있었으며 경제난관에 식량난까지 겹쳐 사실상 항일무장투쟁시기의 고난의 행군때와 같은 어려운 난관을 겪고 있었다.

하여 우리 당앞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생전의 뜻을 받들어 혁명의 붉은기를 더욱 높이 추켜 들고 원수들의 반사회주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를 견결히 옹호고수하며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 나가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 있었다. 우리 당앞에 나선 이 숭고한 혁명과업은 당사상사업의 전초선을 맡아 선 작가들로 하여금 그 어느 때보다도 분발하여 우리 인민을 더욱 힘 있게 불러 일으키며 그들에게 승리에 대한 신심과 락관을 주는 명작을 더 많이 창작할것을 요구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시대와 혁명의 요구를 구현하여 우리 시대 명작의 본질을 명철하게 밝히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현 시기 당이 요구하는 명작은 위대한 수령님의 생전의 뜻이 담겨 있는 붉은기정신과 <고난의 행군>정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는 당의 혁명적인생관을 철저히 구현한 작품입니다. 붉은기정신과 <고난의 행군>정신에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 구현되어 있으며 일심단결의 신념과 자력갱생, 백절불굴의 혁명적의지가 담겨 저 있습니다.》**

우리 당이 요구하는 명작창작은 본질에 있어서 정세의 요구, 당의 요구를 똑똑히 알고 인민들에게 불굴의 투쟁정신과 필승의 신념, 혁명적라관을 안겨 주는 훌륭한 문학예술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는데 있다. 붉은기정신과 《고난의 행군》정신이 맥박치는 시와 소설, 영화와 미술을 비롯한 문학예술작품을 더 많이 창작함으로써만 작가, 예술인들이 당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로서의 영예로운 사명을 다할수 있는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시대와 혁명, 인민의 요구와 지향을 반영한 명작을 더 많이 창작하기 위한 기본방도는 작가, 예술인들속에서 실력전을 힘 있게 벌리는데 있다는것을 밝히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시대와 혁명, 인민의 요구와 지향을 반영한 명작을 더 많이 창작하기 위한 기본방도는 작가, 예술인들속에서 실력전을 벌린다는것은 그들이 자기의 재능과 정열을 다 발휘하여 인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예술적생명력이 있는, 높은 사상성과 고상한 예술성을 가진 명작을 창작하도록 한다는것을 의미한다고 하시면서 실력전을 벌리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과학적인 해명을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시대와 혁명, 인민의 요구와 지향을 반영한 명작을 더 많이 창작하기 위해서는 작가, 예술인들이 당의 의도에 민감하여야 하며 자기의 예술적재능을 높여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였다.

당에 민감한 장군님께서 시대와 혁명, 인민의 요구와 지향을 반영한 명작을 더 많이 창작하기 위해서는 작가, 예술인들이 당의 의도에 민감하여야 하며 자기의 예술적재능을 높여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였다.

당에 민감한 장군님께서 시대와 혁명, 인민의 요구와 지향을 반영한 명작을 더 많이 창작하기 위해서는 작가, 예술인들이 당의 의도에 민감하여야 하며 자기의 예술적재능을 높여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였다.

해 피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실력전은 말 그대로 실력을 겨루는것인것만큼 작가, 예술인들에게 있어서 실력은 곧 재능이다. 재능이 없으면 실력에 대하여 말할수 없고 실력전을 벌릴수 없으며 결국은 훌륭한 작품을 창작할수 없다. 예술적재능은 훌륭한 작품창작의 전제이며 담보이다.

작가, 예술인들이 훌륭한 재능을 갖추는데서 중요한것은 당의 사상에 기초하여 형상의 대를 세울줄 아는 능력을 키우는것이며 또한 창작적사색을 깊이 하고 학습과 기량훈련을 꾸준히 하는것이다.

생활의 자질구레한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안목을 가지고 본질적이며 전형적인것을 진실하게 형상하여야 하며 당의 미학관과 문예관에 기초하여 사색하고 또 사색하는것을 습성화하여야 한다. 그래야 높은 예술적재능을 소유할수 있으며 그에 기초하여 실력전을 힘 있게 벌려 나갈수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로작에서 실력전의 요구에 맞게 명작을 많이 창작하기 위해서는 작가, 예술인들이 끊임없이 들끓는 현실속에 들어 가 현실체험을 깊이하는것이 중요하다는데 대하여 밝혀주시었다.

생활의 기본문제는 언제나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현실속에 있으며 따라서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현실에서 생활의 본질을 끊임없이 파악할 때 실력전을 벌려 훌륭한 작품을 창작할수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로작에서 이와 함께 실력전을 힘 있게 벌리기 위해서는 조직지도사업을 짜고 들고 정치사업을 실속 있게 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창작에 대한 지도를 잘하는데서 나서는 제반 문제들에 대해서도 명철하게 밝혀 주시었다.

참으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로작에는 시대와 혁명, 인민대중의 요구와 지향에 맞게 명작을 창작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이고도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완벽한 과학적해명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 로작은 선군혁명시대의 요구에 맞게 작가, 예술인들이 창작적자세와 립장, 태도와 관점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 오게 하였고 창작기풍에서 일대 양양을 일으키게 한 강령적지침으로 되었으며 사상에예술적으로 훌륭한 선군시대 명작창작의 거대한 추동력으로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로작에서 밝히신 명작창작의 가장 옳바른 길을 따라 작가, 예술인들은 주체문학예술의 대전성기를 빛내여 가는 로정에서 지난 5년간 실력전의 된바람을 일으켜 주체적문학예술발전의 새장을 찬란히 펼치였다.

만민의 한결 같은 지향과 념원을 담아 불멸의 혁명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가 창작된것은 주체문학예술발전에서 특기할 성과로 된다.

명작창작에 관한 위대한 사상리론을 높이 받들

고 그것을 구현해 나가는 과정에 작가들은 주체사실주의문학에서 기본의 기본으로 되는 수령형상창조에 첫째가는 관심을 돌리고 자기의 예술적재능과 불 타는 열정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붉은 산줄기》, 《삼천리강산》과 총서 《불멸의 향도》중 장편소설 《력사의 대화》, 《평양의 봉화》, 《전환》 등 소설작품들과 서사시 《평양시간은 영원하리라》, 《영원하라 동지애의 력사여》, 서정서사시 《최고사령관과 근위병사들》, 송년시 《잊을수 없어라 1998년이여》를 비롯한 시작품들을 성과적으로 창작하였다. 이와 함께 《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이신 김정숙동지를 칭송하여 장시 《인민의 어머니》 등 많은 작품들이 훌륭히 창작되었다.

수령형상작품, 백두산3대장군형상작품들은 20세기 마지막년대를 명작풍년으로 빛내이는 가장 귀중한 성과로, 주체문학예술의 고귀한 재보로 된다.

우리 작가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명작창작에 관한 사상리론을 높이 받들고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위대한 선군혁명로선이 빛나게 구현되고 있는 들끓는 현실과 우리 인민의 숭고한 사상정신적풍모를 다양하고 깊이 있게 반영한 장편소설 《열망》, 《백설령》을 비롯한 소설작품들과 서사시 《조국이어 청년들을 자랑하라》, 가사 《우리는 잊지 않으리》, 《우리 집은 군인가정》, 《승리의 길》 등 현실주체작품들이 성과적으로 창작하였다.

이러한 작품들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펼치신 선군정치를 받들어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헌신하는 근로자들의 불 타는 충성심, 혁명적신념과 의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혁명적락관주의정신이 훌륭히 구현되어 있다.

이렇듯 선군혁명의 위대한 현실을 반영하여 혁명적작품들이 유난한 성과로 두드러진것은 우리 장군님께서 밝히신 명작창작에 대한 사상리론의 위대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실증해 주고 있다.

20세기 마지막년대를 명작풍년으로 주렁지루는데서 고무적기치로 된 불후의 고전적로작 **《문학 예술부문에서 명작을 더많이 창작하자》**는 새 세기에도 우리 작가, 예술인들이 주체적문학예술창조와 건설에서 변함없이 계속 튼튼히 틀어 쥐고 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이며 참다운 교과서이다.

오늘 우리 인민은 위대한 장군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붉은기를 높이 들고 21세기 강성대국건설의 활로를 열어 나가기 위한 총 진군을 다그치고 있다. 우리의 사회주의붉은기진군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자주정치, 단결의 정치, 애국애족의 정치를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며 우리 당의 자주정치를 받들고 사회주의진군을 다그치는데서 기본은 선군로선을 튼튼히 틀어 쥐고 나가는것이다.

20세기 우리 시대 명작들에 시대정신으로 뜨겁게 맥박친 붉은기정신, 《고난의 행군》정신은 21세기에든 그대로 이어져 그것은 오늘 위대한 선군혁명로선의 빛나는 구현속에서 우리 시대의 참다운 시대정신으로 되고 있다.

새 세기 우리 작가들이 시대와 당이 요구하고 인민대중이 요구하는 명작을 훌륭히 창작하여 사회주의붉은기진군에 적극 이바지하기 위해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21세기 사회주의 붉은기진군을 다그치는데서 기본으로 되는 우리 당의 선군정치, 선군로선을 적극 구현하는것이다.

20세기 사회주의붉은기수호전에서 확증된 혁명의 철리가 빛나게 구현되어 있는 선군혁명로선에는 총대로 혁명을 개척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한생이 어려 있으며 총대로 혁명을 끝까지 완성하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강철의 의지가 구현되어 있다.

우리 당의 선군혁명로선과 그것이 빛나게 구현되고 있는 현실이야말로 우리 시대 명작창작의 기본대상이며 무궁무진한 형상원천이다.

작가들은 선군혁명령도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하시여 사회주의붉은기진군을 승리로 이끌어 나가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형상창조에 첫째가는 관심을 돌려야 한다. 총대로 혁명을 끝까지 완성하시려는 숭고한 뜻을 지니시고 한순간의 휴식도 없이 전선에서 전선으로 현지지도로 이어 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자욱마다에서 선군혁명의 새 시대에 맞는 부강조국건설의 빛나는 력사가 찬란히 아로새겨 지고 있다.

우리 시대의 명작은 력사가 알지 못하는 선군정치방식을 창시하시고 그 위력으로 우리 식 사회주의를 수호하시고 전진시키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과 불멸의 업적을 숭고하게 형상하는 바로 여기에 참다운 본질이 있다.

작가들이 문학작품에 우리 당의 선군정치로선을 적극 구현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우리 당의 선군혁명로선을 받드는 제일기수이며 돌격대인 인민군대의 혁명적군인정신을 작품에서 훌륭히 형상하는것이다.

혁명의 수뇌부사수를 영원한 좌우명으로, 총폭탄정신, 자폭정신을 전투적기질로 하는 우리 군대의 혁명적군인정신은 사회주의붉은기진군길의 영원한 기치이며 시대의 참다운 메아리이다. 우리 작가들이 창작하는 작품마다에 혁명적군인정신이 뜨겁고 힘차게 맥박칠 때 그것은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붉은기정신이 시대정신으로 충만된 시대의 명작으로 될수 있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로선을 반영하는데서는 이와 함께 선군혁명의 새 시대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변모하고 발전하는 현실과 인간들의 형상을 새 세기의 새로운 관점에서 보고 진실하게 그려

야 한다.

선군혁명의 새 시대의 현실은 지난 날과는 다르다. 우리 작가들은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우리 당의 선군로선을 받들어 부흥의 새 숨결로 약동하며 강성대국건설의 활로를 적극 헤쳐 나가는 장엄한 현실을 적극 구현하여야 한다. 그리고 거창한 전변의 세기, 창조의 세기인 21세기의 요구에 맞게 언제나 먼 앞날을 내다보시며 통이 크게 작전하시고 대담하게 변혁을 이룩해 나가시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식으로 살며 싸워 나가는 우리 시대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불 타는 충성심과 혁명적신념과 의지, 락관을 비롯한 숭고한 사상정신적품모를 훌륭히 형상하여야 한다.

선군혁명로선이 빛나게 구현되고 있는 자랑스런 현실, 선군혁명로선을 받들어 새로운 관점과 일본새로 강성대국건설의 활로를 열어 나가는 우리 인민들의 혁명적인 사상정신적품모를 다양하고 깊이있게 구현할 때 작품은 사회주의붉은기진군의 힘있는 추동력으로 되며 우리 시대의 명작으로서의 높은 정치사상적품격을 가지게 될것이다.

새 세기 우리 작가들이 시대와 혁명, 인민대중이 요구하는 명작을 훌륭히 창작하여 사회주의붉은기진군을 다그치는데 적극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창작가들속에서 실력전을 힘 있게 벌려 나가는것이 중요하다.

실력은 사회적존재로서 창조적활동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있어서 필수적인것이지만 특히 고도로 되는 정신적부의 창조사업에 종사하는 작가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생명과 같은것이다.

창작은 실력으로 하며 그 결과도 실력에 의하여 좌우된다.

더우기 사상관점과 사고방식, 투쟁기풍과 일본새에서 근본적인 혁신을 이룩해 나갈것을 요구하는 새 세기 우리 작가들에게 있어서 실력을 부단히 높이며 창작에서 실력전을 적극 벌려 나가는 것은 오늘 사활적인 문제라고 말할수 있다.

선군혁명로선이 빛나게 관철되어 강성대국건설의 활로가 개척되고 있는 장엄한 현실은 보다 혁신적인 안목과 기발한 착상, 진취적인 창작기풍을 요구한다. 지난 날의 구태의연한 안목과 관점, 창작기풍으로써는 결코 새 시대의 요구에 따라 설수 없다.

창작가들은 새 세기-21세기에 맞는 실력을 갖추고 새 세기가 요구하는 작품, 사회주의붉은기진군에 이바지하는 작품창작에 달라붙어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력사적인 로작에서 작가, 예술인들의 실력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구체적인 미학실천적방도들을 다 밝혀 주시었다.

문제는 우리 작가, 예술인들이 새 세기 주체적 문학예술창조와 건설의 요구에 맞게 실력을 어떻게 높여 나가며 창작에서 실력전을 어떻게 벌려

나가는가 하는데 달려 있다.

지난 시기 우리 작가들속에서는 일부 생활의 자질구레한 문제를 가지고 창작하거나 거기에서 《숨씨》를 보이려는 현상, 생활의 본질은 보지 않고 현상이나 이리저리한 비본질적인 성격에 흥미를 가지고 거기에서 《재간》을 부리는 현상도 있었고 작품창작에서 허구가 허용된다고 하여 허황한것을 고안해서 작품의 기본사상을 모호하게 하는 현상, 인물들의 운명을 기구하게만 그리고 전형적이 아닌 성격과 생활을 꾸며 내어 현실을 미화분식하거나 자화자찬하는 현상도 있었다. 그리고 일부 시인들속에서는 현실을 뜨겁게 체험하고 그 절절한 체험속에서의 느낌을 가지고 시를 쓸 대신 억지로 감정을 꾸미거나 일반적인 체험으로 시를 꾸미는 현상도 있었다.

지난 시기 작품창작에서 나타난 이러한 일부 편향들은 다 궁극적으로는 작가들의 실력과 관련되어 있는것이다.

작가들에게 있어서 실력은 그 어떤 자질구레한 손재간이나 개인적인 기호와 취미의 발현과는 인연이 없다. 작가들의 진정한 실력은 무엇보다도 정치사상적자질이며 그에 기초한 창작적재능이다. 높은 정치사상적자질이 안받침된 작가의 창작적재능은 현실을 체험하고 종자를 골라 잡으며 생활과 인간을 그리고 구체적인 예술적형상을 창조하는데서 높은 실력을 담보하며 실력전에 자신만만하게 립할수 있게 한다.

작가들은 그 누구보다도 당의 의도에 민감하여야 하며 한편의 작품을 창작하여도 거기에 당의 의도가 깊이 있게 반영되게 하여야 한다. 이것은 작품의 내용에서는 물론 인물형상과 감정정서에 이르기까지 작품형상전반에서 제기되는 요구이다. 작품에 당의 의도를 적극적으로 깊이 있게 반영하는 여기에 작가들의 진정한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다.

이와 함께 작가들은 창작적재능을 련마하고 높이기 위해 일상적으로 꾸준히 학습하고 기량을 숙련시켜야 하며 단 한순간도 사색을 중단하지 말아야 한다. 창작가들에게 있어서 생활의 매 순

간순간은 작품창작과 이어진 사색과 탐구로 충만되어야 하며 그런 속에서 예술적재능이 련마되고 발휘되어 훌륭한 작품을 창작할수 있다.

새 세기 사회주의붉은기진군에 이바지하는 명작을 훌륭히 창작하기 위해서는 또한 작가들이 현실에 들어가 생활을 깊이 있게 체험하는것이 중요하다.

현실은 작품창작의 모체이며 무궁무진한 원천이다. 더우기 21세기 강성대국건설의 진군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장엄한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벅찬 현실은 창작가들로 하여금 선군혁명시대에 맞는 명작들을 성과적으로 창작해 나갈수 있게 한다. 선군혁명문학을 창조하고 발전시켜 나갈수 있는 의의 있는 종자도 시대의 전형적인 성격도 다양하고 풍부한 형상방도도 다 현실속에 있다. 들끓는 현실속에 몸을 잠그고 생활을 깊이 있게 파악하고 높은 예술적재능을 소유할 때 선군혁명의 벅찬 시대의 숨결을 작품에 힘 있게 담을수 있다.

새 세기 우리 작가들은 새로운 관점과 혁신적인 안목을 가지고 현실체험을 깊이 있게 하고 체험된 생활이 약동하는 훌륭한 명작들을 내놓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20세기를 명작풍년으로 장식한 우리 작가들앞에는 21세기에도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사상예술적품격을 갖춘 훌륭한 명작들을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할 과업이 나서고 있다.

새 세기의 명작은 철저히 위대한 선군혁명령도를 반영한 명작, 선군혁명로선을 구현한 명작으로 되여야 한다.

우리 작가들은 실력전을 힘 있게 벌려 명작을 더 많이 창작할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의도를 높이 받들고 선군정치의 빛나는 현실이 날을 따라 더욱 활짝 펼쳐 지는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붉은기진군에 이바지하는 선군혁명문학창조와 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 나가야 할것이다.

## 명언해설

### 《창작적열정은 창작가의 생명이다.》

#### 김정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이 명언에는 불타는 창작적열정이 창작가의 본분을 다할수 있게 하는 결정적요인으로 된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

문학예술작품은 창작가의 열정의 결정체이며 탐구의 열매이다. 깊은 사색과 불타는 열정은 창작가에게 있어서 훌륭한 작품을 창작할수 있게 하는 생명과도 같이 귀중한것이다. 창작가가 열정을 쏟아 붓지 않은 작품에서는 살아 움직이는

생동한 예술적형상이 기대될수 없다. 창작가의 열정은 창작가를 불타는 창작으로 추동하는 힘의 원천이며 작품을 성공으로 이끄는 중요한 요인이다. 창작에서 성공의 비결은 창작가의 높은 사상적각오와 사상적열정에 있다. 불타는 창작적열정이 없는 창작가는 현실을 뜨겁게 대할수 없으며 생활을 진실하게 그려 낼수 없다.



# 나의 그리움이여

홍현양

이날처럼  
이 봄날처럼  
내 애 타는 그리움을 안고  
내 못 잊을 추억을 안고  
만경대고향길을 걸은적 있던가

4월은 아지랑이에 싸여  
4월은 꽃향기를 날리며  
저 멀리 저 아득한 하늘가에  
내 젖어 드는 마음  
꿈인양 실어 가고 있구나

내 마음 그리움속에  
눈시울 뜨겁고  
나의 그리움속에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  
못 건디게 어려 와  
4월은 태양의 모습으로 가득찼구나

진달래 떨기떨기  
이 땅에 4월을 한껏 터치며  
나의 옷자락 붙잡고  
어디선가 우짖는 새소리가  
고향집뜨락에로  
나의 발걸음 이끌어 가누나

그리움은 무엇이어서  
저 소나무 푸른 잎새에  
고향집추녀아래에  
아득히 흘러 간 지난 날을  
오늘인듯 불러 주며

태양의 모습을 새겨 주는가  
잊지 못해  
안고 사는 그리움은 사랑  
아, 우리 수령님  
고아의 눈물을 씻어 주신 이 가슴에  
따뜻한 봄비를 주셨기에  
그 사랑에 젖는  
4월은 나를 안아 키워 준 내 생의 세월

세월의 이끼에 덮이라  
멀리에 간다고 보이지 않으랴  
태양은 가리울수 없는  
어버이수령님 모습  
4월은 지지 않는  
만경대의 봄날

아, 고향집뜨락에  
정으로 가득차 흐르는  
나의 그리움이여  
어버이수령님 뵈고 싶은  
나의 간절함이  
진달래송이에 맺혀 피여 나는  
4월의 만경대여

만경봉 저 푸른 소나무아지에  
우리 수령님 어린 날  
잡으려 오르셨던 그 무지개가 걸려 있어  
새소리 슬픔을 모르고  
꽃향기는 이렇듯  
인류의것으로 목이 메누나!

가사

# 칠보산명승가

주광남

박달령 넘어넘어 칠보산 찾아 가세  
바위마다 기암이요 골마다 명승일세  
굽이굽이 새겨 가신 장군님 자욱 따라  
새 전설이 수 놓아 진 절승의 경개일세  
에헤루화 칠보산아 예 안 보고 어이 알라  
조국강산 빛내시는 장군님의 그 사랑을

내칠보 령을 내려 외칠보 찾아 가세  
봉이마다 절경이요 전설 많은 명승일세  
매바위라 이름까지 지어 주신 장군님

그 사랑에 일만경치 기묘함을 자랑하네  
에헤루화 칠보산아 예 안 보고 어이 알라  
조국강산 빛내시는 장군님의 그 사랑을

로적봉 굽이 돌아 해칠보 찾아 가세  
아득한 백리절벽 과도우에 춤을 추네  
명산의 새 모습을 장군님 펼치시니  
우리네 칠보산은 천하에 으뜸일세  
에헤루화 칠보산아 예 안 보고 어이 알라  
조국강산 빛내시는 장군님의 그 사랑을



## 한 지식인이 받아 안은 사랑

조선의 지식인들은 혁명적신념을 목숨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혁명가들이다.

우리 지식인들의 혁명적신념, 그것은 오직 자기 수령, 자기의 당밖에 모르며 우리 로동계급과 끝까지 운명을 같이 할 이 한길에서 일생동안 한번 먹은 마음 끝까지 변치 않는 혁명가의 강직한 절개이다.

우리에게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고 우리 당이 있으며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의 사회주의제도가 있다는 이 위대한 믿음,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지식인모두에게 마음의 기둥을 세워 주고 신념을 주는 원천이다.

지식인으로 한생을 빛내인 신진순동지가 받아 안은 고귀한 은정은 오늘 새 세대 지식인들에게 애국적지조와 혁명적신념에 대하여 더없이 귀중히 여기게 한다.

지금으로부터 8년전인 주체82(1993)년 2월 12일이였다.

그때 76살의 고령의 몸이 된 신진순동지는 이날 혁명전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수령님과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신임과 사랑이 얼마나 뜨겁고 깊은것인가를 더욱 가슴 사무치게 느끼게 되었다.

이날 신진순동지의 로년기의 사업과 생활을 늘 염려하여 주시며 극진히 보살피 주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문학예술 부문 일군들을 만나주시는 영광의 자리에 그도 내세워 주시였다.

여러차례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온 신진순동지는 그날 또다시 생의 말년에 아버지수령님의 접견을 받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반갑게 맞아 주시며 아 신진순동무, 잘 있었소? 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손을 뜨겁게 잡아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다시금 베푸신 보살핌속에 언제나 흠모하여 마지 않는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 뵈옵는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된 신진순동지의 가슴에는 걱정의 파도가 뜨겁게 일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 기쁨과 행복에 겨워 눈물짓는 신진순동지를 대견히 바라보시다가 깊은 감회속에 해방직후에 있었던 못 잊을 추억을 더듬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신진순동무는 내가 해방직후부터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때 나는 신진순동무와 자동차도 같이 타고 다녔습니다. 신진순동무는 서울에 있**

**던 제국대학을 나온 유일한 녀성졸업생입니다.》**

아버이수령님께서 해방직후에 있는 일을 하나하나 회상하시며 과분한 치하의 말씀을 해주시였다.

아버이수령님으로부터 감회 깊은 뜨거운 이야기를 듣게 되는 신진순동지는 자기가 해방직후에 서울을 떠나 평양에 온후 수령님을 처음 만나뵈었던 그 뜻 깊은 력사의 나날들에 대하여 더듬어 보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때 녀성지식인으로서는 혁명을 훌륭히 해나가도록 대중정치활동도 벌리도록 하시였고 또 평양시당 부녀부장 및 녀맹부위원장으로서 사업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투쟁경험도 전혀 없고 당사업과 녀맹사업도 해본 일이 없는 그가 평양시당 부녀부장과 녀맹부위원장의 무거운 책임을 맡고 녀성들과의 사업을 원만히 잘해 나가도록 그에게 사업방법으로부터 사업작풍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몸소 가르쳐 주시였으며 그를 결심걸음 따듯이 손 잡아 이끌어 주시였다.

언제인가 그를 몸가까이 불러 주신 아버지수령님께서 그새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일은 잘되고 있는가, 애로는 없는가고 물으시였다.

그가 애로되는것이 없다고 말씀 올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 왜 애로가 없겠소, 듣자니까 동무는 녀성들속에서 선동사업을 할 제강을 짜느라고 어제밤도 꼬박 밝혔다던데 너무 무리하지 말아야 하겠소라고 말씀하시였다.

아버이수령님께서 이러한 그를 대견히 바라보시며 생소한 사업이기때문에 힘들것이요, 그래도 건디여 내야 하오라고 힘 주어 말씀하시며 고무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문학을 전공했으니 앞으로 이 분야에서 많은 일을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께서 신진순동지의 눈을 띄워 주시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또 그가 앞으로 꼭 훌륭한 녀류작가가 되기를 바라시는 따뜻한 가르치심을 거듭 주시였다.

아버이수령님께서 신진순동지에게 돌려 주신 사랑은 그의 생활의 구석구석에까지도 은혜롭게 미치였다.

그후 수령님께서 신진순동지가 창작한 장편소설 《산촌의 새 력사》(상, 하), 《남녘마을아이들》과 여러편의 작품을 보시고 매우 만족해 하시

였다.

아버이수령님께서는 그에게 앞으로 좋은 작품을 더 많이 쓰라고 고무도 해주시고 가정에 대해서도 물으시며 딸의 장래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돌려주시며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 주시었다.

참으로 신진순동지가 받아 안은 영광과 행복은 끝이 없다.

오늘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해방직후 참된 삶의 길, 조국과 인민을 위한 애국의 길을 찾아서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 안겨 혁명가로 된 신진순동지를 굳게 믿으시고 대를 이어 가며 그와 후대들에게 크나큰 신임과 뜨거운 사랑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고 계신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를 있는 녀류작가인 그에게 문학예술총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시고 《김일성훈장》과 수령님의 존함이 모셔진 금시계를 수여하도록 하시였으며 저녁식사와석에도 불러 주시는 높은 신임과 최상의 영광을 안겨 주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신진순동지가 생일 80돛을 맞은 주체86(1997)년 5월 8일에는 영광 넘친 80돛 생일상을 보내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으며 그를 김일성조선의 훌륭한 녀걸이라고 높이 내세워 주시었다.

그렇다. 온 겨레를 한품에 안으시여 조국통일과 민족만대의 번영으로 이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품, 21세기를 이끄시는 그 품이 있기에 오늘도 변함없이 지식인대렬이 끊임없이 늘어 나고 있는것이다.

## 한상의 사진앞에서

박근원

살구꽃 활짝 핀 화창한 봄날  
대원수복 입으신 아버지수령님  
한 병사와 함께 찍으신 사진

내 이앞에서  
병사들 이앞에서  
인민이 이앞에서  
눈길 떼지 못하여라  
주체81(1992)년 4월 22일  
그날의 이야기 뜨겁게 안겨 와...

대원수복 입으신  
위대한 수령님 모습 뵈고 싶다는  
군대와 인민의 청 승낙되어  
일군들은 너무 기뻐 환성 올리고  
사진사는 그이의 기록하신 영상  
독사진에 정중히 모시려 서두르는데

-가만!  
그이께서 손을 들어 제지시키시니  
이 어인 일인가  
-내가 대원수가 되었는데  
오늘은 대원수와 보초병이  
함께 사진을 찍읍시다  
보초병을 근무교대시켜 주시고  
그를 자신의 곁에 세워 주시는 수령님

력사의 이 순간  
사람들 가슴속엔

사랑의 대하가 굽이치고  
걱정의 파도가 설레였어라

대원수와 병사  
군직으로 보면 하늘땅 차이건만  
평범한 인간으로서 동지로서  
보초병과 나란히 서시여  
기념사진 찍으신 아버지수령님

아, 보통병사의 위대한 동지되시여  
뜨거운 사랑으로  
온 심장 불길로 활활 태우신분  
한평생을 이렇게 사신분이  
우리의 아버지수령님이시여라

아, 그 진실한 사랑과 믿음  
언제나 곁에 있어  
우리의 병사들  
적구에 홀로 떨어져 저 있어도  
혁명적신념 지켜 싸워 이겼고  
고난과 시련의 험한 길도  
신심높이 웃으며 헤쳐더라

아, 궁지로워라  
행복하여라  
한 보초병 병사만이 아닌  
온 나라 군대와 인민과 함께 나도  
아버이사랑의 영원한 그 품속에 있거니

## 새 세기를 빛내일 영생하는 태양의 노래를

김순림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사회주의조선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21세기에 처음으로 맞게 되는 태양절! 가슴 뿌듯한 그리움의 정을 안고 지난 세기에 뜨겁게 노래 불렀던 태양송가를 다시 읊어 본다.

일찌기 위대한 **김일성** 시대의 려명이 밝아 오던 1920년대에 높이 올린 불멸의 혁명송가 《조선의 별》로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주체시문학에는 얼마나 많은 태양의 노래가 20세기의 하늘을 진감시켰던가.

이 장엄한 시대의 메아리속에서 우리는 태양절에 정서 깊게 울렸던 서정시들인 《아 우리 수령님》(홍현양), 《해빛》(리연희), 《만민의 꽃 **김일성** 화》(엄애란)가 사람들에게 깊은 감흥을 준 데 대하여 뜨겁게 되새겨 본다. 이 작품들은 새세기 태양송가창작에서 귀중한 경험들을 시사해주고 있다. 이 시들이 성공할수 있게 된 근본요인은 시인들이 지난 날의 도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종자를 찾아 자기의 개성이 뚜렷한 독창적인 체험세계에서 깊은 서정으로 노래한데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시대의 주도적감정을 개성이 뚜렷한 독창적인 체험세계에서 노래하는것이 바로 시문학의 서정성을 높이기 위한 기본요구이다.》**

태양절에 바쳐진 영생의 송가문학창작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위대한 수령님을 진정으로 우러르는 흠모의 고결한 정신세계를 작가적 개성이 뚜렷이 드러나는 독창적인 체험세계에 담아 노래하는것이다.

이때까지 기념시들에서 성공한 작품들도 적지 않았지만 어쩐지 독자들을 아쉽게 했던것은 해마다 반복되는 중요기념일들에 바쳐진 시들이 점차 일률적인 도식에 빠져 있는것이였다.

그러나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송시들은 자기의 독창적인 체험세계를 안고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것으로 하여 깊은 인상을 남겨주고 있다.

시인 홍현양은 4월 15일에 그리워 찾아간 만경대고향집앞에서 이때까지 하많은 시를 쓴 시인들중 그 누구도 느낄수 없었던 자기의 새로운 체험세계에서 시의 서정을 받아 안았다. 그것은 이 집과 관련하여 우리 수령님께서 어린 시절 애트한 추억마저 얼마 남기지 못하시고 한평생을 떠나사시였다는것이다. 이 집에서 우리 수령님께 차려드린 생일상이 과연 몇번이나 되겠는가, 어찌 보면 4월 15일, 이날만을 이 집에 남기시고

장장 수만리 우리 수령님 헤치신 백두의 산발과 무수한 진펄길, 미끄러운 발머리와 거치른 막장길을 거쳐 영생으로 이어진 그 길은 과연 얼마이던가. ...가슴 저린 생각과 더불어 시인은 이렇게 격조높이 읊었다.

고향집에서 누리실 삶의 락보다  
인민을 조국을 더 귀히 여기셨기에  
인민의 행복우에  
언제 한번 자신의 락을 놓지 않으신  
아, 우리 수령님!

고향집에서 누리실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여 고생속에 안겨 주신 인민의 행복이 대조적으로 부각되면서 새로운 철학세계가 뜻 깊게 빛을 뿌리며 안겨 오는 시세계가 여기에 있다.

시인 리연희는 4월명절 태양절에 유난히도 따스한 해빛을 받아 안고 그것을 단순한 자연의 해빛이 아니라 아버지수령님의 은정을 이 땅에 영원히 꽃 피우시려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뿌려주시는 사랑의 밝은 해빛으로 체험하였다. 과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안 계셨더라면 이 4월의 해빛속에 피는 꽃, 넘쳐나는 봄빛이 있을수 없으며 창가에서 울려나는 아이들의 노래소리, 벌가득 들어찬 감자밭의 정겨운 햇썩이 있을수 있겠는가.

이날의 해빛은  
우주의 빛을 다 모아  
생각 깊은 마음속에 줄줄이 비쳐 내리는  
장군님 뿌려 주신 밝은 해빛

이날은 수령님이 그리워  
누구나의 마음속에  
그리움이 사무치는 날  
그래서 우리 장군님  
인민의 마음속에 안겨 주시는 목 메이는 해  
빛

이리하여 시인은 이 해빛을 뿌려주시려고 수령님 다녀가신 마을을 찾으시고 수령님 잡아 주신 손과 손들을 잡아 주시며 전선길 천리를 헤쳐가신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생각으로 이어가는것이다.

시인 엄애란은 **김일성** 화전시회장에 피여난 불멸의 꽃 **김일성** 화를 노래에 담았다. 이때까지

**김일성** 화를 만민의 꽃으로 노래한 시들이 많았지만 이 시인은 세계의 벗들이 보내온 꽃들에서 무엇을 새로 체험하였는가.

꽃은 봄빛을 받아 안고 핀다지만  
너는야 이 마음에 봄빛을 뿌려 주고  
꽃은 온기속에 망울을 터친다지만  
너는야 이 마음에 따사로움 안겨 주네  
그래서 너 없으면  
우리 사는 하늘땅에  
빛이 없을듯 열이 없을듯  
네가 피는 꽃이야 어디에나 봄  
네가 피는 마음이야 그 언제나 봄

이 격동적인 시구절에는 이 시인만이 받아 안을 수 있는 독창적인 체험세계, 이 시인만이 펼쳐 나갈 수 있는 지성적인 사색의 세계가 빛나고 있다. 봄빛을 받아 **김일성** 화가 된 것이 아니라 **김일성** 화가 되어 이 마음에 봄빛을 안겨 주었고 봄빛의 따사로움이 있어 **김일성** 화가 망울을 터친 것이 아니라 **김일성** 화가 망울을 터쳐 봄의 따사로움을 안겨준다는 주장대로에는 참으로 고귀한 진리가 심오한 생활철학으로 빛나고 있는 것이다.

이 시들에서 보는 것처럼 시인들은 태양절의 정서를 자기의 얼굴이 뚜렷이 드러나는 독창적인 체험세계를 통해 개방하고 있으며 그것을 심오한 철학적사색을 통해 심화시키면서 아버지수령님 서거이후 4월의 봄명절에서 받아 안은 또 하나의 새로운 시의 세계를 펼쳐 보이고 있다.

이 시들의 창작경험은 무엇을 말해 주는가.

아버지수령님께서 비록 우리결을 떠나셨지만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영생하시는 수령님을 끝없는 흠모와 그리움, 목 메이는 격정속에 노래한 새로운 시적소재는 여전히 무한히 풍부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것은 결국 시인의 미학적탐구에 달려 있다.

대상도 같고 거기에 깃든 사적내용도 같지만 시인의 개성적탐구에 따라 천만가지로 노래할 수 있다. 시대가 다르고 시인이 다르고 구체적인 생활적계기가 다른것만큼 어느 시대의 각도에서 어느 시인이 어떤 생활적계기에서 시적대상을 보고 있는가에 따라 새로운 시세계가 태어나게 된다.

지금까지 위대한 수령님을 칭송한 시는 수령님의 생존시에나 서거후에도 수많은 시인들에 의하여 격동적인 송가로 수없이 울려 퍼졌다.

이 땅에 해마다 찾아 오는 4월의 봄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시어 주체의 태양절로 더욱 빛나고 있으며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주체시대의 력사는 경애하는 장군님에 의하여 계속 흐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고나 하고 그리움이나 토로하는 지난 시기 류형의 틀에서 태양절의 송가들을 쓸 수는 없다.

앞에서 언급한 3편의 시들에 노래된 4월 15일

과 찬란한 해빛, **김일성** 화는 앞으로도 열번이고 백번이고 또다시 노래되어야 한다.

문제는 독창적인 시형상의 세계를 시적대상에서 보다도 서정적주인공과 시적정황, 계기속에서 찾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매 시인이 자기의 생활을 안고 오늘의 견지에서 시세계를 찾을 때 같은 시적대상, 소재를 놓고도 얼마든지 새롭고 독창적인 체험세계를 발견할 수 있다.

다음으로 새롭고 독창적인 체험세계는 깊은 철학적사색을 통해 심화시켜 나갈 때 새로운 정서속에서 새로운 사상, 새로운 표현이 발견될 수 있다.

두 녀성시인들의 진지한 사색과 탐구정신이 안겨 오는 《해빛》과 《만민의 꽃 **김일성** 화》는 예리한 지성과 풍부한 감정의 령마루에서 새로운 생활철학을 밝혀 낸 기쁨진 시적표현으로도 우리를 기쁘게 하여 준다.

《해빛》을 보자. 이날을 《장군님 사랑이 가슴에 파고 드는 날》로 본 시인은 이렇게 참신한 주장토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날은  
해빛우에 해빛이 웃는 날  
누리가 밝고  
마음이 밝고  
산과 들이 온통 밝은 날  
...  
아 정녕  
이날의 해빛은 새로웁네 눈 부시네  
이날의 해빛은 뜨거웁네 목 메이네  
태양절 태양절이어  
장군님 안겨 주신 해빛의 명절이어

격동에 젖은 녀성시인의 목소리가 생생히 들려오는듯 싶은 이 시구절은 정말 우리 가슴을 무한한 감동에 젖게 한다. 《해빛우에 해빛이 웃는 날》, 《해빛의 명절》, 이 뜻 깊은 시적표현이야말로 천만마디 말로써도 다 말할 수 없는 사색의 세계에서 골라 낸 참신한 생활철학의 진수인 것이다.

아버지수령님의 해빛우에 위대한 장군님의 해빛이 또 웃는 날! 그 웃음이 해빛이 되어 누리가 다 밝아 지는 해빛의 명절! 이렇게 4월 15일을 노래한 여기에 작가의 개성이 있다.

《만민의 꽃 **김일성** 화》도 마찬가지이다.

네 뿌리 흙이 아니라  
억만 가슴가슴에 억세계 내려  
억만의 마음에 지지 않는 태양화  
너는 정녕 인민이 영원히 안고 사는  
수령님 숨결인 사랑의 봄

불멸의 꽃 **김일성** 화가 자연의 흙만이 아니라 억만의 가슴가슴에 억세계 뿌리 내렸기에 온 세

상에 계절없이, 국경없이 피고 피는 인류의 꽃으로 된다는 철학적진리는 이 시인이 찾아 낸 간결하고 뜻 깊은 시구절속에 담겨져 있다.

이 시인들이 4월 15일과 4월의 해빛, **김일성**화에 대해 좋은 시를 썼다고 해도 우리는 다른 시인들이 써야 할 몫을 다 썼다고 보아서는 안된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시를 썼다 해도 영원히 심장으로 노래해야 할 저 태양의 빛과 열, 그 찬란한 아름다움을 손색없이 다 노래했다고 자부할 근거로는 되지 않는다.

보다 구체적인 생활계기에서 시인나름의 자기 생활바탕을 가지고 4월 15일 만경대고향집을 찾으면 우리는 또다시 새로운 독창적인 시세계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아, 우리 수령님》에서 서정적주인공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

정녕 4월 15일  
이날을 이 집에 고이 남기시고  
먼길 떠나신 우리 수령님  
농민들과 마주하신 그 발머리는 얼마며  
우리 수령님  
밟으신 막장길은 또 얼마더나

여기서도 우리는 또다시 새로운 체험에 의한 독창적인 세계를 찾아 볼 수 있다. 지금 만경대고향집앞에 꽃다발을 들고 선 그의 손에서는 어제

까지 수령님의 유혼을 관철하기 위해 언 땅에 거름을 내던 거름내가 나지 않고 찬물속에서 소형발전소의 연재를 쌓으며 흘린 땀이 배여 있지 않다.

만일 그 거름냄새 배인 손, 땀에 젖은 손에 꽃을 들고 고향집을 찾는다면 또 하나의 체험세계가 새롭게 태어날것이고 또 하나의 서정이 훌륭한 시세계를 펼칠 수 있을 것이다.

서정시 《해빛》에서도 《만민의 꽃 **김일성**화》에서도 보다 구체적인 생활적바탕을 가진 서정적주인공을 내세운다면 또 다른 각도에서 새로운 시세계가 탐구되고 새로운 시가 태어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기념일시들에서 혁명사적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데 그치고 그날의 의의만 강조하고 여기에 약간의 정서적인 주정토로를 더하는 식의 《사적시》, 고정격식적인 《행사시》를 쓰지 말아야 한다. 서정적주인공을 범 《공민적》시점에 세우는 것보다 자기의 개성적인 생활바탕을 가진 산 인간을 내세우고 시적정황과 계기도 보다 구체화할 때 기념시들은 객관화, 도식화, 추상화의 경향에서 벗어 나 참신한 서정시로서의 본색을 살릴 수 있다.

우리 시인들은 21세기의 하늘을 태양의 노래로 가득 채우기 위해 더욱 분발하고 또 분발하며 더 높이높이 날으자.

## 병사의 그리움

### 주광일

잠시도 잠 재울 길 없구나  
이 가슴속에 깃들어  
기쁨이 되고 소원이 되고  
순결한 녀이 되어  
전호가에 넘쳐 나는 그리움을

언 땅에 배를 대고  
한밤을 지새울 때면  
총대너머 별빛에도 어려 오고  
훈련의 설참 먼 산발을 바라보아도  
내 마음 이끌어 가는것

그리움은  
장군님 뵈고픈 병사의 마음이다  
걸음걸음 따르는 병사의 정이다  
장군님 다녀 가신  
그 언제의 유정한 물노래였고  
밤길을 떠나시는 그이 따라 달려 가던  
중대의 눈 덮인 초소길이었다

추위에 언 발을 찬물로 녹이시며

천리전선길을 이어 가신 아버지  
우리 병사들이 있는 곳이라면  
벼랑길도 날바다길도  
웃으시며 헤쳐 가신  
령장의 그 사랑에  
천만심장이 불 붙는 이 그리움

아 한번 안기면  
떠나고 싶지 않은 품  
장군님과 정을 맺고 뜻을 나누는  
장군님의 병사는  
이 그리움으로 신념의 성새를 쌓고  
이 그리움으로 승리의 길을 연다

불속에서도 타지 않고  
눈속에서도 푸르른  
이 억센 나래를 안고  
오직 우리 장군님과  
끝까지 혁명을 함께 할  
병사는 언제나 그리움에 사노라  
(주체89. 12. 20)

## 아버지의 고귀한 사랑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는 혁명동지들과 인민들을 무한히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는 한번 믿음을 준 사람은 혁명동지로서 귀중히 여기고 그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피줍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이면 그 누구에게나 위대한 령도자와 뜨겁게 맺어 진 친혈육의 정과 사랑이 소중히 간직되어 있다.

몇해전 6월 어느날이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재능과 열정을 다 바쳐 일해 나가고 있는 여러명의 평범한 전사들을 몸 가까이 불러 주시였다.

뜻밖의 영광을 받아 안은 그들은 영화화면과 무대를 통하여 우리 인민들속에 잘 알려 져 있는 예술인들이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들을 뜨겁게 맞아 주시면서 이게 모두 얼마만이요, 그새 잘들 있었소? 라고 하시며 예술인들의 얼굴을 한명한명 정깊이 더듬어 보시였다.

예술인들은 이구동성으로 장군님, 정말 뵈고 싶었습니다, 꿈결에도 뵈고 싶었습니다라고 오랜 세월 품고 살아 온 그리움을 터쳤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나 역시 동무들이 보고 싶었습니다, 내가 동무들을 만나본지가 벌써 15년이 되었습니다라고 하시며 반가움과 회억에 잠기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혁명의 준엄한 폭풍우를 한몸으로 헤치시며 최후승리를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력사적인 강행군을 이끌어 나가시는 시기에 오래전에 만나보신 평범한 전사들을 이렇게 불러주신것은 언제나 변함없이 간직하고 계시는 전사들에 대한 사랑과 믿음, 그리움때문이었으며 어려운 시기에 전사들의 사업과 생활에서 무슨 애로라도 있지 않는가 하는 걱정때문이었었다.

하기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예술인들의 머리에 어느덧 흰서리가 내린것을 보시고서도 저으기 안색을 흐리신것이였다.

**《이젠 모두들 나이가 퍼그나 들었구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흘러 온 세월이 아쉬운듯 서운한 어조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매 사

람에게 지금 나이가 몇인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아이들은 몇이나 되며 아픈데가 없는가고 따듯이 물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매 사람의 얼굴을 유심히 보시면서 누구는 아직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인다고 기뻐 하시기도 하고 누구는 건강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걱정도 하시였다.

그러시는 모습은 오래간만에 만난 자식들을 대하는 친부모의 모습 그대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어느 한 예술영화에서 인상적인 역을 수행한 동무의 얼굴색을 살펴 보시고 내가 그전에 동무를 만났을 때보다 몸이 축갔다고, 동무가 심장이 좋지 않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데 일 없는가고 하시며 아픈데가 있으면 다 말하라고 말씀하시자 모두가 더는 참지 못하고 어깨를 들먹이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동무들이 지난 기간 우리 당의 문예정책을 높이 받들고 영화에 많이 출연하여 인민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치하하시면서 매 사람들의 공로를 평가해 주시였다.

예술인들은 과분한 치하에 몸둘바를 몰라 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어느 한 예술영화에서 주역을 수행한 동무를 가리키시면서 동무는 젊었을 때나 지금이나 다름없이 노래를 잘 부른다고,

오래동안 교단에서 이름 있는 가수들을 많이 키워냈다고 치하해 주시였다.

그러시고는 한 예술인을 가리키시며 동무는 예술영화 《이름 없는 영웅들》에서 말은 역을 잘 수행하였으며 아들을 영화배우로 키워 대를 잇겠다고 하는데 아주 좋은 일이라고 격려해 주시였다.

좌중에는 장군님께서 그의 아버지때부터 각별히 보살펴 주신 예술인도 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에게 지금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는데 언제 사망하였는가고 물으시면서 못내 가슴 아파 하시였다.

그 예술인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수십년전에 자기 집에 몸소 들리시어 마음껏 재능을 꽃 피우라고 축복해 주시던 그날을 돌이켜 보면서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품속에서 부모들이 한생을 값 있게 보냈다고 말씀 드리며 다함없



는 감사를 드리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예술인들의 사업과 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면서 한 여성예술인에게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고 물으시었다.

그가 자기의 희망을 스스로없이 말씀 드렸을 때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이 동무가 군복을 입겠다고 하는것이 얼마나 좋은가고 하시면서 더없이 기특해 하시었다.

자기가 이제는 나이도 적지 않으며 녀성의 몸이라는것을 고려하면서 스스로 포기하기까지 했던 희망을 귀중히 여겨 주시면서 커다란 고무격려를 주시는 은혜로운 사랑에 여성예술인은 두불을 하염없이 적시었다.

변하지도 식지도 멀어 지지도 않는것이 자식에 대한 부모의 정이라고 했다. 그래서 자식들은 어머니가 있는 곳이면 태양도 넘어 찾아 가고 백발을 이고서도 어머니앞에서는 철부지아이처럼 투정질을 하고 마음속소원도 털어 놓는다.

위대한 장군님의 품은 바로 그런 어머니의 품이다.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의 사랑의 품, 어버이품에 안긴 우리 인민은 누구나 다 장군님식솔이며 장군님의 품속에서 언제나 행복만을 누려 갈것이다.

본사기자

## 사랑하노라, 우리의 최고사령관기!

박현철

내 사랑하노라  
아침노을처럼 불 타며  
조국의 하늘에 펄펄 휘날리는  
승리의 나래  
우리의 최고사령관기!

송엄히 우러르면  
이 가슴에 운명의 붉은 빛을 얹어 주는듯  
귀 기울이면 나뭇기는 기폭소리  
우리의 궁지와 존엄을 속삭이는듯

오, 창공에 치솟아 천하를 굽어 보며  
백두산장군의 그 담력과 배짱으로  
백두산장군의 그 의지와 숨결로  
온 누리를 휩싸 안고 펄럭이나니  
그 기폭에서 끝없이 울려 나온다  
정일봉의 장쾌한 우뢰소리

나는 이 기발을 사랑하노라  
폭풍이 불 때면 더 세차게  
나뭇기는 기발이여!  
고난의 시기에 우리는 이 기발 높이 들었다  
이 기발 없으면 우리도 없기에  
이 기발 없으면 조국도 없기에  
병사들이 높이 든 기발중의 기발이여!

내 어찌 사랑하지 않으랴

이 기발 높이 든 병사들의 삶은  
위훈과 용맹을 날고  
원수벌의 빛발을 받아  
가슴마다에 영웅의 금별이 빛나더라

이 기발밑에 삶을 세운  
우리 인민들의 모습은  
시대의 진두에 선 신념의 강자, 의지의 강자  
이 기발아래서 일떠서는  
대기념비적창조물이 제일로 아름답더라

사랑하노라, 사랑하노라  
준엄한 력사의 시련을 가시여 주고  
강성부흥의 넓은 길에 우리를 세워 준 기발  
목숨 바쳐 한생토록 사랑하리라  
우리의 운명이며  
우리의 조국이며  
우리의 미래인 최고사령관기

오, 행복한 날에도 시련의 날에도  
인민은 이 기발아래서 길이 살려니  
이 땅 그 어디나 이 기발 휘날리면  
반드시 빛나는 승리가 마련되는  
선군의 붉은기여, 우리의 최고사령관기여  
들고 서면 천하가 발밑에 있다  
나는 사랑하노라, 우리의 이 기발을!

(주체89. 12. 20)

# 선군의 나라 외 1 편

김석주

그대는 작다 령토도  
그대는 적다 인구도

하지만 작은 나라 큰 나라들이  
제것을 고스란히 뺏기우면서도  
말 한마디 못하는 사나운 대국에 대고도  
할 말도 다하고  
받아 낼것도 다 받아 내며  
작은것으로 큰것을 이기는 그런 대국

총을 들고 진리를 말하고  
총을 앞세우고 행복을 창조하거나  
정의에 총대를 더하여 힘의 나라  
총대에 신념을 더하여 강한 나라

총대끝에 높이 단 붉은기  
군력으로 열어 가는 강성의 길  
그대 하는 일 하는 말 그 모든것  
그렇듯 두렵지 않고 당당하지 않다면

무엇때문에 원수들이 무리를 짓고도  
그대 하나를 맞서 뒤걸음치는것이라

그대는 크다  
그대는 강하다  
그대는 무적이다  
사랑하는 나의 선군의 나라여!

그대가 있어  
세상에 정의란것이 있다  
세상에 진리란것이 있다  
그대가 있어 지구가 아름다워 지거니  
그대가 없다면  
이 지구가 어디로 굴러 갔을것인가

총대로 나라의 기둥을 세운 나라  
위대한 선군장군  
우리 장군님의 전선길우에서 강성하는 나라  
내 나라는 선군대국이다!

##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다

굶겨 죽이려 했다  
말려 죽이려 했다  
숨통을 조여 질식사시켜 죽이려 했다  
원수들은 우리를

하지만 우리는 놀라지 않았다, 놀래울수도 없다  
고립  
압살  
그 무슨 위협공갈도 제재놀음도  
우리는 이미 그보다 더 엄혹한  
시련의 고비들을 넘어 오지 않았더냐

어제날 원수들은 우리를  
눈속에 얼겨 죽이려 했더라  
불속에 태워 죽이려 했더라  
재무지속에 묻어 죽이려 했더라

하지만 우리는  
아름드리나무도 무쇠덩이도 돌바위도  
얼어 터지고 녹아 흐르고 모래로 날리던  
그 눈속에서 열백번은 더 소생했고

그 불속에서 열백번은 더 버려 졌고  
그 재무지속에서 더 억세게 일어 서지 않았더냐

백두의 눈보라보다 더 모진 바람이 있더냐  
락동강 불비보다 더 가혹한것이 있더냐  
전후의 재더미보다 더 처참한것이 있더냐

우리는 눈속에서 얼구어 졌고  
불속에서 재무지속에서 달구어 진 사람들  
온갖 고난과 시련의 행군길에서  
강성대국을 떠메고 일어 선 사람들  
힘과 의지와 신념으로 버려 진 승리의 불사신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다  
너 원수를 죽이고 우리는 살아야 할 사람들  
살아서 우리가 선택한 길을 가고야 말 사람들  
무엇에나 이기는데 습관되고 승리가 기질로 된  
사람들  
우리는 수령님의 전사들  
우리는 장군님의 결사대원들

## 로병시인들의 심장의 웨침

-시초 《조선인민군 만세!》를 읽고-

안 성

새 세기의 첫 건군절을 맞으면서 시초 《조선인민군 만세!》에 류다른 감회를 가지고 음미해 본다. 그 제목에서부터 벌써 선군시대의 숨결이 느껴 지는 이 시초는 우리 로병시인들에 의해 엮여진 것으로 하여 류달리 이채를 돋군다.

지난 1950년대에 원쑤격멸의 총창을 비껴 들고 조국수호성전에 용약 펼쳐 나섰고 그 나날에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전시기대들을 수많은 창작하여 승리의 날을 안아 오는데 적극 이바지한 로병시인들, 그때로부터 화전시절의 총대마냥 붓대를 억세게 틀어 쥐고 시대의 부름에 언제나 앞장서 온 그들의 발걸음은 백발을 머리에 얹은 오늘에도 계속되거니 그들은 서로의 마음을 합쳐 선군시대의 또 하나의 성과작으로 되는 시초 《조선인민군 만세!》를 내놓았다.

시초에는 우리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받드는 제일 기수이며 돌격대인 인민군대에 대한 깊이 있는 시적형상이 열렬하고 풍만하게 무르익혀 졌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과 인민은 인민군대의 높은 충성심과 불패의 위력을 굳게 믿고 마음 든든해 있으며 적들은 이것을 무엇보다도 무서워 하고 있습니다.》**

시초는 인민군대의 불패의 위력에 대한 서정적 탐구에도 지향하여 선군시대의 기상이 나래치는 시적정서속에서 그에 대한 깊이 있는 사상적주장을 밝혀 내고 있다.

시인 김철이 시초중의 자기 시에서 격조높이 노래했듯이 《그 나날의 뜨거운 열기를/20년 30년 반세기를 간직한 로병》들이어서인가. 전화의 날에 로병시인들의 가슴속에 절절히 체험되었던 사상감정, 하여 피를 끓이며 한자한자 써내려 가던 전시가요의 글줄에 숨배여 지고 총탄이 울부짖는 결전장을 내달리던 영웅적위훈속에 깃들여진 감정정서가 시초의 련련마다에 생생히 어려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재현이 아니다.

오늘의 시대정신, 선군시대의 넓으로 고동치는 심장속에서 융해되어 그 열도로 더 뜨겁게 끓여지고 그 박동으로 더 거세차게 분출되는 정서이며 감정이다. 이런 시적정서, 이런 시대감정의 격류속에서 인민군대의 위력이 예술적으로 힘 있게 확증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인민군대의 불패

성, 영원성에 대한 철의 진리가 뚜렷이 독자들의 가슴에 새겨 지게 된다.

위대한 백두령장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모시여 인민군대는 영원히 불패의 위력으로 백승을 펼쳐가리라. 경애하는 장군님의 군대, 인민군대는 이 땅에 영원하리라.

시대와 력사가 새겨 주는 이 진리를 가슴 뜨겁게 감득하며 독자들은 로병시인들이 터치는 《조선인민군 만세!》의 우렁찬 함성에 자기들의 목소리도 주저없이 합치는것이다.

인민군대의 위력으로 승리의 력사를 빛나게 수놓아 온 우리 혁명의 어제와 오늘에 걸치는 정서적체험세계속에서 인민군대의 불패성, 영원성에 대한 심오한 사상적주장을 밝히고 있는 여기에 시초의 진가가 있고 무게가 있으며 커다란 감화력의 비결이 있다.

다양한 시인적개성과 각이한 인간적체험이 비친 시 7편이 어우러진 시초는 매 시편마다에서 로병특유의 예술적형상으로 사상정서적내용을 특색 있게 천명하도록 하고 있다. 작품들은 인민군대의 위력, 그 불패성에 대한 시적탐구를 여러 각도에서 심화시키면서도 시초전반에 일관되어 있는 총적인 주제인 《조선인민군 만세!》의 예술적해명으로 적극 지향되고 있다.

-시 《나의 무기》(최영화작)-

시초의 시작을 장식한 이 시에서 시인은 《총잡은 세월에나 붓을 쥔 세월에/넋으로 부르는 노래는 수령의 노래》임을 선언하면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정치 위대한 승리에 대한 노래로 붓대를 달리고 있다.

이것은 그대로 독자들로 하여금 인민군대가 떨치고 있는 불패의 위력의 근본원천에 대하여 사색케 한다.

총 잡은 나날에나 붓을 쥐고 조국 위해 복무해 온 나날에나 시인이 심장으로 절감한것은 수령의 귀중함, 수령의 위대함이었다. 애젊은 나이에 총대를 틀어 잡고 총포성 울부짖는 불의 전선길을 헤치며 《수령님 계시여 조국이 있음을》 사무치게 깨달았던 시인, 지금은 총대신 붓대를 서슬 푸르게 비껴 들고 총포성 울리지 않는 치렬한 대결전속에서 《장군님 계시여 오늘의 조국이 있음을》 천백번 되새겼다고 걱정을 터칠 때 우리의 눈앞에 어려 오는것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쉬임없이 헤쳐 가신 전선길이

였다.

마치와 낮우에 총대가 있다는 총대중시사상으로 천만의 심장을 불러 일으키시며 우리 장군님 《그 엄혹했던 고난의 날에》 끝없이 이어 가신 선군혁명령도의 전선길, 그 길우에서 력사의 기적을 안아 온 혁명적군인정신이 태어나 만만시련을 뚫고나가는 보검으로 되었으며 인민군대는 사상정신적풍모에서나, 투쟁기풍에서나 온 사회의 본보기로 내세워 졌다. 정녕 그 전선길우에서 인민군대의 《총대위력》은 천백배로 다져 진것이 아닌가.

독자들은 시를 읽으며 인민군대의 불패의 위력이 바로 《우리 장군님 선군정치의 위대한 승리》가 안아 온 필연적인 귀결임을 가슴 뜨겁게 새기게 되는것이다. 그리고 쉬이 노래할수 없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업적이기에, 가벼이 들수 없는 《선군정치의 붓대》 이기에 《총대의 무게》를 붓대에 실은 시인의 심정에 열렬한 박수를 보내면서 그 무게를 가슴마다에 소중히 간직하게 되는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함에 끝없이 매혹되고 다함 없는 경모와 뜨거운 감사의 정에 복받친 시인의 열정으로 하여 시초는 첫 시작에서부터 고도의 정서적양양이 일어 났으며 결과 작품의 전반적인 정서적흐름이 박력 있고 즐기차게 이어 지도록 할수 있었다.

-시 《내 그날처럼 다시 부르리》(석광희작)-

혁명군대의 위력은 무엇보다도 제국주의침략세력과의 준엄한 대결전에서 뚜렷이 파시된다.

우리의 존엄을 건드리는 자는 이 행성의 그 어디에 있건 절대로 용서치 않는다는 백두산기질과 담력으로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하고도 끈질긴 침략책동을 걸음마다 단호히 짓부시며 무적의 총대로 내 조국을 굳건히 수호해 가는 여기에 우리 인민군대의 첫째 가는 위력이 있다.

시에서는 로병시인이 간직한 멸적의 의지와 불타는 맹세의 열렬한 토로와 밀착시켜 인민군대의 위력을 여운 있게 노래하고 있다.

세월은 흘러 어느덧 귀밑머리 희여 겼건만 《마음은 때없이/옛 격전장에 달려 가》는 시인은 아직도 이렇게 심장을 불 태운다.

만일 조국앞에 판가리 그 시각이 온다면  
내 용약 2천년대의 전호속에 뛰여 들리라  
그리고 그날에 타끓던  
그 심장 그 숨결 그 피로  
또다시 쓰리라  
제2의 《결전의 길로》를

그날처럼  
그날처럼  
나의 노래 다시 높이 울리리

장군님 결사옹위의 번개가 되어 우뢰가 되어  
최후승리의 고지우에 울려 퍼지리

오늘도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력력히 남아 있는 전시가요 《결전의 길로》, 《쏟아 지는 불먼지를 손으로 쓸며/ 빈 탄약상자에 종군수첩을 펴 놓고》 시인이 한자 또 한자 새기던 이 전시가요는 그대로 싸우는 조선의 기상이였고 인민군대의 불굴의 기개였다. 이 노래 부르며 우리 인민군대와 인민은 미제원썹과 싸워 이겼다.

그 노래는 아직 끝나지 않았거니, 그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거니 《그날에 다 잡지 못한 미제원썹들》에 대한 치솟는 증오와 분노를 안고 시인은 제2의 《결전의 길로》를 쓰려고 나서지 않았는가.

시인의 이 모습에서 우리는 인민군대의 무적필승의 기상과 불패의 위력을 다시금 확인한다.

만일 조국앞에 최후결전의 시각이 온다면 인민군대는 50년전 그때처럼 시인이 쓰는 새로운 《결전의 길로》를 높이 부르며 용감하게 나아가 승리의 기발을 자랑차게 휘날리리라. 이런 확신으로 하여 우리의 심장은 세차게 들끓는다.

-시 《전승기념탑앞에서》(최로사작)-

인민군 녀병사들의 가슴속에 차넘치는 절대적인 수령숭배심을 깊이 있게 일반화한 이 시의 감흥은 구체적으로 어디서 오는가.

인민군대의 위력은 정치사상적우월성에 있다.

자기 수령에 대한 드림 없는 믿음을 안고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오로지 수령만을 따르는 절대불변의 신념은 어제도 오늘도 우리 인민군대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 근본핵을 이룬다.

시는 인민군 녀병사들이 간직한 절대적인 수령숭배심에 대한 깊이 있는 시적일반화를 통하여 인민군대의 위력을 심오히 깨우쳐 준다.

시를 읽느라 18살의 꽃나이에 정다운 대학의 교정을 떠나 《단발머리간호원》이 되었던 시인의 모습이 눈앞에 방불히 그려 지기도 하고 《격전의 고지에서는》 부상병을 업고 죽음을 맞받아 포연을 헤치던 불굴의 투지가 헤아려 저 눈곱이 젖어 오기도 하고 다시 전선으로 떠나는 병사들을 바라우며 부르던 《샘물터에서》의 선물이 귀전에 메아리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의 심금을 강렬히 울리는것은 《밤이면 줄음에 몸을 맡기면서도/ 북극성만은 잃지 않고/ 최고사령부 찾아 천리길을 걸》어 가던 녀병사들의 모습이였다. 《색 날은 군복, 닳아 진 군화》였지만 마음만은 승리의 신심을 잃지 않았거니 수령님 계시여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수령님만을 믿고 따르는 길밖에는 다른 길을 모른다는 신념을 총대처럼 억척같이 가슴속에 새긴 녀병사들이였다.

엄혹했던 날 피 흘리며 쓰러지면서도  
수령님만을 따르고  
승리만을 믿고 싸운 녀전사들의 신념  
우리 장군님 걸으시는  
오늘의 전선길에 더 세차게 굽이치고 있구나

이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을 결사옹위하는 총폭탄으로 만탄창된 우리 인민군대의 사상정신적품모에 대한 진실한 시적일반화이다.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절대적인 수령숭배심을 제일 가는 군풍으로 간직한 인민군병사들에 대한 뜨거운 격찬이다.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안고 살기에 우리 인민군병사들의 삶이 그토록 값 있고 영생하는것이니 망망대해우에서 장군님의 안녕을 바라며 생명을 바친 영웅들의 위훈도 불 붙는 산기슭의 《구호목을 목숨 바쳐 구원한》 아름다운 소행도 그 신념에서 시작된것이다.

전승기념탑앞에서 펼치는 소중한 추억의 정서속에 시인의 오늘의 모습이 우뚝이 표상된다.

...  
그 신념을 나는 안고  
오늘도 화전시절의 그 간호원으로  
못 잊을 썸물터에 물을 길러 가노라

이 결구는 전시가요 《썸물터에서》를 창작한 시인만이 터칠수 있는 개성적인 시적주장이다. 그 《못 잊을 썸물터》와 한생 인연을 맺고 사는 시인의 삶은 얼마나 궁지 높고 보람 있는것인가.

-시 《이것은 추억이 아니다》(심봉원작)-

전화의 그날에 1211고지 격전장에서 《전호숙의 나의 노래》를 터치던 시인은 지금 《군인가정의 내 나라》에 대한 격찬으로 가슴을 설레이고 있다. 시에는 온 집안이 대를 이어 총을 잡고 전호에 사는 총대가정, 군인가정들이 수많은 태어나 경애하는 장군님을 받들어 가는 내 나라의 자랑스러운 현실에 대한 정서적체험이 꾸밈없이 펼쳐져 있다.

《가슴팍에 훈장을 번쩍이며/ 승리의 날 내 집으로 돌아 가리라》고 그 불 타는 고지에서 심장으로 쓴 노래가 결코 《추억의 노래가 아니다》는 시인의 주장에 우리모두가 공감되는것은 과연 무엇때문인가.

《사랑하는 아들딸들을/ 장군님의 전선길에 세우고 있어/ 모든 집들이 훈장으로 번쩍이는 내 나라》의 벽찬 현실이 글줄마다에서 어려 온다.

조국보위는 최대의 애국이라는 숭고한 자각을 안고 우리 장군님께서 찾고 찾으시는 전선길에 기꺼이 사랑하는 자식들을 내세운 군인가정은 친이던가 만이던가. 아버지가 섰던 초소에 아들을 세우고 어머니가 잡았던 총을 딸에게 물려 준 군

인가정은 그 《아들딸들이 빛나는 훈장 없이는/ 돌아갈수 없는》 위훈의 집이거니 훈장, 그것은 승리의 표적이며 그 승리를 위해 값 높은 위훈을 세운 병사들에게 조국이 주는 고귀한 표창이다.

승리는 쉬이 오지 않는것이기에, 그 승리를 위해 아낌없이 바친 피와 땀이 없다면 그 누구나 쉬이 지닐수 없는 훈장이기에 그 훈장을 대대로 빛내이는것이 가장 큰 자랑으로 되고 기쁨으로 된 군인가정의 가풍.

이런 군인가정에서 태어나 총을 잡은 우리의 병사들이어서 오늘도 전호속에 울리는 노래는 빛난 훈장 가슴팍에 내 집으로 돌아 가리라는, 필승의 신념과 락관이 넘친 그 노래가 아니겠는가.

이런 군인가정들로 하여, 이런 내 조국의 가풍으로 하여 인민군대는 나날이 굳건해 지고 승리와 영광만을 펼쳐 온 그 불패의 전통은 대를 이어 빛나는것이 아닌가. 《백두의령장을 최고사령관으로 모시여》 진정 내 나라는 그대로 하나의 크나큰 군인가정이다.

이것이 시를 읽으며 가슴에 새기게 되는 우리의 생각이다.

-시 《오늘은 병사들의 어머니》(정서촌작)-

인민군대의 위력은 군민일치로 하여 더욱 백배해진다.

전시가요 《아무도 몰라》의 가사를 썼던 시인은 그때의 시적체험을 승화시켜 우리 당의 군민일치사상이 빛나게 구현된 선군시대의 모습을 개성적인 시형상으로 노래하고 있다.

전선에서 보내 온 한장의 편지를 받아 안고 오솔길덤불에 《치마폭 찢겨도 달려 가던》 처녀의 마음을 그때에는 아무도 몰랐으나 그 처녀가 《지금은 원군의 앞장에 선 어머니임을》 모두가 다 안다는 시의 구절은 참으로 격동적이다.

이 땅에 전쟁의 포성이 멎어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러 갔던가.

그 세월속에서도 시들줄 모르고 더욱 역세게 푸르려 지는것은 군민의 정이었으니 소잔등에 위장물을 엮고 전선원호에 앞장 섰던 그 처녀보잡이가 《오늘은 병사들의 어머니》로 친근하게 불리운다. 이 부름속에 깃들여 있는 원군의 하많은 사연들을 어찌 다 헤아리랴.

《어제는 한장의 편지를 받고》 달려 가던 처녀가 《오늘은 병사들의 편지를 받고》 우리 병사들이 제일이라 자랑하는 어머니로 되었다는 감명깊은 시적대조속에는 병사들과 혈연의 정을 맺고 한생을 살아 온 한 평범한 녀성의 남 다른 수고와 고결한 지성이 그대로 함축되어 있다.

고향집뜨락과 초소의 전호를 하나로 이어 놓고 사는 이런 뜨거운 마음이 우리 병사들에게는 더 없는 힘이 되고 슬기가 되는것이며 용맹이 되고 위훈이 되는것이다.

그 마음 제일 먼저 장군님 아시고  
 감사의 말씀까지 보내주시었으니  
 언제나 한전호속에 함께 서 있는  
 이런 어머니들이 있어 우리 군대가 강하다오  
 이런 어머니들을 지켜 우리 군대가 강하다오

이렇게 시는 끝난다. 그러나 감흥의 여운은 그  
 냥 메아리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빛내주시는 공고한 군민  
 일치, 한전호속에 어깨를 나란히 하고 언제나 함  
 계 있는 군민의 단합된 힘을 당해 낼 그 무엇이  
 이 세상에 있을 것인가.

-시 《병사의 모습》(한찬보작)-

나는 몰랐노라  
 서울과 대전을 지나 락동강으로  
 땅크를 몰아 가던 전화의 날엔 몰랐노라  
 병사의 어깨우에는  
 오직 조국수호라는 그 하나의 의무뿐  
 다른것이 더 없혀 있다는것을

그러나 오늘 시인은 어깨우에 《사회주의건설의  
 무게도 더 얹고》 있는 선군시대병사의 모습을  
 보고 있다.

한손에는 총, 《다른 손에 낫과 마치를 틀어 잡  
 고》 조국수호와 함께 사회주의건설도 믿음직하게  
 다해 나가는 여기에 인민군대가 펼치는 위력의  
 다른 또 하나의 면모가 있음을 시는 정서깊이 노  
 래하고 있다.

인민군대에 대한 경탄과 긍지, 사랑의 정이 시  
 에 그득히 차넘치고 있다.

수많은 발전조건설장의 언제우에서, 사회주의  
 새 대지가 태어나는 별에서, 아니 강성대국건설  
 의 불꽃 날리는 이 땅 그 어디서나 빛나고 있는  
 인민군병사들의 창조의 위훈을 시인은 구태여 길  
 게 노래하려 하지 않는다. 병사의 그 손이 벼포  
 기를 가꾸면 벼이삭은 《총알처럼 여물고》 그 손  
 이 가닿으면 《인민의 명산도 인민의 양어장도》  
 훌륭하게 솟아 나고 펼쳐 지는 우리 조국의 경이  
 적인 현실을 누구나가 다 절감하고 있지 않는가.

시는 《가장 험한 곳에서/ 가장 아름다운것을》  
 창조하고 《가장 어려운 곳에서/ 가장 빛나는 기  
 념비들을 일떠세우》는것으로 하여 병사들의 위훈  
 은 그토록 값 있고 고귀한것이며 그래서 병사들  
 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제일 사랑하시는것이라  
 고 토로하고 있다. 시인이 《땅크의 조종간 잡았  
 던 이손으로/ 그대들의 보배손을 잡아 주고 싶구  
 나》고 진정을 터칠 때 그 한사람만이 아닌 로병  
 시인모두의 심정으로 느껴 저 무척 공감이 간다.

길지 않은 이 시를 읽으며 독자들은 수호의 용  
 맹, 창조의 위훈으로 조국을 빛내이는 병사들의  
 모습이 《선군시대의 내 조국의 모습》으로 뚜렷  
 이 부각되어 움을 절절히 감득한다.

-시 《우리 군대 만세!》(김철작)-

승고한 계승을 이 시에서 본다. 그 계승으로  
 하여 더욱 불패해 지는 인민군대의 래일을 우리  
 는 보고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리도 소원이던 군복  
 을 입는 손자》를 바라보는 시인의 소박하고 열렬  
 한 생활감정이 진실하게 반영되어 있는 시는 우  
 리 인민군대의 영원한 승리에 대한 확신을 세차  
 게 북돋아 준다. 탐구된 시적계기는 참으로 생활  
 적이면서도 심원한 의미를 안고 있는것으로 하여  
 많은것을 련상케 한다.

전화의 그날에 애국의 《뜨거운 열기를》 안고  
 시인이 입었던 군복, 오늘은 그의 손자가 그리도  
 소원하며 입게 되었으니 혁명의 총대는 세대와  
 세대를 이어 굳건히 계승된다. 그러나 계승되는  
 것은 결코 총대만이 아니였다.

《혁명의 주력군이며 기둥인 우리 군대/ 당이며  
 국가이며 인민인 우리 군대!/ 이런 군대의 병사  
 된》 손자에게 시인은 로병의 존엄, 로병의 긍지  
 를 안고 승리의 전통을 엄숙히 물려 준다.

믿는다 다만

너 반드시 선군시대의 영웅이 될것을  
 믿는다 굳게 믿는다 너 언제나  
 혁명의 수뇌부가 그어 주는 화살표  
 그 앞장 첫번째 포탄이 되어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 제끼리라는것을

이 믿음을 지니고 전호에 선 병사의 래일을 본  
 다. 이런 병사들로 천만대오가 정렬된 인민군대  
 의 래일을 본다.

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결사로 받들어 가는  
 열혈의 병사들이 대대로 지켜 썼기에 인민군대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빛나리라는,  
 우리 인민군대의 불패의 위력은 천만대를 두고  
 영원하리라는 심오한 진리를 새겨 주는것이다.

위대한 령장을 높이 모신 선군시대와 더불어  
 끝없이 이어 질 불 타는 충성의 혈통, 빛나는 승  
 리의 전통을 절감하며 《최고사령관기 펄펄 나뵈  
 기는》 새 세기의 언덕에서 우리모두는 시인과 함  
 계 《김정일장군의 군대 만세!》를 목청껏 웨친다.  
 로병시인들의 노래는 끝났다.

그러나 선군시대와 보폭을 맞춘 그들의 정보행  
 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화선시절의 그 열정, 그 투지를 변함없이 간직  
 하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혁명의  
 필봉으로 힘 있게 받들어 가는 로병시인들은 우  
 리 선군시대의 자랑으로 되며 그들이 터치는 노  
 래는 선군시대 시문학의 면모를 보다 훌륭히 해  
 주고 있다.

우리는 로병시인들이 간직한 경애하는 장군님  
 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심과 마를줄 모르는 창작  
 적열정과 지혜로 하여 앞으로도 보다 더 훌륭한  
 시대의 명작들이 더 많이 태어나기를 열렬히 바  
 란다.

## 시대정신과 시인의 모습

리성덕

작가일반이 다 그러하지만 특히 시인이라고 할 때 시대정신에 가장 예민한 사람들이며 시대를 안고 몸부림치는데서 자기의 참모습을 나타내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김일성**상》 계관인인 시인 정문향은 우리 문학사에 뚜렷한 흔적을 남긴 시인들중의 한사람이다.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그가 활동하던 시대는 어느덧 과거에 속하게 되었지만 그가 남긴 많은 시들이 아직도 우리 독자들의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있는것은 무엇때문인가.

그 시들에 시대가 비껴 있고 시대정신이 맥박치고 있으며 시대를 안고 몸부림친 시인의 모습이 뜨겁게 어려 있기때문일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시문학은 눈 부시게 발전하는 현실을 민감하게 반영하여야 하며 시대를 선도하는 투쟁의 기치로 되여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밝혀 주신바와 같이 우리 시문학은 그 어느 문학종류보다 현실을 민감하게 반영하여야 하며 시대를 선도하는 투쟁의 기치로 나뭇겨야 한다.

우리 시문학의 이러한 사명은 시대정신에 민감한 시인들의 창작과 문학활동에 의하여 실현되어 왔고 또 실현되고 있는것이다.

시인 정문향은 주체55(1966)년부터 30년 가까이 작가동맹 개성시위원회 위원장으로 사업하면서 창작하였다.

이 글에서는 그의 후반생이 흘러 간 개성에서의 창작활동과 생활을 위주로 담으려고 하였다. 그때 문학신인이었거나 학생이었던 많은 사람들이 오늘은 대학교원으로, 작가동맹 맹원으로 성장하여 활동하고 있다. 그들모두에게 시인에 대한 제나름의 회상과 추억이 있다.

물론 그들 개개인의 회상과 추억은 부분적인것이고 단편적인것임을 피할수 없다. 그렇지만 그 모든 추억의 조각들을 모은다면 시인에 대한 회상은 풍부해질것이고 시인의 창작활동과 인간적인 모습을 방불히 재현할수 있지 않겠는가. 불가능한 시도가 아니였으며 더구나 시인이 우리곁을 떠난 지금의 조건에서는 그렇게 하는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는 일이기도 하다.

유가족들이 보관하고 있던 시인이 자필한 리력

서의 자서전, 약간의 유고가 입수되어 이 글의 사실성과 신빙성을 담보할수 있게 된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 아닐수 없다.

### 1

시인 정문향에 대하여 말할 때 제일 먼저 생각되는것이 조국과 시대를 대하는 그의 시인다운 뜨거운 립장과 자세라고 할수 있다. 지금으로부터 46년전인 주체44(1955)년에 출판된 그의 첫시집 《승리의 길》 첫 폐지에 이런 시가 있다.

일생의 간절한 소원으로  
당신을 뵈옵고저 원하는  
천만사람의 심정으로  
당신앞에 나는 섰나이다  
...  
당의 수령이신 당신이  
당의 이름으로 제시하신  
그 과업을  
우리는 받나이다 당신앞에서  
...  
무엇을 아끼오리까!  
무엇을 헤아리오이까!  
당신앞에

시인은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을 태양으로 우리러 따르는 《천만사람의 심정》으로 수령님앞에서 있었으며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과업을 물불을 가리지 않고 관철하려는 뜨거운 전사의 자세로 조국과 시대앞에 서 있었다.

창작 초시기에 해당되는 주체41(1952)년에 쓴 시 《그이의 음성을 들으며》에서 시인은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의 불길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수령으로 모신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노래하고 있으며 승리에 대한 락관에 넘쳐 《깎아 내는 포탄마다에서 그이의 음성을 느끼며》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으로 싸우는 로동계급의 모습을 격정에 넘쳐 노래하고 있다.

**김일성**시대의 로동자  
조국을 지키는 보람 큰 이날에  
포탄을 깎는 우리의 자랑을  
무슨 말로써 말하랴

시인은 벌써 이때 **김일성**시대를 마음속에 열렬히 노래하고 있으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언제나



《기름에 젖은 나의 손을 뜨겁게 쥐여 주시는듯  
눈여겨 보시는듯》, 《계기의 작은 눈금을 함께 들  
여다 보시며 나의 앞에 그이는 서계신다》라고 뜨  
겁게 노래하고 있다.

전후 사회주의건설시기에도 시인의 창작세계에  
서는 수령과 당과 조국에 대한 뜨거운 공민적감  
정이 더욱 굵이치고 있었다.

나는 시를 쓰나이다  
천대 받던 노동계급의 아들이  
손에 붓을 쥐고 노래를 쓰나이다  
...

나는 시를 쓰나이다  
이 밤도 주무시지 않으시고 조국의 앞길을  
밝히시는  
위대한 당신이 계시는  
수도의 창가에서  
수령이시여, 나도 기쁨에 설레며  
이 노래를 쓰나이다

-시 《나의 노래》(1958년)중에서

시인은 수령님께서 지펴 주신 불빛으로 가슴을  
불 태우며 《불빛을 뽐기 위해 세차게 타번지는  
모닥불처럼 나는 시를 쓰나이다》라고 노래하였  
다.

시인 정문향은 수령님과 당과 조국에 대하여  
《세차게 타번지는 모닥불처럼》 시를 쓰는것을 최  
고의 사명으로 자각하였으며 그것이 한생을 통하  
여 순간도 놓쳐 본적 없는 그의 시정신, 시세계  
의 핵이었다.

70년대에 들어 서문서 창작된 《이 땅우에 이날  
이 있어》, 《수령님의 영상을 우러러》, 《주교  
주신 그 사랑 끝이 없건만》, 《어디서나 문득 만  
나뵈울듯》을 비롯한 많은 시들에서 시인은 수령  
님에 대하여 보다 폭 넓고 심도 있게, 보다 열렬  
하고 뜨겁게 노래하고 있다. 이 시들을 통하여  
시인의 혁명적수령관이 높은 경지에 이른것을 볼  
수 있다. 이때 벌써 시인은 수령을 목숨으로 옹  
호보위하는것을 우리 민족과 조국과 혁명의 운명  
을 지키는것으로 보았으며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영광이고 행복이라는데 대하여 노래하였다.  
시인은 70년대 초에 창작한 시 《7련대는 가고  
있었다》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7련대는 이렇게 가고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을 목숨으로 지켜  
당과 조국과 인민을 지켰고  
끝 없는 혁명의 미래를 지켜  
오늘에도 잇닿은 수령님의 근위전사들

그들은 오늘도 충성의 그 불길로  
우리 심장을 불 태우며

수령님을 위하여 한목숨 바치는  
그 영광 그 행복을 안겨 주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가고 있어라!

투철한 혁명적수령관으로 일관된 시인의 이러  
한 시정신은 어떻게 이루어 진것인가. 이것은 결  
코 일반적인 론리나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해명할  
문제가 아니다. 다시말하여 시대발전의 요구가  
그러했기때문에 시인이 시대정신을 자기 시에 구  
현하는 과정에 스스로 이루어 진것이라는 일반적  
론리로 답을 찾을수 없으며 또 그렇게 보아서도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는 시인자신의  
대답을 찾아 내야 하며 그가 남긴 작품들과 그의  
경력과 세계관형성의 전과정에 대한 변증법적인  
고찰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고 본다.

시인이 주체64(1975)년에 쓴 자서전에 의하면  
그는 3. 1인민봉기가 일어 나기 한달전인 주체8  
(1919)년 2월 1일 함경북도 무산군 서호리 궁벽  
한 산골에서 한 빈한한 농민의 넷째 아들로 태어  
났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애 이르기까지 대대로  
화전농으로 살고 있던 빈한한 가정은 그에게 배  
울 조건을 보장해 주지 못하였다. 열살이 넘어서  
야 마을아이들을 모아 놓고 글을 배워 주는 《사  
설강습소》에서 주체18(1929)년부터 몇년간 글을  
익힌것을 내놓고는 정규교육은 단 1년도 받아 보  
지 못하였다. 그런데다가 15살되는 해에 봉건유  
습에 젖어 있던 부모들의 강요에 의하여 나이가  
6살이나 우인 유선군의 리계육이라는 녀성과 강  
제결혼을 하게 되었다. 《이런 가정환경과 고통스  
러운 처지에서 소학교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농사일을 하게 되었고 학교공부를 더하려고 무  
진애를 썼으나 나의 가정형편은 그런 혜택을 주  
지 않았다. 두만강을 아침저녁 건너 다니며 농사  
를 짓는 화전민생활의 고역과 일제경찰과 세관관  
리놈들로부터 받은 모욕과 멸시는 나에게 현실에  
대한 불만과 반발의식을 더욱 품게 하였다.》

시인은 자서전에서 계속하여 쓰고 있다. 《이리  
하여 나는 1938년경까지 <문명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틈만 있으면 책을 읽었고 때때로 집을 탈  
출하여 일자리를 구하려 방황하기도 하였다.》

주체27(1938)년 봄부터 조국이 해방될 때까지  
시인은 중국 동북지방을 방황하면서 일제의 여러  
회사들과 광업소에 서 하급사무원(교원, 청사진공  
등)으로 민족적멸시와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생활  
하였다. 20살을 전후한 이 시기는 시인의 세계관  
형성에 중요한 시기였다. 이때 그는 중국 동북  
지방에 널리 퍼지고 있던 《조선의 빨찌산대장  
**김일성**장군》에 대한 전설적인 이야기들을 수많이  
들으면서 거기서 조국해방과 식민지청년의 운명  
을 구원해 줄 희망의 밝은 등대를 보게 되었다.  
그랬기때문에 시인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을  
해방해 주시자 곧 조국으로 달려 나와 장군님의

건국로선을 받들고 부산군해방청년동맹 선전부장으로 한몫 바쳐 일하면서 토지개혁선전 등의 사업에 정열적으로 참가하였던 것이다. 주체 35(1946)년 봄에 청년동맹 도위원회에 소환되는 기회에 시인은 가슴속에 오래도록 품어 오던 창작의 꿈을 실현해 볼 생각으로 청진방송국 기자, 파장으로, 후에는 《함북로동신문》사에 근무하면서 시창작과 문필활동을 정력적으로 벌렸다. 그 과정을 통하여 그는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원으로 자라났으며 이 시기에 유명한 시 《대의원이 나서는 구내》를 비롯하여 《푸른 벌로 간다》, 《무산령》, 《승리의 선언》 등 많은 시들을 창작 발표하였다.

이 시기 그의 시들에 관통되고 있는 시정신은 조국을 찾아 준 수령님을 위해, 로동자, 농민의 새 나라를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일하려는 로동자, 농민의 숭고한 사상감정을 격조높이 노래한 것이었다.

천년도 넘는 세월  
그립던 내 땅을 찾아 주신 그이  
...  
무엇으로 보답하랴!  
무엇을 아끼랴!  
빼앗긴 네 땅을 찾아 주신 그이앞에!  
-시 《푸른 벌로 간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속에 시인이 주체 56(1967)년부터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여러 송가창작에 참가하고 주체 60(1971)년부터는 4.15문학창작단의 한 성원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작품에 담는 영광스러운 창작을 맡아 안게 된 것은 오랜 세월 시인의 가슴속에서 끓고 있던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열화와 같은 뜨거운 충성심을 마음껏, 궁지높이 온 세상에 노래할 수 있는 다시 없는 기회로 되었다. (이 시기의 창작생활에 대해서는 다른 필자들의 글을 기다린다.)

시인은 자서전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나의 지나온 생활과 모든 운명에 대하여 생각할 때 나는 오직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위하여 언제 어느 때나 목숨도 서슴없이 바칠 그 일념만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생명과 나의 행복을 지키는 길이며 우리 당과 우리 조국의 무궁한 반영을 담보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생의 말년에 불치의 병으로 육신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창작을 뜻대로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도 시인의 심장은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충성의 일념으로 변함없이 뜨겁게 고동쳤다.

1993년 초봄 어느 날이었다.

이때 시인은 병이 위독하여 운신하기 힘들어하였다. 침상에 누워 있으면서도 담당의사가 약봉지를 들고 찾아 오는 것보다 작가들과 동맹원들과 문학신인들이 찾아 오는 것을 더 반가와 하였다. 그때 개성시예술단 작가인 박원종이 그날 아침 녀에 선생의 집에 들어 서니 침상이 비어 있었다. 식구들조차 그가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였다. 창작실이나 다른 작가의 집을 찾아 갈 수는 없는 형편인데 어디로 나갔을까? 가슴이 가지 않아서 그의 집을 나서면서 바라보니 자남산쪽으로 향한 가파로운 길로 아침바람에 흰 머리카락을 날리며 힘겹게 오르는 사람이 바로 정문향 선생이었다. 그는 주먹을 부르쥐고 달려 가 팔을 부축했다.

《선생님, 웬일이십니까?》

《아, 박동무, 나를 좀 도와 주오.》

숨이 차서 긴 말을 하지 않았으나 그의 목소리는 박동무의 가슴을 세차게 흔들었다.

《박동무, 나를 어버이수령님 동상앞까지...》

《예, 알겠습니다.》

시인을 부축하고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이 높이 모셔진 화강석층계를 한결음한결음 밟아 올랐다. 어버이수령님 동상앞에 이르자 시인은 한동안 숭엄한 자세로 동상을 우러러 보며 서있다가 허리를 깊이 굽혀 정중히 인사를 드리는 것이었다.

(어버이수령님, 한일없이 한생을 다 보낸 이 시인을 용서하십시오. 수령님, 부디 만수무강하십시오.)

그때 시인의 눈굽은 축축히 젖어 있었고 그의 절절한 심장의 목소리는 마음속에 울려 오는 것만 같았다. 박원종은 그를 부축하고 와서 침상에 눕혀 드렸다. 이것이 시인을 마지막으로 본 기회였다. 시인은 그의 미숙한 시도 많이 지도해 주고 투철한 시정신도 배워 주었을 뿐 아니라 자신의 행동으로 수령님을 받드는 시인의 숭고한 자세를 우리모두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것을 지금도 자주 돌이켜 보곤 한다.

## 2

시인 정문향은 30년 가까이 개성시작가동맹 위원장으로 있었지만 개성에 있는 기간은 펍 적었다. 중요창작파제를 맡고 평양과 우산장, 그밖의 여러 창작기지들에 가 있었고 개성에는 명절이나 휴가 때에나 와 있는 정도였다. 당시 고상훈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시인을 잘 안다고 하지만 나이도 한세대 차이가 있어서 감히 그를 잘 안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시인 정문향에 대하여 돌이켜 보며 제

일 먼저 그가 말하는것은 사색이 깊은 시인이었다는것이다. 그가 남긴 시 몇구절만 더듬어 보아도 사색에 모대긴 시인의 모습을 찾아 볼수 있다.

생각하는 사이에 어느덧  
옛일로 되어 버린  
모든 생각을 버리며  
다시 생각하는 마음이어!  
(시 《시대에 대한 생각》 중에서)  
날이 가고 세월이 갈수록  
깊어 지는 생각속에  
(시 《날이 가고 세월이 갈수록》 중에서)  
한 없는 생각에 잠겨  
맞고 보낸 모든 나날들을 가슴에 새기며  
(시 《수령님의 영상을 우러러》 중에서)  
마음속 내 혼자 하는 생각도  
내 혼자만 하는 생각 같지 않아라  
(시 《그 무슨 말로 노래할수 있으리》)

시인의 그 어느 시를 읽어 보아도 구절구절에 깊은 사색이 깃들어 있음을 어렵지 않게 가려 볼 수 있다...

《생각》이라는 시어를 많이 썼다고 해서 사색 깊은 시인이라고 하는것은 결코 아니다. 깊은 사색은 그가 창작한 모든 시편들에 흐르는 《피》였고 《살》이었고 시정신이였다.

그의 시는 사색의 결정이였으며 그의 한생은 사색의 한생이였다.

그가 생의 마지막시기에 비문에 새겨 줄것을 바라며 가족들에게 남긴 《생각 많은 한생이 한일 없이 묻혔도다》라는 한토막의 글이 이것을 웅변으로 말해 주고 있다.

시인자신이 자기의 한생을 《생각 많은 한생》이라고 규정하고 있듯이 그의 한생은 《한 나이에 두 제도와 시대를 살았기에/ 지나간 날의 압박과 고통을 내 몸으로 알았기에/ 나는 오늘에 사는 행복과 이 보람을 더욱 푹푹히 안》 생각깊은 한생이었던것이다.

시인 정문향에 대하여 돌이켜 볼 때 또한 말하지 않을수 없는것은 생의 말년까지 시인으로서의 자질을 런마하고 사상정신적, 감정정서적축적을 위해 현실체험과 다방면적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한생을 꾸준히 노력한 시인이였다는것이 다.

시인이려면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정문향은 현실에 대한 산 체험이 없이 펜을 들지 않았으며 그만큼 현실체험을 귀중히 여겨 왔다. 그가 창작 초기에 쓴 시들인 《무산령》, 《대의원이 나서는 구내》, 《수남지구의 아침》은 물론이 고 대흥

단종합농장(옛 이름 5호농장)에 대한 시 《조국땅 한끝에서》는 특히 진지한 현실체험속에서 얻어진 명작시에 속한다.

깊은 의자에 몸을 잠그신  
그이의 손길은 조용히 그어 갔다

《김일성 농장》 자신의 이름자우에  
몸소 줄 그으며 다시 써넣는 두 글자!

아, 누가 알았으랴 그 《5호》라는 글자를  
그 글자속에 스미여 있는 그이의 뜻을

이 감동 깊은 시는 시인이 전후에 대흥단에 나가 오래동안 현실연구를 하는 과정에 심장으로 체험한데 기초하여 창작한것이다. 유명한 시 《새들은 숲으로 간다》도 김철로동계급속에서 진지한 생활체험을 한데 기초하여 쓴 작품이다. 시인이 개성에서 생활할 때 창작한 시 《개성의 산마루에서》, 《지명을 적으며》 등의 창작과정만 돌이켜 보아도 그가 추상적인 개념만을 안고 책상머리에서 시를 꾸밀줄을 모르는 시인이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한번은 시인이 고상훈에게 개풍군쪽으로 나가보라고 하였다. 개풍은 추억 깊은 유년시절, 소년시절이 흘러 간 곳이여서 은근히 마음 내킨 그는 역전에 이르자 뺨스표를 사려고 서둘렀다. 그러자 선생은 답답하게 차는 뭇하러 타겠는가, 바람도 쏘일겸 걸자고 하였다.

당시 신진작가였던 고상훈은 선생의 의도를 알수는 없었지만 순순히 따라 나섰다.

그런데 선생은 개풍쪽으로 곧추 뻗은 큰길이 아니라 멀리 에도는 산길에 들어서는것이였다. 걸으면서 들에서 일하는 농민들도 살펴 보고 주변의 산천과 길가의 꽃 한송이, 나무 한그루, 새 한마리도 무심히 지나지 않았다. 그때 걸은 로정에는 고려태조 왕건왕릉과 고려충신 72인을 위해 세운 두문동사당도 있었으며 공민왕릉도 있었으니 그 길은 그저 개풍으로 가는 길로만 될수 없었음을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그렇게 걸느라니 한두시간이면 가닿을 길을 한나절이 지나서야 겨우 읍에 이르렀다. 풍덕벌에 이른것은 늦은 오후였는데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도사적지들과 수령님의

현지교시에 의해 일떠선 황강조배수갑문을 돌아보고 난 시인은 한강너머 지척에 보이는 강화도도 오래도록 바라보며 서 있었다. 그후 시인은 황강포에 서시여 조국통일의 새날을 구상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모습을 격조높이 노래한 시 《남녘땅의 그날을 내다보시며》를 내놓았으며 뒤이어 《개성의 산마루에서》, 《지명을 적으며》와 같은 훌륭한 시들을 창작발표하였던것이

다.

시인은 이야기하기를 즐겨 하였고 듣기도 좋아하고 걷기도 좋아 했다. 연신 상아물주리에 담배가치를 바꿔 꽃아 가며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듣곤 하였다.

한번 이야기를 펼치면 끝이 없었다...

그 끝없는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감정정서를 연구하고 생활을 파악하였다.

이야기상대가 없을 때에는 찾아 떠나기도 했다.

현실에 민감한 기자들과 전문부문의 지식이 깊은 대학교원들, 당일군들과 사회활동을 하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찾아 다녔다.

거리와 공원을 거닐고 산에 오르기도 즐겨 하였는데 결코 그 어떤 개인적인 취미나 소일거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시인이 인간생활과 사회와 자연을 상대로 하는 감정정서적호흡과정이었으며 현실체험과정이었다.

시인은 다방면적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생의 말년까지 꾸준히 노력한 성실한 독학가였다.

자서전에서 쓴바와 같이 10대의 홍안시절부터 그는 《문명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궁벽한 산골에서 화전농사를 하는 속에서도 틈만 있으면 책을 읽고 또 읽었다.

신문 한장을 읽기 위해 180리를 걸었다는 이야기는 그의 젊은 시절에 있었던 너무도 유명한 이야기중의 하나이다.

시인이 살던 무산군 서호리는 읍에서 90리 떨어진 궁벽한 두만강변 산골마을이었다. 책이나 신문같은것을 구해 본다는것은 하늘의 별따기와 같은 일이었다.

시인은 틈만 있으면 읍으로 나가서 낮을 익혀둔 우편배달부와 함께 걸으면서 그가 나르는 신문을 읽기 시작하여 마지막글자까지 모조리 읽고 서야 돌려 주곤 하였다고 한다.

결국 신문 한장을 읽기 위해 왕복 180리를 걸은셈이었다.

시인의 이 향학열, 독서열은 세월이 가도 조금도 식지 않았다.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관심과 배려속에 수백권에 달하는 《조선봉건왕조실록》이 번역출판되기 시작한 첫 시기였다.

력사전문가들과 그 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감히 입을 엽두를 못내는 이 방대한 도서를 시인은 읽기 시작하였는데 그때 그의 나이는 이미 60을 훨씬 넘긴 때였다.

### 3

문학후비육성에 바친 시인 정문향의 노력은 컸다. 작가학원 및 문학대학에서 일하던 때에는 물론이었고 그후 현역작가, 출판사 주필, 지부장 등

직무의 변동에 관계없이 작가후비를 키우고 문학신인들을 참다운 문학의 길로 이끌어 주는 일은 그의 전 생애를 관통한 사업이었다.

시인이 함경북도지부장으로 일할 때 영예군인 김시권의 시작품을 지도하기 시작하여 끝내 그를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아시는 시인으로, 《김일성상》계관인으로 키운 이야기는 너무도 잘 알려 진 이야기이다.

개성에서 일할 때에도 그에 못지 않은 감동적인 일화들이 많았다.

주체64(1975)년이였다.

조선로동당창건 30돐이 되는 그해에 작가동맹에서는 전국문학신인들의 문학작품헌상모집을 조직하였다.

당시 개성시작가동맹위원장으로 사업하던 정문향은 개풍군 연강리에 있는 한 문학신인의 동시 《해와 달도 부러워 따라 온대요》를 여러번 지도하여 완성한 다음 헌상응모에 투고하였다.

...그해 8월에 평양에서는 전국 사대, 교대 문학교원들의 강습이 있었는데 송도사범대학 강좌장을 하던 강정구도 있었다.

그때 그는 평양에서 정문향선생을 만나게 되었다. 강습이 시작된지 3일째 되는 날 선생은 그에게 오늘 오후일정은 미술박물관참관인데 꼭 가지 않아도 된다면 자기를 도와 달라고 하였다. 미술박물관은 이미 여러번 보았기때문에 강정구는 선생의 일을 돕기로 하였다.

《그렇다면 강습조직측의 승인을 얻을터이니 이제부터 나와 함께 행동합시다.》라고 하면서 선생은 헌상응모에 투고한 문학신인의 원고를 함께 찾아 보자는것이였다.

찾으려는 원고는 선생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완성한 동시 《해와 달도 부러워 따라 온대요》였다.

그 작품의 완성과정에 대해서는 개성의 여러 작가들도 이미 알고 있었으나 그 문학신인의 재능의 작은 싹을 남 먼저 찾아 내어 크게 키워 주려고 기울여 온 선생의 노력과 깊은 뜻은 미처 알지 못하고 있었다.

작가동맹 신인지도부에 가니 그 작품을 접수한 사람은 출장중이고 작품접수대장에도 그 작품은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

담당심판이 출장에서 돌아 온 다음에 알아보면 안되는가고 하자 선생은 이번 헌상응모에 당선시키는것이 그 문학신인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다시 없는 기회로 되고 한 문학신인의 운명문제이기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것이였다.

참으로 신인육성을 자신의 임무로 여기고 문학신인들과 문학운동앞에 성실히 나서는 시인의 책임적인 모습은 잊을수 없다.

선생과 강정구는 원고가 무더기로 쌓여 있는 방에서 원고를 찾기 시작하였다.

그 큰방에서 무더기로 쌓인 원고중에서 단 세 페이지짜리 동시 한편을 찾아 낸다는것은 풀숲에서

바늘찾기나 다름 없는 일이었다.

부피 큰 원고는 따로 무저 놓고 부피 작은 원고들을 한장한장 번져 가면서 한시간반이상 찾았으나 원고는 나타나지 않았다.

8월의 무더위속에서 긴 시간을 견딘다는것은 힘들고 맥 빠지는노릇이었다.

그러나 정문향선생쪽에서는 종이장 번지는 소리가 순간도 멈추지 않고 들려 왔다. 지루하고 갑갑한 시간이 다시 얼마나 더 흘렀는지 갑자기 기쁨에 넘친 환성이 들려 왔다.

《찾았다!》

큰 보물을 찾은 사람처럼 얇은 원고지를 높이 쳐들고 흔드는 선생이 보이였다.

그때 선생이 기뻐하던 모습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기억속에 잊혀지지 않고 있다.

《찾았다!》는 그 웨침은 한 문학신인의 원고만이 아닌 보다 귀중하고 큰것을 찾았다는 웨침이였다.

옥조에 몸을 담그다가 부력의 법칙을 발견한 기쁨때문에 벌거벗은것도 잊고 거리로 뛰어 나와 《찾았다!》하고 소리를 질렀다는 자연과학자 알키메데스의 일화가 문득 생각키웠다고 강정구는 오늘도 회상하고 있다.

그때 정문향선생이 찾은것은 결코 알키메데스가 찾은 자연법칙에 비길바가 아닌 우리 주체문학의 창창한 미래였으며 재능 있는 신인을 더 많이 육성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할수 있는 길을 찾았다는 웨침이 아니고 무엇이였겠는가! 선생이 그렇게 애써 찾은 그 동시는 그해 전국현상응모에 1등으로 입선되어 상을 받았으며 그 문학신인은 그후 작가동맹 맹원으로 성장하였다.

신인육성에 바친 선생의 노력에 대하여 생각할 때마다 잊혀 지지 않는 이야기가 있다.

주체53(1964)년 당시 교원대학 학생이였던 강정구는 평양으로 갔던 기회에 문학공부를 하고 싶은 희망을 실현해 볼 생각으로 문학대학으로 찾아갔다. 당위원장실문앞에서 서성거리는데 키가 후리후리한 사람이 마주 오더니 누구를 찾는가고 물었다.

대학당위원장동지를 찾아 왔다고 대답하자 《내가 당위원장입니다. 들어 갑시다.》 하면서 그 사람은 당위원장실문을 열고 먼저 들어 가는것이였다.

사무실에 들어 서자 당위원장은 의자를 권하며 앉으라고 했으나 방금 쏟아 지는 비를 맞아 바지가랭이에서 비물이 줄줄 흘러 내리는 형편이여서 그는 엉거주춤하고 서 있었다.

《일없소. 앉소.》하고 거둬 친절히 권하는 바람에 그는 자리에 앉았다.

당위원장은 무슨 일로 찾아 왔는가고 물었다. 그는 문학공부를 하고 싶다는것을 말하고 교원대학을 졸업한후 문학대학에 편입하여 문학공부를

계속하였으면 하는 마음속 희망을 말하였다.

그러자 당위원장은 문학공부를 하려는것은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하면서 문학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차근차근 말해주는것이였다.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여러번 문을 두드리며 사람들이 들어 왔으나 그때마다 당위원장은 《손님이 찾아 왔으니 회의는 30분후에 합시다.》 하면서 돌려 보내는것이였다.

중요한 당회의를 하질것 없는 한 지방대학생을 위해 뒤로 미룬다는것을 알자 몸둘바를 몰라 자리에서 일어 서면서 그만 돌아 가겠다고 하였다.

《일 없소. 회의는 30분후에 해도 되지만 먼 곳에서 문학에 뜻을 두고 찾아 온 동무를 언제 다시 만날수 있겠소. 더구나 동무는 전연 경제근무를 수행하다가 부상당한 영예군인인데 자기 희망을 꼭 이루어야 하오.》

당위원장은 문학하는 사람은 생을 마칠 때까지 생활체험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생활체험과 창작의 호상관계, 문학의 내용과 형식, 문학작품의 양상적특성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그는 당위원장이 문학에 대단히 조예가 깊은분이라고 마음속으로 감탄하면서 그의 이야기를 정신없이 듣고 있었다. 손기척소리가 다시 들리면서 문이 열리였다. 벌써 30분이 지났던것이다.

당위원장은 20분만 더 기다려 달라고 양해를 구하고 나서 좋은 문학작품을 쓰자면 당정책을 깊이 체득해야 한다는데 대하여 계속 이야기해주었다.

다시 20분이 지났다. 당위원장은 매우 아쉬워하면서 앞으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문학을 하겠다는 뜻을 버리지 말고 다시 만나자고 하였다.

그는 깊은 감동과 용기를 안고 당위원장실문을 나섰다. 복도에 주련이 서 있던 회의에 온 사람들이 당위원장의 친척인가고 물었다. 그가 아니라고 대답하면서 당위원장에게서 여러가지 문학이야기를 듣다 나니 시간 가는줄도 몰랐는데 대단히 미안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위원장의 이름을 묻자 그들은 놀라와 하면서 정문향선생을 모르고 만났는가고 하는것이였다.

정문향선생을 두번째로 만난것은 선생이 개성작가동맹 위원장으로 배치되어 온지 3~4개월이 지난후였다.

그때 그는 개성시 동천고등중학교 문학교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국어분과로 뜻밖에 정문향선생이 찾아 왔다. 그렇지 않아도 몇해전에 문학대학 당위원장실에서 모르고 만났던 선생이 개성작가동맹 위원장으로 왔다 하기에 한번 찾아 가 봐오려던 차였는데 선생쪽에서 먼저 찾아 오니 당황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였다.

선생은 2학년 문학선생을 만나러 왔다고 했다. 《제가 2학년 문학교원입니다.》 하고 그가 대답하자 아이들을 가르치기에 수고가 많겠다고 하면서 찾아 온 사연을 이야기하였다.

...어제 집에서 2학년에 다니는 딸과 그 학급학생들이 학습반을 하는것을 보니 시를 암송하는데 운률을 전혀 생각지 않고 외우기에만 열중하더라는것이였다. 그래서 시의 운률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더니 자기 말을 알아 듣지도 못하고 또 들으려고도 하지 않더라는것이였다.

《그러니 선생이 학생들에게 문학을 잘 가르쳐야 하겠습니까. 운률을 무시한다면 시는 존재할 수 없고 운률이 없는 글을 시라고 할수 없습시다.》

선생은 시의 생명과 같은 운률에 대하여, 특히 조선시가의 운률의 특성에 대하여 학생들에게 잘 가르쳐 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는것이였다.

그는 그때 숙제공부를 하는 아이들에게서 나타난 크지 않은 부족점을 보고 나라의 시문학발전과 후대교육문제라는 큰것을 생각하는 선생의 높은 작가적안목을 보았으며 시인된 사명감과 책임감을 얼마나 가슴깊이 간직하고 있는가를 절절히 느끼었다....

개성에서 일한 기간은 길지 않았지만 그동안 정문향이 길러 낸 시인은 많으며 그들중 명가사, 명시로써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 드린 시인들도 여러명된다. 이것은 시인 정문향의 성실한 문학생애가 가꾸어 낸 결실중의 하나인 동시에 우리 문학의 자랑이라 아니할수 없다.

#### 4

시인 정문향이 후배작가들과 문학신인들과 교원들과 지어 학생들에게까지 시대정신에 투철하고 작가적존엄과 량심을 지키며 시정신을 옹계 인식할데 대하여 강조하고 요구한것은 곧 자신에 대한 요구였으며 자신이 사색과 창작생활에 구현하기 위한 지상의 목표이기도 하였다.

1980년대 초에 시인 김철은 우산장창작실 3각 2층의 어느 한 호실에서 정문향과 함께 창작하는 기회를 가졌었다. 그때 정문향은 서사시 《눈보라》를 완성추고하고 있었다. 어느덧 나이도 60이가까왔고 건강이 시원치 않았던 시인은 서사시가 뜻대로 되지 않아 매우 초조한 기분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는 서사시원고를 앞에 놓고 김철에게 룡 삼아 《이것을 완성하고 죽어야겠는데...》 라고 하면서 한번 읽어 줄것을 청하였다. 원고를 맡기고는 2~3일동안은 아무말없이 낚시대를 들고 호수가에 나가앉아 있었다.

그리고 김철이 원고를 다 본 다음에는 옛날제 자벌이 되는 시인에게서 허심히 의견을 들어 주는것이였다.

그리고는 밤을 밝히며 말없이 창작에만 열중하

는것이였다. 그렇게 한달나마 피와 땀으로, 노력으로써 창작적고충을 완강히 이겨 내었다. 그후 서사시는 출판되였다.

당시 작가양성반을 졸업한 리용일이 작가생활을 시작한지 몇해 안되는 어느 날이였다.

《용일동무, 바쁘오?》

정문향선생이 이렇게 물었다. 바쁜것이 없다고 대답하자 《그럼 이 원고를 좀 보오.》 하면서 단편소설초고를 내놓는것이였다. 소설제목은 《림진강의 배사공》이였다. 조국해방전쟁시기 림진강에서 영웅적으로 싸운 영웅배사공에 대한 이야기였다.

단편소설다운 재치와 풍격이 느껴 지는 작품이였다.

생의 말년에 건강이 나빠 지고 시창작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여 주저앉지 않고 견인불발의 의지로 모든 가능성을 다하여 창작에 분발하려는 선생의 높은 작가적정신이 뜨겁게 안겨 왔다.

다 읽고 나서 《선생님이 쓰신 작품이구만요?》 하고 물으니 《그렇소.》 하고 빙그레 웃었다.

《그래 읽을만 하오?》

선생은 스스로없이 물었다. 문학통신원에 지나지 않는 그에게 이렇게 물을 때 그는 생각이 깊어 졌다.

결코 문학초학도에 지나지 않는 그에게서 조언을 바라고 물은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오히려 그에게 문학과 작품앞에서는 무한히 허심하고 소탈하고 겸허할줄 아는 높은 작가정신을 심어 주려고 한것이며 신인작가에게 작가적인 자각을 높여주려고 한것이라는것을 가슴 뜨겁게 느끼었다.

어느 날 그는 입당심의를 받기 위하여 시사로청(당시)에 갔다가 예상외로 시간이 지체되어 저녁늦게야 창작실로 돌아 왔다.

어느덧 어둑어둑해 진 창작실에서는 정문향선생을 비롯한 선배당원작가들이 한사람도 퇴근하지 않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용일동무, 축하하오!》

정문향선생은 어느때없이 정숙한 목소리로 말하며 그의 손목을 뜨겁게 잡아 주는것이였다.

《앞으로 창작도 생활도 더 잘해야 하겠소.》

이때 벌써 시력이 나빠진 상태여서 선생은 어두운 밤길을 힘겹게 걸어 퇴근하였다. 선생이 문학을 위해, 신진작가들을 키워 주기 위해 이렇게 걸은 길이 그 얼마일것인가.

그의 첫 아이의 첫돌을 축하하여 작가들과 친척, 친우들이 많이 왔을 때 모두가 첫돌에기웃이 아니면 놀이감들을 들고 왔었다. 그런데 정문향선생은 어린이지능계발에 대한 책을 내놓으면서 《이게 제일 필요할거요.》 하고 말하는것이였다. 크지 않은 일이였지만 그후에도 그는 항상 사람의 정신수양을 중시하고 첫자리에 놓던 선생의 높은 작가적인 지성세계와 세심성에 대하여 자주

돌이켜 보곤 하였다.

어느날 홍근표가 정문향이 단편소설초고 다섯 편이나 가지고 와서 읽어 보라고 하였다는것을 회상하였다. 시력이 급격히 나빠 진 때여서 부인에게 불러 주어 쓴 소설이었다.

이미 육체적으로 창작이 불가능한 때였으나 순간도 작가라는 높은 사명감을 버리지 않고 창작의 길을 모색한 높은 정신세계에 홍근표는 탄복을 금할수 없었다. 아무리 작고 미숙한 원고라도 후배작가들과 제자들에게 빠짐없이 읽히고 의견을 허심하게 들을줄 아는 고상한 작가정신의 소유자였다.

말년에 눈이 보이지 않고 몸을 뜻대로 움직일수 없는 상태에서 창작을 하지 못한다고 누구도 탓할 사람이 없었지만 선생은 한시번역, 옛 너류시인들의 시번역을 스스로 맡아 깨끗이 마무리 지었다.

선생은 어느날 개성돌가공공장 노동자인 진동화에게 위대한 수령님의 배려로 외국을 방문했을 때의 일을 이야기한적이 있었다.

선생은 주체46(1957)년 10월부터 12월까지 작가대표단 성원으로 체스꼬슬로벤스꼬를 방문하였는데 어느 날 렬차를 타고 슬로벤스꼬로 향하였다. 옆자리에는 조선중세너류시인들의 시를 번역하고 있던 그 나라 시인이 붙어 앉아서 번역에서 걸리는 여러가지를 묻고 있었다. 어느 한 중간역에서 한때의 그 나라 녀인들이 웃고 떠들며 차에 올랐는데 시인들의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다.

정문향선생의 도움으로 시를 초역해 놓고 흐뭇해 하던 체코시인이 마주 앉은 녀인들에게 조선너류시인들의 시인데 한번 읽어 보라고 하였다.

개성이 낯은 너류시인 황진이의 《청산은 내뜻이요...》와 《동지달 긴긴밤을...》 등의 시들을 읽고 또 읽어 보던 녀인들은 웃고 떠들던 기분에서 벗어나 진중한 낯빛으로 머리를 끄덕이며 깊은 생각에 잠기는것이였다.

그중 한 녀인이 손에 든 원고에 입을 맞추고 나서 말하는것이였다.

《이렇듯 고상한 정신세계를 지닌 민족과 나라는 정복할수 없지요. 미국이 15개 추종국가군대를 가지고서도 영웅적조선인민을 굴복시키지 못한것이 바로 이때문이라는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하는 정문향선생의 얼굴에서는 끝 없는 민족적공지가 어려 있었다.

물론 조국해방전쟁승리의 요인을 수백년전에 창작된 세속적인 시 몇편과 직접 결부하는것은 거리가 있는 평가이지만 시 한편에서 그 민족의 정신세계와 슬기와 재능, 불굴의 정신력을 헤아려 본 그들의 리해는 옳은것이라고 볼수 있다. 제 나라 력사와 문화를 모르고서는 애국자가 될수 없고 애국적인 작가가 될수 없다. 그런데 지

금 문학공부를 한다는 일부 사람들조차 리규보가 누구인지 황진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또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고 선생은 개탄을 금치 못하는것이였다.

바로 그러한 작가였기에 선생은 말년에 돋보기를 두개나 겹쳐 쓰고 조선 옛 너류시인들의 시를 한자한자 번역해 나간것이라고 나는 지금도 뜨거운 마음으로 생각하곤 한다...

시인 정문향은 후배들과 제자들앞에서 허심하고 소탈하고 엄숙하였을뿐아니라 당적원칙을 철저히 지키였다.

시인이 작가학원, 문학대학에서 사업하는 기간에 학교를 졸업한 많은 사람들이 그후 주체문학건설과 발전에서 큰 몫을 한 큰 작가, 큰 일꾼으로 성장발전하였다.

한번은 시인 김철이 우산장창작실에서 정문향과 한 호실에서 생활할 때였는데 입술 뾰족한 일부 사람들속에서 정문향이 옛 제자들앞에서 굽신거린다는 믿을수 없는 풍문이 들려 왔다. 어떤 제자가 나타나면 먼저 인사를 하면서 존칭을 쓴다는것이였다. 그거야 공식적인 장소에서나 그럴것지 개인적인 관계로서야 그럴수가 있겠는가. 도저히 믿을수가 없는 말이여서 김철은 별로 새겨 두지 않았었다.

그런데 어느 날 지도일꾼을 하는 옛 제자 한사람이 우산장에 왔다가 떠나는 장면을 우연히 보게 되였다.

아닌게아니라 정문향은 승용차옆으로 다가가서 각듯이 작별인사를 하는것이였다.

옛 제자 역시 선생에게 건강에 류의하며 무리하지 말것을 진정으로 부탁하였다.

정문향이 호실에 들어 오자 김철은 방금 바래온 사람이 옛 제자가 아니가고 물었다.

그러자 정문향은 그렇다고 하면서 저 사람이 학생때도 똑똑하고 대바르고 배짱도 있었다, 창작재능보다 리론에 밝았다, 지금도 문학사업을 잘 지도하고 일을 잘한다, 나는 그가 제자라는것을 조금도 녀두에 두고 대하지 않는다, 먼저 작가가 되고 먼저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한 인간관계로 될수 없다, 배워 주던 때도 있었지만 오늘은 지도 받는 관계에 있기때문에 그런것을 녀두에 두는 자체가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것이였다.

(그렇다. 당의 지도를 받는 작가의 립장에서 그를 대할뿐이다!)

김철은 다시한번 정문향의 인간적깊이와 큰 인격을 느끼면서 옛 제자를 원칙적으로 대하는 그의 인격이 당적원칙에 철저히 부합된다는 사실을 깊은 감동속에 인정하게 되었던것이다...

정문향선생은 일상생활에서 절제가 강한 사람이였다.

작가들은 흔히 어떤 일에 한번 열중하기 시작

하면 거기서 헤어나기 힘들어 한다. 그래서 창작에까지 지장을 받고 작가적풍모를 잃게 되는 일도 없지 않다.

그러나 정문향선생은 한생 체모를 흐트린 일이 없었다. 옷차림, 몸가짐을 언제 한번 흐트린것을 보지 못했다. 후리후리한 키에 옷차림을 단정히 하고 항상 깊은 사색에 잠겨 있었기때문에 그앞에서는 저절로 정숙해 질수밖에 없었다.

말과 행동에서 레절이 밝았고 설명절 같은 때에는 년장자답게 꼭 우리들을 불러 주었고 필요할 때에는 술자리에도 함께 앉았다.

장기를 즐기었지만 한두판을 넘기지 않았으며 낚시질 역시 즐기어서 호수가에 앉아 있을 때도 있었지만 머리집만 되면 곧 일어 서군 하였다.

독서도 하루에 20~30페이지를 초과하지 않았다.

자신의 생활에 대한 요구와 절제가 강했을뿐아니라 젊은 작가들이 생활을 절제 있게 할것을 엄하게 요구하기도 하였다. 오락시간이 길어지는것 같이 보이면 엄하게 주의를 주던 일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

그때는 너무 각박하다는 생각이 없지 않았으나 지금 돌이켜 보면 고맙기 그지없다.

그에게도 집이 있고 가족들이 있었지만 언제한번 사사로운 일때문에 휴가를 받거나 쉬는법을 몰랐으며 자신의 일때문에 뛰여 다니거나 전화를 거는것을 볼수 없었다.

부인은 선생이 집일에 무관심하다는 《불평》을 하면서 자주 남편을 자랑하곤 하였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그에게는 창작이외의 부담을 주어서는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것은 본인이 요구해서도 아니고 누가 지시를 해서도 아니었다. 창작에 열중하고 생활에 절제가 강한 그의 엄숙한 자세가 주위사람들로 하여금 달리 할수 없게 하였던것이다...

부인(최숙인)의 회상에 의하면 그는 한평생 구명탄을 찍어 본적이 없고 그렇다고 하여 자식들의 전방문제에 대하여 노력을 기울인적도 없다고 한다.

한번은 중요창작과제를 수행하느라 오래동안 집을 떠나 여러 달만에 돌아 왔는데 그때가 맏아들(정영조)이 중학교를 졸업할 때쯤이었다.

정문향은 집에 들어 서자마자 신발도 벗지 않은채 안해가 혼자 반겨 맞이하는것을 보더니 영조는 어디 갔느냐고 물었다.

잠시 머뭇거리던 안해가 아들은 그 사이에 인민군대에 나갔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시인은 널마루우에 맥없이 주저 앉으면서 실망에 젖은 목소리로 그걸 왜 알려 주지 않았느냐고 책망하는것이 었다.

알려 주어야 오기를 하겠는가, 바쁜 창작에 직장만 줄것 같아서 알리지 않았노라고 대답하자 시인은 널마루를 손바닥으로 두드리며 오열을 터

뜨리었다.

《당신은 정말 지독하오. 그 애 얼굴이라도 한번 보게 해주면 못 쓴단 말이요?》

시인은 어깨를 떨며 흐느껴 울기 시작하였다. 눈물이 후둑후둑 떨어져 마루를 적시였다...

안해앞에서 눈물을 흘려 보기가 일생에 처음인 그였고 안해 역시 그토록 《무정》하던 남편이 눈물 있는 사람이라는것을 이때 처음 알게 되었다.

그렇다! 그도 인간이였고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임을 그만 둘수 없는 사람이였다.

가정과 자식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가슴속에 묻어 두고 오직 문학 하나에만 사랑을 다 바쳐온 시인!

그가 무정하다면 어떻게 시인이 될수 있었겠으며 그가 심장에 뜨거운 사랑을 지니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처럼 불 같은 시를 써낼수 있었겠는가.

그리고 왜 안해와 자식들을 다정히 쓰다듬어 주고 싶지 않았으며 손자들을 무릎에 앉히고 그 이쁜 어리광을 가슴 저릿하게 받아 보고 싶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왜 자식들을 알뜰히 키우고 가꾸어 남부럽지 않은 위치에 내세우고 싶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그에게는 인생의 첫 걸음을 떼던 저 아득히 흘러 간 옛 시절 아무런 희망도 포부도 미래도 기약할수 없던 그 암담한 식민지청년시절부터 가슴속에 고이 키워 온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고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크고 귀중한 문학이 있었으며 오직 그 길에서 가슴에 지닌 사랑과 정열을 다 바쳐야 참다운 삶을 안겨 준 수령님과 당과 조국과 인민에게 보답할수 있다는 무거운 자각이 있었던것이다.

...시인 정문향은 늘 창작에 바치는 작가의 수고를 새 생명을 낳는 산모의 수고에 비겨 말하곤 하였다.

산모가 육체적인 생명을 낳는다면 작가는 정신적창조물을 낳는다는것이였다. 해산과정이나 창작과정이나 다같이 성스러운 일이지만 본능적으로 그 수고장면을 남에게 보이기를 저어한다고 했다.

그래서인지 고상훈은 그가 원고지를 퍼놓고 창작하는것을 한번도 본 일이 없다.

세권의 시집과 여러권의 서사시, 수백편에 달하는 서정시를 남긴 시인이 그 많은 글을 언제 어떻게 썼을것인가.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는 가슴에 베개를 고이고 밤중에 시를 쓴다고 하는데 그러는 모습을 누구도 보지 못했다...

청년시절 청진시 역전동의 어느 한 살림집에서 살 때에는 아래방은 살림방이고 웃방은 시인의 서재 겸 창작실이였는데 아래방 소음이 창작에 방해된다고 방문에 누비이불을 쳐놓고 시를 쓰는



모습은 동료작가들과 친지들이 많이 보았다고 한다.

결혼을 둘러싼 생활이 사람의 인격과 인품을 제일 잘 드러내는 생활이라고들 한다.

시인 정문향에게 있어서도 그것은 예외로 되지 않는다.

그에게는 한생에 두번의 결혼기회가 있었다. 한번은 15살 소년시절에 부모들의 강요에 의한 여섯살우인 녀성과의 조혼이었으므로 별로 말할 만한것이 없고 두번째는 자식 6남매를 낳아 키우며 말년까지 함께 지낸 최숙인과의 결혼이었다.

함경북도 라남시(현재 청진시 라남구역)에서 사는 한 지식인가정의 맏딸인 최숙인은 라남고등녀학교를 마친지 한해만에 조국해방을 맞이하였다.

집에서 홀어머니의 가사를 돕고 있던 그는 문학을 열렬히 동경하면서 독서와 시습작에 여념이 없던 공상 많은 18살 문학처녀였다.

해방된 이듬해 도에서 조직한 첫 문예작품현상응모에 시 한편을 우편으로 투고했는데 그것이 당선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청진으로 갔던 최숙인은 작품심사위원으로 사업하는 청년 정문향을 만났다.

그때 함북도 방송국 과장으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시창작을 하고 있던 정문향은 첫 현상응모에 1등으로 입선한 문학처녀에게 깊은 관심을 돌리었고 최숙인 역시 정문향의 시세계를 점차 이해하고 동경하게 되었는데 시에 대한 동경이 시인에 대한 동경으로 변해 가는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 어디 있을것인가.

문학의 길에서 그들 두사람이 만난것은 우연이었지만 문학에 대한 사랑과 동경으로 불 타는 그들의 생활이 하나로 결합되는것은 달리 될수 없는 필연이었고 운명이였다.

27살의 청년 정문향은 최숙인의 어머니를 찾아가 무릎을 꿇고 앉아 정중히 청혼하였다. 젊은이의 진중한 태도와 솔직하고 허심한 성품과 문학하는 청년이라는데 마음 끌린 어머니는 애지중지 키운 딸이었지만 당시로서는 그 누구에게도 달가운 혼처로 리해될수 없는 《재혼의 자리》에 선풍 내맡기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듬해(1947년) 10월, 28살의 정문향과 20살의 최숙인은 결혼하여 한생 문학의 길을 걷게 되었다.

처녀시절부터 머리 희여 질 때까지 필사정리해 준 남편의 시와 소설과 한시, 《신곡》을 비롯한 번역작품들의 원고는 폐지수료가 아니라 문학밖에 모르고 문학으로밖에 보답할줄 모르는 남편, 아니 시인에 대한 공민적인 사랑과 존경과 헌신으로만 헤아릴수 있을것이다.

시인 정문향은 한생토록 문학만을 위했던 탓에

커가는 자식들에게도 미처 관심을 돌리지 못하였으나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명망있는 시인의 자녀들을 모두 대학을 졸업시켜 중요한 혁명초소들에 내세워 주었으니 아버지의 《무관심성》은 수령님과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과 배려와 은정으로 분에 넘치게 보상된것이었다.

정문향의 여섯자녀들은 당일군으로, 인민보안일군으로, 청년동맹일군으로, 공장기사로 위대한 장군님을 충실히 받들어 가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시인 정문향의 창작공로를 높이 평가하시어 높은 국가수훈을 안겨 주신데 대하여 감동깊이 돌이켜 보지 않을수 없다.

주체40(1951)년 8월 첫 공로메달을 받은 때로부터 거의 매해 국가수훈을 안겨 주시고 많은 훈장과 메달을 수여해 주시였으며 주체78(1989)년에는 시인의 생일 70돐을 맞으면서 창작가, 예술인들에게 주는 최고상인 《김일성상》을 수여해 주시었다.

언제나 보답보다 베풀어 지는 사랑과 배려가 더 크고 빛나는 이 시대, 이 현실속에서 사는 작가들은 얼마나 행복한가.

시인 정문향은 자기의 수기 《한 없는 행복을 안고》(조선문학 2000년 12호)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나는 언제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모시고 사는 우리 조선작가들의 행복에 대하여 생각한다.

참으로 우리는 행복한것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위하여 한목숨 다 바쳐 일하는 그보다 더 큰 영광이 또 어디 있겠는가!...

1975년 12월》

시인은 주체 82년 6월 1일, 74살을 일기로 생각많은 한생을 마치였다.

묘비에는 《시인 정문향의 묘》라고 새겨져 있다. 다른 사람들의 묘비와 다른 점은 《고》라는 글자가 없다는것이다.

시인은 죽지 않은것이다. 위대한 장군님 품속에서 시인은 영생하는것이며 문학사에 빛나는 주옥같은 시들로 하여 그의 생애는 우리 당, 우리 조국, 우리 민족과 더불어 영원히 살아 빛나는것이다.

위대한 향도의 해빛아래 빛나게 된 시인의 한생에서 우리 작가들은 자신에게 안겨진 행복과 영광을 보고 있으며 보답으로 빛내야 할 자신의 한생을 발견하게 되는것이다.

바로 여기에 시인 정문향의 창작생활과 한생을 돌이켜 보는 참다운 현실적의미가 있는것이라고 생각한다.

## 고향의 모습

엄성영

누구나 잊지 못해 하는것이 고향이다. 자기의 태줄이 끊기고 첫 걸음마를 익혀 준 고향, 소꿉시절의 소중한 추억이 간직되어 있고 가슴이 부풀도록 학창의 푸른 꿈을 키우던 고향, 근면하고 소박하고 마음씨 착한 이웃들과 어릴적동무들의 정다운 모습이 새겨져 있는 고향을 어찌 잊을 수 있으랴!

별로 하는 일없이 자리를 뜨지 못하고 있던 나는 오래간만에 고향에 다녀 올 기회가 생겼다. 흥분에서 내려 길차게 자란 잠업시험장의 뽕밭을 지나면 후주강을 옆에 끼인 동구길이 나지고 병풍처럼 둘러 선 야산기슭에 자리 잡은 오붓한 고향마을이 한눈에 안겨 온다.

금방 날아 오를듯 네귀 추너를 번쩍 추켜 든 회벽의 아담한 문화주택들, 맑고 푸른 후주강을 젖줄기로 삼아 무연하게 펼쳐진 논밭들, 실로 한쪽의 그림을 보는듯 싶다.

종다리 우짖는 파아란 하늘, 밀보리 푸르른 언덕, 동구길에 휘늘어진 버드나무... 문득 어디선가 들려 오는 버들피리소리가 유정한 추억을 불러 일으킨다.

나는 17살에 고향을 떠났다. 그후로는 몇년에 한번씩 이렇게 고향을 찾아 오곤 했다. 그때마다 천지개벽한 고향의 모습앞에서 감탄을 금치 못하며 이러한 전변을 안아 온 고향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앞에 머리를 숙이곤 했다.

이번 걸음이라고 어찌 다르랴!

맹기오리를 풀어 놓은듯 오불꼬불하던 후주강이 자를 대고 쪽 그은것처럼 곧게 펴지고 강둑과 나란히 뻗은, 흙먼지 날리던 동구길이 도시의 거리 부럽지 않게 돌포장되어 있었다.

고향의 달라진 모습을 둘러 보며 천천히 걸음 옮기던 나는 지금껏 사람들의 관심밖에서 버림받아 오던 늪에서 시선이 멎었다. 어느 해인가 구지랑물에서 창포나 자라고 있던 늪을 논으로 풀어볼가 하고 트랙터를 몰고 들어 갔다가 수령감탕판에 빠져 되게 골탕을 먹은 뒤로는 누구도 범접할 엄두를 내지 않던 곳이다. 그런데 늪바닥은 보이지 않고 그 주변을 따라 제형의 똑이 네모나게 솟아 있는게 아닌가?

나는 웬일인가 싶어 그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새로 떠옮긴 잔디가 파랗게 돌아 난 쪽우에 올라서니 바둑판처럼 꾸러진 양어못이 한눈에 안겨왔다. 빨간 머리수건을 쓴 두명의 처녀가 점점이 널린 버드나무아래에서 먹이를 뿌려 주자 고요하던 수면위에 급기야 파문이 일어 난다.

《게 누구요?》

갑자기 거친 목소리가 양어공처녀가 서 있는 반대쪽에서 날아 왔다. 전에 관리위원장사업을 하다가 몇년전에 년로보장으로 넘어 간 박아바이였다. 손에는 무거운 초롱이 들려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배나무집 셋째입니다.》

《어이구 평양손님이로구만! 저건 메기새끼들이야!》

박아바이는 물면에서 와글거리는 새끼고기들을 흘린듯이 바라보는 나에게 양어장을 꾸리던 때의 일을 자랑스럽게 들려 주었다.

《...모든게 부족했지. 로력도 기계수단도. 하지만 양어는 위대한 장군님의 뜻이 아닌가? 우리는 타발을 모르고 욱욕 기세를 울리며 흙집을 저나라 결국 버림 받던 늪을 이렇게 훌륭한 양어못으로 꾸렸네. 참, 임자 왔던김에 메기탕맛을 보고 가라구.》

나는 박아바이의 호의를 고맙게 여기며 불쑥 이렇게 입을 열었다.

《인젠 년세도 있는데 집에서 편히 설겄 그럼니다.》

《에끼 이사람! 난 양어분조장이야.》

박아바이의 기상에 나는 깜짝 놀랐다. 그의 말을 증명하듯 우리가 서있는 곳으로 총총히 다가온 양어공처녀가 초롱안에 든것을 가리키며 물었다.

《분조장아바이, 이것이 새로 만든 배합먹이야요?》 박아바이는 대답대신 머리를 끄덕이고 나서 그루를 박았다.

《그냥 뿌려 주지 말고 잘 관찰해야 해!》

《알겠어요.》

나는 오던 길로 총총히 사라지는 처녀의 뒤모습에서 눈길을 떼며 물었다.

《배합먹이 시험을 합니까?》

《그렇네, 메기란 놈은 원래 먹성이 좋아 와서 새끼때부터 입버릇시킬타이지. 난알부산물을 적게 쓰고 우리 고장에 흔한 풀로 먹이를 대신할 생각이야!》

《그것 참 경제적입니다.》

《자연먹이문제가 풀리면 저 앞쪽으로 양어장면적을 더 늘일 계획이야. 키워 낸 메기는 탁아소, 유치원에 먼저 보내주구 차차로는 우리 농장원들의 식탁에도 푸짐히 차례지게 하려네.》

박아바이의 얼굴에 미소가 피어 났다. 흘러온 세월의 년륜인듯 깊숙이 패인 주름살이 다림질한것처럼 쭈 퍼진다. 마치 꿈 많은 20대로 돌아

가 갱소년된듯 싶다.

《통이 큰 계획입니다.》

《암, 할 일이 많지! 그런데도 뭐 집안에 구겨박혀 밥술이나 축내면서 편히 있으라구? 허허...》

나는 본의아니게 실언한 자신을 뉘우치며 양어장의 전경을 다시한번 둘러 보았다.

얼마나 미덥고 자랑스러운 모습인가!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도 미래를 락관하며 언제 한번 낫색을 달리 하지 않은 사람들, 풀죽을 먹고 허기지면서도 동면하거나 우는 소리를 할 대신 팔을 부르짖고 일어 나 앞날을 개척해 온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기에 지금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맞게 그 면모를 일신시키며 무슨 일이나 손색없이 해나가고 있는것이다.

박아바이와 헤어진 나는 동구길에 들어 섰다. 등에 배낭을 진 사람이 앞에서 걸어 가고 있었다.

어딘가 낯이 익어 눈여겨 살펴 보니 소꿉동무인 농장기사장이었다.

그의 잔등이 땀에 젖어 있었다.

《용세동무!》

나는 기사장을 불러 세웠다. 그도 나를 알아 보자 무척 반가와 하였다. 우리는 사람들의 래왕이 잦은 동구길을 피하여 소꿉시절 배꼽을 드러내 놓고 함께 미역을 감군 하던 강쪽에 마주 앉았다.

《이건 뭐가?》

나는 그가 벗어 놓은 배낭을 가리키며 물었다.

《창안중에 있는 농기계부분품이네.》

《평장히 가치 있는걸 연구하는 모양이지?》

《그렇다고도 할수 있네.》

그는 머리를 끄덕이며 싱글벙글 웃고 나서 나에게 감자수확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농장에서는 당의 두벌농사방침을 받들고 필지별 토양분석자료에 기초하여 그 면적을 지난해보다 곱으로 늘였다는것, 앞그루로는 울되고 수확성이 높은 감자종자를 심어서 전망이 확고하다는것, 문제는 뒤그루인 논벼생산에서 옹근소출을

내려면 감자수확기일을 단축하여 벼생육에 필요한 일조량을 지장없이 보장해야 한다는것, 그래서 농장기계화작업반원들과 이마를 맞대고 며칠 밤 고심하던끝에 간단하면서도 능률적인 감자수확기를 창안하게 되었다는것, 지금 군농기계공장에 가서 감자수확기의 주요부분품을 짚아 오는 길이라는것이다.

《그렇다고 기사장이 이런 배낭까지 메고 다녀야 하겠나?》

《그게 어쩌서?》

《기계화작업반엔 사람이 없나?》

《허, 이 친구가 나를 빈말공부질이나 하고 책상에 앉아 틀을 차리는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는게 아닌가?》

나는 가슴이 뭉클했다. 거창한 전변의 세기, 강조의 세기에 농사법에서도 새로운 혁신과 혁명을 일으키려는 그의 립장, 구태의연한 사고방식, 낡은 관점에서 벗어 나 모든것을 혁신적안목으로 보고 기발하게 착상하며 일군들이 주도성, 창발성, 헌신성을 지녀야 한다는 그의 마음은 얼마나 가슴 뜨거운것인가! 이 하늘아래, 이 땅우에 반드시 제힘으로 강성부흥의 래일을 안아 오려는 그 불같은 마음이 어찌 용세동무나 박아바이의 심정뿐이겠는가!

내가 고향에 첫발을 들여 놓으면서 느끼는 충동이 이렇진대 이제 고향을 다 돌아 본 다음에 받아 안게 될 충격은 또한 얼마나 클것인가!

저녁노을이 불 타올랐다. 동구길로 프락프르들이 달려 오고 있었다. 하루일을 끝낸 농장의 처녀들이 까르르 웃음을 터치다가 뒤쫓아 오는 운전수총각의 심술 궂은 경적소리에 길 좌우쪽으로 새무리 풍겨 나뒹 흩어 진다.

챙버들이 늘어 선 강둑에서 염소들이 한가스레 풀을 뜯다말고 웬일인가 싶어 두귀를 쫓긋거린다.

(잡도리를 단단히 해야겠어.)

나는 고향사람들에게 뒤질세라 자신을 더듬어 보며 마음의 신들미를 더욱 죄었다.

## 가사

# 우리 중대 병사들은 명배우라네

박천걸

우리 중대 오락회는 정말 멋 있어  
나서면 누구나 명창이라네  
위훈속에 흘러 가는 병사의 생활  
노래속에 춤속에 보람도 많네  
아 우리 중대 병사들은 명배우라네

우리 중대 오락회는 정말 멋 있어  
중대장은 소문난 기타수라네  
사관장의 북장단에 춤도 좋지만

꼬마병사 입재주도 제법이라네  
아 우리 중대 병사들은 명배우라네

오락회에 나서면 명배우지만  
훈련에선 용맹한 수리개라네  
결전의 그날엔 화선악기로  
승리의 노래를 높이 부르리  
아 우리 중대 병사들은 명배우라네

## 생활의 격류

김해성

남행열차는 겹겹이 에워 싸는 눈보라의 장막을 헤치며 기세 좋게 내달렸다. 떠들썩하던 차칸은 밤이 되자 한결 조용해 졌다. 승객들은 단조로 우면서도 가락 맞게 울리는 차바퀴의 음향을 자랑가삼아 끄덕끄덕 즐기기도 하고 주패놀이를 하거나 수군수군 한담도 하면서 갑갑증을 달래이고 있었다.

손퐁금을 부둥켜 안고 차창쪽에 붙어 앉은 나는 창유리를 통해 엄습해 오는 뎡기에 몸을 웅송 그렸다. 외투를 벗어 손퐁금에 씌워 놓았으니 오싹오싹할수밖에.

나는 은근히 부아가 치밀어 옆에 앉아 의자등받이에 고수머리를 파묻고 쉼췌 좋게 코를 끌고 있는 남편을 흘겨 보았다. 나는 남편과 함께 길주에 사는 친정어머니의 일흔뉘잔치에 다녀 오는 길이었다.

집에서 떠날 때 남편은 큰 발기나 한듯 나를 부추겼다.

《어머님 일흔뉘생일에 들고 가는것도 변변치 못한데 손퐁금을 가져 가자구.》

《그 먼 길에 공연히 집을 만들겠어요?》

내가 반대했으나 남편은 부득부득 우기였다.

《여보, 우리의 성의를 보이자는거요. 먼 길에 손퐁금까지 척 안고 가서 축복의 음악을 울리면 어머니가 좀 좋아 할라구.》

그 말에 나는 동의하고 말았다.

그러나 우리가 수고스럽게 들고 간 손퐁금은 어머니의 기분만 잡치게 했다. 손주녀석들이 손퐁금에 달라붙어 뽀뽀거리자 어머니는 꼴살을 찌프리며 나더러 지청구를 했다.

《학교에선 품 들어 너의 소질을 키워 주었다만 넌 고작 잔치집에서 흥이나 돌구게 하다니...》

뒤늦게 본 외딸인 내 앞날에 큰 기대를 건 어머니였다. 그런데 지금 그 딸은 한참나이에 무대에서 내려 한갓 성실한 가정주부, 평범한 아낙네로 되어 버린것이다. 의기소침해 진 나는 어머니의 속을 더 상하게 할가봐 손퐁금을 보이지 않는 구석에 밀어 넣고 말았다.

돌아 오는 기차칸에서도 손퐁금이 상할세라 꼭 껴안고 오는 나를 손님들이 쳐다보는 바람에 낯이 간지러워 진 나는 몸에 걸쳤던 외투를 벗어 손퐁금을 푹 덮어 버렸다.

이 손퐁금이 도리어 우환거리가 되다니... 나는 남편이 야속스러워 속으로 줄곧 원망을 퍼부었다.

(내가 이런 처지에 빠진건 당신때문이에요. 췌

생원 같은 사람.)

내 뒤쪽 좌석에서 이야기소리가 높아 졌다.

《그런즉 임자네들은 첫 나들이를 갔됐구면. 좋은 시절이우다.》

무산에서 산다는 할머니의 말이었다.

《종긴 뭐... 아 글췌 이 사람 어머니가 딸이 늙어 간다고 아부재기를 치는 바람에 할수없이 휴가를 받았지요. 잔치가 끝나니 또...》

《아이 참, 췌 선심이나 쓰느것 같군요.》

단천에서 오른 신혼부부가 사랑스러운 다툼질을 한다.

《아, 글췌 우리 동무들은 이 엄동설한에도 고생을 하면서 소금발건설을 내밀고 있는데 나는...》

《비둘기마음은 늘 콩밭에 가 있다구 만날 소금밭...》

《아 글췌 내 수수께끼 넌테니 맞혀 보라구. 밥은 밥인데 못 먹는 밥이 뭐요?》

《피- 내가 유치원생인줄 아는가봐. 톱밥이췌.》

《그럼 금은 금인데 먹는 금은 뭐요?》

《먹는 금? 저...》

《소금이지 뭐겠소. 아 글췌 소금이 먹는 금이라는것도 모르니 이럴수밖에. 영 췌판이 없거든.》

새색시의 말문이 막히자 단천젊은이는 자기 말의 독특한 리듬인 《아 글췌》로 장단을 쳐가며 이야기했다.

《우리가 지난해 봄 그 황량한 감탕벌에 천막을 치고 공사를 시작했을 때였소. 그때 우리에게 제일 큰 고생은 물고생이었소. 아 글췌 그 혼한 물조차 귀했거든. 사방엔 온통 수령관이여서 아무리 파도 감탕물만 나왔지. 그래서 취사원들은 아 글췌 10리나 되는 마을에까지 가서 물을 길어 와야 했소. 그곳에는 공장초급일군으로 일하다가 자원해 와서 우리 청년결사대원들의 누이가 되어 궂은 일을 도맡아 하던 한 아주머니가 있었지.》

어느 날 어뜩 새벽에 취사원처녀와 함께 물을 길어 오던 그 아주머니는 우리 중대의 아침식사가 늦을세라 살얼음이 진 수령관을 질러 오다가 아 글췌 물구덩이에 침병 빠지지 않았겠소. 그 순간에 머리에 인 물버치를 뺑개치면 인차 헤어나올수 있었지만 아 글췌 그는 턱밑까지 차오르는 차디찬 흙탕물에 잠기면서도 그냥 물버치를 놓지 않았소. 다시 물 길러 갔다 오면 아침식사를 제때에 보장 못한다는 생각을 했거든. 뒤따라 오던 처녀의 웨침을 듣고 우리가 달려 갈 때까지

지도 아 글썸 그는 물버치를 그냥 이고 있질 않겠소.

그날 아침밥을 먹자니 아 글썸 목이 메어 넘어야하지.

거기선 가정부인들도 이렇게 일한단 말ियो.»

승객들은 모두 잠잠해서 젊은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문득 굶주린 맹수마냥 갈개는 눈보라의 아우성이 천군만마가 내달는 소리처럼 요란히 높아졌다. 열차가 도중역에 멈추면서 달그락거리던 차바퀴의 소음이 잦아 들었기때문이다.

승강대복도에서 눈을 탁탁 털면서 들어오는 손님들은 저저마다 곁은 날씨에 대한 푸념을 창공기속에 섞어 차칸에 휘뿌렸다.

《눈보라가 어찌나 지독한지 눈을 뜰수 없다니까.》

《하늘도 무슨 심보로 계속 심술을 부리는지.》

열차가 다시 떠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복도쪽에서 왁자지껄하더니 세 여인이 대짜배기 함통들을 이고 지고 들어 왔다. 요행 기차를 잡아 탄 모양 숨을 헐떡거리는 여인들의 머리수건과 어깨우에 눈가루가 휘날리고 볼들은 빨갛게 상기되었다. 그들은 짐들이 뺨꼭이 찬 당반을 이리저리 훑어보더니 승객들에게 양해를 구하며 짐짝들을 의자 밑에 밀어 넣기 시작했다.

그때 옮기던 짐짝 하나가 통로쪽에 앉은 남편의 다리정갱이를 툭 건드렸다. 엉겁결에 어이쿠-하며 눈을 번쩍 뜬 남편은 다리를 문지르며 벌컥 성을 냈다.

《이건 무슨짓이요? 남의 다리뼈를 바스겠소.》

그러자 앞에 선 수더분한 여인이 사죄했다.

《미안합니다. 제가 그만...》

《젠장, 지금 세월에 녀자들이 아무리 큰 몫을 하기로서니 녀성다운 품성과 도덕까지 켜버려서야 되겠소. 요즘 아낙네들은 어찌나 드살찬지...》

남편이 계속 투덜거리자 코가 오뎅한게 만만치 않아 보이는 여인이 냉큼 좌불었다.

《동무, 우리 녀자들을 모욕하지 마세요. 우리가 뭐 제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아글타글 뛰어나는가요?》

머리를 쑥 빼들고 이쪽을 건너다 보던 무산로친이 맞장구를 쳤다.

《옳네, 나그네는 안해가 귀부인노릇을 하는가 보지.》

《저 로친이? 계도 가재편이라구...》

민망스러워진 나는 씨근거리며 일어 서는 남편의 옷자락을 끄당겼다. 마침 뒤에 선 여인이 성큼 다가와 구면지거나 대하듯 남편의 어깨에 척 손을 얹었다.

《손님, 양해해 주세요. 우리 서로 다정한 길동무가 되어 웃으며 함께 갑시다. 싸움끝에 정이라는데.》

그의 무릅없는 태도에 계면쩍어진 남편은 도로 주저앉으며 중얼거렸다.

《예익, 내 망신스러워 참는다.》

나는 남편에게 나무람을 할 경향이 미처 없었다. 내 눈길은 양털수건을 쓴 그 여인을 예민하게 살피고 있었다. 쩌렁한 목청이며 복스런 얼굴에 어글어글한 눈매며 덜렁거리는 행동거지가 설지 않았기때문이다.

이어 내 가슴은 후드득거렸다.

(맞구나. 덜렁이중대장 한복금!...)

그 찰나 뒤에서 단천젊은이가 반갑게 소리쳤다.

《복금아주머니-》

《<아 글썸>동무.》

복금이라도 마주 부르며 통로에 튀어 나온 《아 글썸》의 손을 잡았다.

《여전하군요. 안해가 보는 앞에서 <아 글썸>동무가 뵈니까?》

《호호호... 제격 시정합니다. 경식동무가 인젠 당당한 세대주라는걸 잊었었군요.》

경식은 복금을 제 자리로 데려가더니 새색시에게 인사를 시켰다.

《이분이 내가 방금 말하던 그 아주머니요.》

복금은 새색시의 복숭아볼을 다독여 주며 말했다.

《곰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탐스런 꽃을 꺾었을까?》

체통이 큰 경식은 뒤더수기를 술술 굶었다.

《겉보다도 속이 고와야지요.》

《사내들의 욕심이란. 마음 미운건 얼마든지 고칠수 있어도 나같은 얼굴박색은 평생 고칠수 없어요.》

복금의 너스레에 즐거워 진듯 무산로친이 웃으며 끼여 들었다.

《범이 제 소리 하면 온다더니 마침일세. 임자는 마음만 비단인줄 알았더니 성미도 좋구 말 주변도 좋구 팔방미인이구려.》

복금에게 자리를 내준 경식은 제 누이처럼 자랑했다.

《할머니, 이분이 보통아낙네인줄 아시우? 아 글썸 처녀땐 한개 중대나 거느리던 군관이었수다.》

나는 착잡한 심정에 싸여 옛 상관과의 상봉을 망설이였다.

내가 복금이와 함께 지낸 녀성해안포중대생활은 2년밖에 안된다. 나는 바로 복금중대장의 추천으로 중대를 떠나 군부대 선전대로 소환되었다.

중대를 떠날 때 복금중대장은 초소박에까지 내 배낭을 메다 주면서 석별의 정을 금치 못하는 나에게 말했다.

《나도 중대의 손퐁금수를 훌쩍 보내는게 아쉬

워요. 하지만 송희의 보배손은 우리 중대만이 아니라 군부대의 많은 군인들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아까운 재능도 더 꽃 피워야지.

난 동무가 그 어데에 가던 중대의 병사생활을 잊지 않고 뒤걸음칠줄 모르는 강자로 일생을 살리라고 믿어요.》

(아, 나는 그 믿음을 배신했구나.)

나는 무릎우의 손뽕금에 얼굴을 묻었다.

(그가 이 손뽕금을 본다면? ... 그는 아마도 내가 이 어려운 때 무대우에서, 전투장에서 만사인의 심장을 울려 《고난의 행군》을 승리로 불러 일으킬거라고 믿고 있었으리라. 이제 만나면 뭐라고 변명하겠는가? 뒤걸음치는것을 무엇보다도 질색하던 그가 아닌가.)

내가 무대에서 물러 난것은 변명할수 없는 약자의 뒤걸음질이었다.

쉬임없이 달그락거리는 차바퀴소리를 타고 추억은 10여년전의 그 시절로 줄달음쳤다.

...

도래굽이에 기여 나온 코끼리가 두발을 빗디디고 서서 바다물을 삼키는듯한 운치를 자아내는 산고지에 자리 잡은 해안포진지에서는 매일과 같이 복금중대장의 구령이 짹짹 울렸다. 수기를 든 그는 우리 헛내기병사들이 쾅쾅 안간힘을 쓰며 비청거리던말건, 손이 더갈라지던말던 아랑곳없이 계속 반복구령을 되풀이한다.

집안에서 응석받이로 자라 아직 빨래방치도 들어 보지 못한 나는 찻잔에 뜨거워진 땀물에 뜨거워진 눈을 훑으며 모질은 중대장을 원망하기도 하고 손이 틀세라 호호- 불어 주던 어머니를 그리워하기도 했다.

휴식잠이면 처녀중대장은 길다란 포신을 기름결레로 살뜰하게 문지르면서 말하곤 했다.

《우리 녀병사들은 다른 처녀들이 화려한 옷차림을 하고 굵 높은 구두를 신고 유보도를 거닐 때 해풍이 거치른 이 바다가에서 땀에 젖은 군복을 입고 포탄을 재워요. 하지만 조국의 바다를 지키는 녀성해안포병의 긍지를 어떻게 굵 높은 구두나 고급화장품과 바꿀수 있겠어요. 한마디로 우리 군복 입은 처녀들의 정든님은 이 대포가 아니겠어요.》

시처럼 울리는 그의 말은 메마른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우리의 가슴속에 차분히 스며 들곤 했다. 정말 군인기질을 타고 난듯 한 그는 해안포를 《정든님》처럼 사랑했다.

훈련이 끝나면 중대처녀들은 내가 타는 손뽕금 소리에 맞추어 노래도 불렀다.

수기를 말아 든 중대장의 물동적인 지휘에 따라 걱정의 파도를 일구는 녀병사들의 노래에 푸르른 바다도 좌좌- 설레이는듯 했다.

내가 입대한지 얼마후 우리는 감시소경도굴설 공사를 벌리게 되었다. 복금중대장은 녀성중대의

힘으로 이 공사를 해낼것을 결심했다. 그가 앞에서 함마를 휘둘러 대자 용기가 생긴 처녀들은 서로 조를 무어 승벽내기로 발파구멍을 뚫었다. 구대원들은 번갈아 함마질을 하고 우리 신입병사들은 정대를 잡았다.

난생 처음 정대를 잡고 뚫어 앉은 나는 함마가 날아 들 때마다 내 머리를 짓조기는듯 하여 흠칫흠칫하면서 눈을 감곤 했다. 그러면 내가 잡은 정대도 기웃거리려 함마가 종종 빛나가곤 했다. 그럴 때마다 함마질을 하던 분대장은 화를 냈다. 나는 더더욱 움츠러 들었다. 종내 함마가 장갑을 낀 내 손을 때렸다. 나는 손이 으스러지는듯한 아픔에 비명을 질렀다. 급해 맞은 분대장이 위생지도원을 불러 부어 오른 내 손에 옥도정기를 발라 주자 나는 엄살굳게 낫을 쥔그렸다.

마침 중대장이 다가오자 분대장은 제의했다.

《송희동문 직일근무나 세웁시다. 중대에 하나 밖에 없는 손뽕금수의 손을 아껴야지요.》

한옆에 물러 나 앉아 한숨을 쉬는 나를 돌아보는 중대장의 눈빛은 서늘해 졌다. 그는 분대장에게 날카롭게 말했다.

《송희동무의 손뽕금은 포탄이 날아 드는 화선에서도 전투의 노래를 울려야 해요. 우리 중대엔 격전장에서 비겁하게 뒤걸음치는 손뽕금수는 필요 없어요.》

(너무하구나. 군사밖에 모르는 알패.)

반발심이 치밀어 오른 나는 입술을 깨물며 다시 정대를 잡았다. 그러자 중대장이 함마를 바꾸어 잡았다.

《눈을 부릅떠요. 동무가 잡은 정대는 원수의 가슴팍에 박는 총창이라고 생각하세요.》

다시 함마질소리가 땡땡 고지에 메아리쳤다.

...

나는 고개를 들어 옛 상관의 변한 모습을 훑쳐보았다. 수건을 벗은 머리는 때 이르게 세였는지, 먼지가 끼였는지 희숙희숙했고 다부진 몸에 두툼한 회색솜옷을 꺼입은 매무시는 촌아낙네처럼 볼품이 없었다.

과연 저 녀자가 한때 금별모표가 번쩍거리는 군모를 쓰고 목깃에 세계의 별을 단 군복을 산뜻이 차려 입고 중대대오앞에서 쇠소리나게 구령을 치던 그 멋쟁이 녀성군관이였는가. ... 무정한 세월은 열혈처녀에게서 군복만이 아니라 온몸에서 풍기던 녀장부의 싱싱한 기개마저 벗겨 간듯 싶었다.

《아 글썄》가 묻는 말이 언뜻 귀에 날아 왔다.

《참 가정부인들로 녀성중대를 무었다지요?》

코가 오뎅한 녀인이 대꾸한다.

《그럼요. 복금언니가 녀성중대장이 되었어요.

우린 언니수하의 중대원들이죠.》

《아 글썄 그러면 그럴것지. 녀성중대장동지, 축하합니다.》

(녀성중대장!)

나는 가슴이 뭉클했다. 저 녀인은 오늘도 중대장이구나!

나는 방금 그를 동정의 눈길로 보았던 자기를 비웃었다.

(얼마나 어리석담. 오히려 동정을 받아야 할 내가...)

내 심리의 파동을 알리 없는 남편은 제 목도리를 벗어 내민다.

《참 당신두... 뭐 손퐁금이 얼겠다고 외투를 씌웠소? 이걸 목에 걸치라구.》

나는 복금이네들이 불세라 당황히 목도리를 뿌리쳤다.

《당신은 창피하지도 않아요?》

《내가 좀 지나치긴 했지만 뭐 못할 소리를 했소?》

나는 더 다투고 싶지 않아 고개를 외로 틀었다.

남편의 뽀조름한 턱이 별로 팽이날처럼 빼죽해 보여 상대하기조차 싫었다.

솔직히 말하건대 내 남편은 용모가 미끈한 고수머리 미남자이다.

신혼살림때만 해도 우리 부부는 남들이 원앙새 부부라고 부러워 할만큼 서로 위해 주었다. 남편은 내가 극장에서 늦어 지는 날이면 기꺼이 동자질을 맡아 하곤 했다. 출판물보급소 사무원인 그는 퇴근시간을 꼭꼭 지키는 사람이었다. 술이건 담배건 아예 입에 대지 않고, 친구네 집에도 놀러 다니는적이 없는 꼭자인 그의 성미와 나의 《군대성격》이 때로 충돌하기도 했지만 그것은 칼로 물베기였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나는 결혼후 몇해가 지나도록 그의 아이를 낳아 주지 못했다. 아이 없는 가정은 꽃 없는 화분이라고 할가... 차츰 우리 가정의 행복에 그들이 지기 시작했고 나는 집에 들어 와 우울해 하는 남편의 눈치를 보며 살게 되었다. 내가 적당히 애교도 피워 보고 록음기도 장만했으나 남편의 우울증은 가시여 지지 않았다.

나는 생각다 못해 부모 없는 아이라도 얻어 기르자는 말을 비쳤으나 그는 딱 잡아 댔다.

《좀더 기다려 보자구.》

어느덧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었다.

남편은 두루 때거리가 맞갖지 않게 되자 동자질을 할 때면 투정질을 했다.

《당신의 손퐁금에서 쌀이 나오오? 당신의 얼굴이 축 가는걸 못 봐주겠소. 유명한 음악가가 못 될바엔 차라리...》

나는 그가 채 맺지 않는 뒤말을 짐작하고도 남았다. 차라리 무대생활을 그만 두고 안해구실이 나 잘하라는 말이였다. 처음엔 그 말이 몹시 섭섭했으나 향변할수도 없었다.

남편에게 달덩이 같은 자식을 안겨 주지 못하

는것만도 죄송스러운데 빈번히 동자질을 시키지, 나물죽을 대접하지... 참 나는 안해구실을 못하는 여자라는 피로움이 차츰 나의 《군대성격》을 움츠려 들게 했다. 가정불화가 질어 가고 생활난이 겹쳐 들자 의기소침해 진 나는 남편의 의사에 복종하고 말았다...

나는 이 시각 복금리와 만나는것이 두렵기만 했다. 피차 가슴이 무거울 해후였다. 두사람의 인생길이 이 렬차안에서 교차된것이 우연인지 필연인지... 게다가 남편까지 못나게 굴었으니 더더욱 낯이 뜨겁다.

급작스레 차창을 때리며 야단스럽게 울부짖는 눈보라소리가 렬차의 전진리듬을 삼켜 버렸다. 성애가 잔뜩 긴 차창을 통해서서는 아무것도 가늠할수 없었으나 렬차의 진동이 잦아 든것을 보아 몇어선 모양이었다. 이어 전등불마저 꺼져 차안은 캄캄해 졌다.

《역도 아닌데서 왜 섰을가? 정전이 아닌가?》

《이런 날씨엔 철도운행이 순조롭지 않을거요.》

《젠장, 래일 아침까진 목적지에 도착해야 할텐데...》

불안과 짜증이 여기저기서 어수선히 꼬리를 쳐 든다.

이윽고 렬차원처녀가 길손들에게 철도송전선이 두절된것 같다고 알려 주었다. 렬차가 언제 다시 떠나겠는지 알수 없다고 한다.

모두 묵묵해 졌다. 간단치 않은 사고일수 있다는 예감과 함께 인차 회복되겠지 하는 기대가 혼탕된 침묵이 차칸을 배회했다. 역도 아닌 도중의 철길에 얼어 붙은 렬차는 마치 망망대해의 풍랑속에 내던져 진 조난선 같았다. 격랑처럼 연줄연줄 휘숫아 소용돌이치는 눈보라가 렬차를 사정없이 덮치며 금시 침몰시키는데 듯 싶다. 나는 어둠의 천길나락에 빠져 든것 같은 적막감에 휩싸였다.

문득 어둠속에서 복금의 쨍쨍한 목청이 울렸다.

《여러분, 한숨이나 쉰다고 기차가 가겠어요? 우리 제멋대로 날치는 저 눈보라에 노래로 도전하는게 어때요?》

전지불들이 빙긋빙긋 켜지더니 통로에 나선 복금을 비치였다. 그는 상글거리며 말을 이었다.

《인간의 정서생활에서 보는 것은 꽃이요, 듣는 것은 음악이라나요. 그래서 예로부터 꽃과 음악을 즐기지 않는 사람은 야만인이라고 일렀대요. 물론 우리 차칸엔 그런분이 안 계시겠지만.》

《허허허... 자칫하면 야만인 딱지가 붙겠는걸.》

《난 천성적으로 음치인데 이런거야 이해하겠지.》

활기를 띤 승객들은 한마디씩 우스개소리를 던졌다.

복금은 능청스럽게 군중과의 교감을 계속했다.

《오늘 렬차오락회 대장은 제가 하는게 어떨가

요? 물론 저기 앉아 계시는 인민군 대위동지랑은  
섭섭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남자였다면 지금은  
아마련대장쯤 되었을거예요.》

대위가 일어 나 익살스럽게 말했다.

《찬성입니다. 옛날에 자칭 황제도 있었다는데  
자칭 오락회대장이야 못하겠습니까. 나는 첫 순  
서로 자칭 오락회대장동지의 노래로 막을 열자는  
것을 엄숙히 제기하는바입니다. 자, 박수-》

짹짹그르르 박수가 터졌다.

《 좋습니다. 군대시절에 제 별명이 뭔가 하니  
덜랭이중대장이었어요. 녀자로서는 좀 듣기 거북  
하지만 저에겐 못내 그리워 지는 별명이랍니다.  
그럼 덜랭이중대장시절을 추억하며 한국 부르겠  
습니다.》

복금이가 말하는 사이에 나는 손풍금을 안고  
불쑥 통로에 나섰다. 그 어떤 반사적인 충동의  
용수철에 튕기운것이다. 내가 건반을 재빨리 짚  
어 가자 옛 중대장이 가장 사랑하던 노래의 전주  
곡이 차칸에 회오리쳤다.

《아니?...》

복금의 눈에서 타오르는 환희의 불꽃!...

나는 어서 노래를 부르라는 뜻으로 고개를 끄  
덕이었다.

전지불들이 조명하는 이채로운 《무대》에서 손  
풍금의 곡조를 타고 복금의 특유한 음성은 그윽  
한 서정의 향기를 풍기며 물결쳤다.

우리의 노래는 명중의 포성이라고 우리들은 장  
군님의 녀성해안포병이라고...

나는 감미롭고 경쾌한 노래에 눈앞이 흐릿해  
졌다. 병사시절 추억은 랑만의 노래처럼 얼마나  
아름다운가!...

...

《덜랭이중대장》이라는 별명은 사실상 우리 중  
대원들이 불덩어리 같은 중대장에 대한 선망을  
담아 부른 애칭이었다.

그날도 눈보라가 휘몰아 쳤다. 간밤에 내린 눈  
이 엉켜 붙어 련대로 통하는 전화선이 끊어 지자  
복금중대장은 상등병인 나를 데리고 술선 통신  
선수리를 떠났다. 지휘소대 유선통신수들이 모두  
야외훈련을 나갔기때문이었다.

우리는 험한 산길을 뚫으며 통신선을 훑었다.  
지동치는듯 한 눈바람에 낮을 들수조차 없었고  
전주대는 미끄러워 오를것 같지 못했다. 나는 무  
선기도 있으니만치 하루 미루었다가 바람이 멎은  
다음에 통신선수리를 했으면 했다. 하지만 입안  
에서 맴도는 말을 무쇠 같은 중대장앞에선 삼켜  
버릴수밖에...

그런데 중대장도 허연 버께가 번들거리는 전주  
대들을 여겨 보더니 머리를 젓는게 아닌가.

《아무래도... 오늘은 안되겠어.》

그는 되돌아 섰다. 나는 그 역시 군사지휘관이  
기전에 나와 다름 없는 녀성이라는 알곳은 생각

을 하며 그의 뒤를 따랐다.

고개를 깃수긋한채 얼마간 걸던 그는 별안간  
멈추어 섰다. 그는 몸을 돌키며 부르짖었다.

《송희, 우리가 눈보라에 겁을 먹다니... 한걸음  
뒤걸음치면 열걸음, 백걸음 뒤걸음치게 되는거  
야.》

그 말은 나에게라기보다 흔들리는 자기의 용기  
에 가하는 채찍질이었다. 우리는 다시 헉헉거리  
며 눈바람을 맞받아 나갔다.

통신선은 여러군데 끊어 져 있었다. 복금은 몇  
번씩 미끄러 지면서도 기를 쓰며 전주대에 올랐  
고 나는 밑에서 권선을 풀어 끊어 진 부위를 이  
었다.

병사용통장갑을 벗고 손을 놀리자니 못 견디게  
시려 들었다. 나는 맨손으로 차디찬 전주대를  
붙잡고 눈바람과 싸우는 중대장을 보면서 간신히  
참았다. 우리가 통화검사까지 마쳤을 때엔 손이  
감각마저 잃고 찻찻해 졌다.

돌아 오려던 참에 나는 장갑을 끼려고 찾았으  
나 온데간데 없었다. 덤벼 치다가 어디서 떨어진것  
같았다.

원래 병사용장갑은 두 짝을 잇는 끈이 달려서  
목에 걸어 건사하게 되어 있으나 맵시쟁이인 나  
는 그것이 처녀의 용모를 깎아 내린다고 몰래 끈  
가운데를 잘랐다. 그리고 아침검사때면 끈을 매  
놓고 어데 다닐 때면 슬쩍 풀어서 장갑안에 쑤셔  
넣곤 했었는데 그 요령이 일을 친것이다.

복금은 장갑을 잃고 허둥거리는 나를 꾸짖을  
대신 솜옷 앞섶을 헤치더니 내 손을 끄당겨 꼭  
품어주었다. 따뜻한 온기가 내 손을 무근히 감쌌  
다. 순간 이를 짓쫓는 소리가 그의 퍼렇게 얼어  
든 입술사이로 새나오는것을 감촉한 나는 급히  
손을 꺼내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의 아귀 센 손  
이 내 팔목을 꼭 그러쥐고 놓지 않았다.

(자기 역시 추위에 몸서리를 치면서도 남의 선  
특한 손을 가슴속에 품어 주다니...)

《난 왜 송희동무의 장갑을 살피 못 봤을까? 단  
단히 차비시켜야 하는건데... 애참, 이 덜랭이는  
중대장자격이 없어.》

자책에 싸여 나직이 뇌이는 그의 음성은 갈리  
었다.

그때 나에게 찬바람에 상기된 그의 얼굴에 비  
긴 홍조가 무척 아름답게 느껴 졌다. 그닥 못 생  
기진 않았으나 녀성다운 섬세미는 없다고 여긴  
얼굴이었다. 난 왜 이때껏 표정이 풍부한 저 얼  
굴의 열정미, 순결미는 보지 못했을까?...

얼굴 살갗이 해풍에 거칠어 지고 피약벌에 끄  
슬리고 눈바람에 얼어 들면서도, 분이나 연지 대  
신 땀으로 얼굴을 매닥질하면서도 아무런 미련없  
이 처녀시절을 불 태우는 그는 정녕 불덩어리였  
다. 그 불덩어리앞에서 지금껏 가슴속에 맺혔던  
고까움의 성에는 스르르 녹아 왈각 눈물로 치솟



았다.

《병사가 어린애같이 울진.》

복금은 녹아 든 내 손을 꺼내어 자기의 장갑을 끼워 주었다. 나는 손을 뿌리쳐 보았으나 허사였다.

《중대장동지의 손도 얼었겠는데...》

《난 괜찮아. 동무의 손은 우리 중대 보배손이야.》

그는 말 한마디 툭 던지고는 활개를 치며 씨엥 씨엥 걸었다. 산고개를 넘다가 눈비탈에서 곧두 박질하며 나뭇굴적엔 고개를 뒤로 젖히고 짹짹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빨갛게 일어 있었다. 그 언손은 내 눈에, 아니 심장에 도장처럼 찍혀 졌다.

...

노래를 마친 복금은 와락 달려 와 내 목을 꺼안았다.

《송희, 보고 싶었어.》

《저를... 알아 보았어요?》

《그럼. 손풍금 타는 솜씨만 보아도 송희라는 걸 대뜸 알았지.》

나는 그만 흐느낌을 터치었다. 그가 날 기억해 주는것이 고맙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다. 나 같은 녀자에게 과연 그의 추억속에 간직될 가치가 있을까?...

《송희, 회포는 후에 나누기로 하고 군대때처럼 그 손풍금으로 본때를 보여 줘.》

과들거리는 내 어깨를 두드려 주며 조용히 속삭인 복금은 계속 오락회를 지휘했다.

손풍금소리는 차창밖의 눈보라소리를 짓누르며 쉬임없이 울렸다. 손님들은 너도나도 노래를 부르고 시도 읊고 손요술을 하기도 했다. 열차오락회의 흥취가 점점 고조되어 절정에 이르자 출판이 벌어 졌다. 남녀노소들이 오금을 들썩이며 번갈아 통로에 나서서 손풍금곡에 따라 각양각색의 춤가락을 뽑아 대고 발장단을 쳤다. 천지에 군림한 눈보라도 열차의 기세에 눌리워 움츠러 든 듯 했다. 술한 무대들에서 손풍금을 탄 나였지만 차칸의 좁은 통로를 무대 삼아 손풍금을 울린 이 밤처럼 예술의 진가를 사무치게 체험한적이 없었다.

그런데 유독 한사람만이 이 흥겨운 분위기엔 아랑곳없이 눈을 꼭 감고 앉아서 자고 있었다. 아니 자는체 했다. 그는 내 남편이었다. 무안에 취했는지, 때때로 자기를 감싸군 하는 그 점잖지 못한 《점잔》을 빼는지...

나는 어이가 없어 속으로 꾸짖었다.

(꼬슬꼬슬한 머리칼뿐아니라 속까지 까무라든 랑반 같으니.)

오락회가 끝난후 나와 복금이가 손을 맞잡고 자리에 오자 남편은 슬그머니 일어 나 저쪽 어둡속으로 몸을 사라졌다.

나는 복금에게 동정을 구하는 약자의 하소연을 길게 늘어 놓고 싶지 않아 대충 자기의 처지를 이야기했다.

복금은 묵묵히 들어 주더니 내 손을 어루만졌다.

《중대생활 2년이 이 손을 억세게 버리어 주지 못한가 보지.》

《막상 군복을 벗고 보니 생활은 단순치 않군요.》

《그래. 우리의 생활은 어려워. 누구보다도 우리 녀성들의 부담이 크고... 그러나 죽을 먹고 등잔불을 켜고 살아도, 아무리 풍파를 겪어도 우리의 생활은 결코 뒤걸음치지 않아요. 물이 거꾸로 흐를수 없듯이 그저 먹고 입고 쓰고 사는것만이 생활이 아니거든.》

《난 중대장동지의 그 대범한 성격이 부러워요.》

《성격은 천성적인 기질이 아니지. 우리 녀인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웃으며 사는건 생활이 흘러가는 앞날에 아름다운 희망의 바다가 있다는걸 내다보기때문이 아닐까.》

《여전하군요. 난 병사시절에도 중대장동진 <시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데 열차원이 나타나 통보 받은 소식을 객들에게 전했다.

《레년에 드문 폭설로 6만선이 고장났다고 합니다. 이런 날씨엔 눈이 한길이나 쌓인 산중에 기차재를 끌어 올려 6만선을 복구하기가 험치 않습니다. 그러니 모두 하루건 이틀이건 참고 기다릴 각오를 해야겠습니다.》

사람들은 슬렁거렸다. 그러나 불평을 토하는 사람은 없었다. 자연재해로 인한 돌발적인 사고를 누구나 이해했기때문이다. 나 역시 낮은 기온에 한껏 켜기여 진 금속선에 눈이 자꾸 엉켜 붙으면 끊어 지는 경우가 있다는것을 군대때부터 알고있다.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 여기는 불빛 한점 보이지 않는 외진 곳이다.

한동안 무슨 생각에 잠겼던 복금은 불쑥 몸을 일으켰다.

《오래 얘기를 나누지 못해 안됐어요. 급한 일이 생겨서... 아침에 또 만나자요.》

그는 전지불을 켜들고 뒤좌석으로 갔다. 함께 온 녀인들은 세상 모르게 잠에 푹아 떨어 졌다.

그들을 측은히 지켜 보던 복금은 새색시를 어린애처럼 재우고 있는 경식이와 뭐라고 소곤소곤 말을 주고 받았다. 이어 두사람은 서둘러 차칸 밖으로 나갔다.

(이 눈보라치는 밤에 어딜 가는걸까?)

내가 멍하니 앉아 있는데 남편이 술래잡기나 하듯 슬금슬금 다가오더니 내 귀에 입을 바투 가져다 댔다.

《여보, 당신의 옛 전우에게 나와 함께 간다는 말은 안했겠지?》

《무슨 자랑거리라구... 그를 내 옛 전우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에겐 그렇게 부를 자격이 없어요.》

《어쨌든 우린 그 너인과 헤어질 때까지 남남끼리인것처럼 서로 모르쇠를 하자구.》

남편은 숨을 길게 내뿜으며 털썩 앉았다.

(그래도 창피는 알아서...)

앵돌아 진 나는 그에게 등을 돌려 댔다. 남편이 곁에 있건만 마치 절해고도에 외토리로 남은 것 같이 쓸쓸해 진다.

(성격은 천성적인 기질이 아니라구? 그럼 성격이란 뭘가?...)

병사시절에 나는 복금중대장을 닮으려고 이모저모로 애 썼다. 말투와 몸가짐으로부터 행동거지에 이르기까지, 지어는 고개를 뒤로 젖히고 팔팔 웃는 버릇까지도 즐겨 모방하곤 했다.

그래서인지 내가 제대되었을 때 어머니는 우리 새침때기가 군대에서 팔랭이가 되어 돌아 왔다고 혀를 끝끝 차기까지 했다.

하지만 시집을 가서 생활의 다반사에 부대끼는 사이에 어언간 나의 《군대성격》은 잦아 들고 말았다. 아마도 내가 군대에서 지니고 왔던 활기는 성격이 아니라 시농에 불과했는지...

옛 중대장은 흰 파도 출렁이는 해안포진지에서 사나운 바다도 취락퍼락할듯 싶던 그 열정과 패기로 생활의 풍랑을 가감히 헤쳐 나가지 않는가. 나는 그의 걸이 아니라 속을 닮았어야 했을걸...

(아니야. 그와 나는 서로 처지가 달라. 나에겐 장애물이 좀 많다구. 그에겐 우선 안해의 지향을 이해해 줄수 있는 좋은 남편이 있지 않는가.)

나는 자기를 위안하기 시작했다...

복금중대장이 제대된후 우리 선전대는 나의 친정집이나 다름없는 중대에 내려 가 공연을 한적이 있었다. 그때 정치지도원이 나를 따로 만나 복금이가 결혼했다는 소식을 알려 주었다.

나는 부쩍 호기심이 동했다. 것처럼 인품이 높은 녀성을 어떤 사나이가 쟁취했을까? 이만저만한 대장부가 아닐테지.

정치지도원은 무척 궁금해 하는 나를 보자 빙그레 웃었다.

《사람의 연분이란 참... 그 녀걸이 키도 작고 용해 빠진 사내와 가정을 이루었다누만요.》

내가 고개를 기웃거리자 그는 복금의 편지를 보여 주었다. 제속을 훌훌 터놓는 성미 그대로인 활달한 필치의 편지였다.

청춘시절의 친근한 벗에게 나의 결혼동기를 적어 보내요. 동지적인 충고를 바라면서...

내가 배치된 직장에는 총각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한 청년이 내 주위를 맴돌며 귀찮게 굴지 않았어요.

복금동무, 난 동무의 그 락천적인 성격에 반했소. 동무와 함께라면 평생 웃으며 살것 같소. 제발 내 안해가 되어 주십사 하고 간청하겠지요.

난 체격도 보잘것 없고 사내다운 멋이 없어서 도무지 눈에 차지 않는 총각에게 한번은 한바탕 울러 댔어요.

《동무, 이래봐두 난 대포를 휘두르며 바다에 호령하던 지휘관이였어요. 동무처럼 군모 한번 못 써본 줄장부가 나에게 감히 청혼을 해요? 난 군대에 못 나갔던 남자는 아예 사나이취급을 안해요.》

그러자 이때껏 내앞에서 찔찔 매며 눈치만 엿보던 사람이 벌떡 대들더군요.

《내가 뭐 군대를 기피했소? 나도 군대초모 신체검사때 모자라는 몸무게를 불구려고 물을 한바게쓰나 들이킨 다음 저울대에 오른 사람이요. 그런데 어쨌겠소. 작은 키는 강재 연신하듯 잡아늘굴수는 없는거구. 그러나 동무가 군사복무를 하는 동안에 나도 청년돌격대에서 청춘시절을 보냈소. 돌격대제복을 군복처럼 여기면서...》

《영 줄장부인줄 알았더니 사내다운 배짱과 결패는 좀 건사해 두었는걸요.》

《뭘요? 사람을 너무 업신여기지 마시오.》

성이 난 그는 그 다음부터 나를 아예 거들떠보지 않겠지요.

볼기도 맞으려다가 안 맞으면 섭섭하다고 그 바람에 난 그만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난 그의 높은 향학열과 성실한 사람됨에 관심이 끌렸지요. 사회적지위나 경력, 용모가 인격의 기본이 아니라고 생각한 나는 우물쭈물 타산하고 싶지 않았어요. 물론 속대가 약한 그의 약점도 모르진 않았으나 술한 녀장부들을 키워 낸 내가 남편 하나 용사로 만들지 못했는가 하는 배심이 생기더군요. 그래서 나는 마치 은혜를 베푸는듯한 심정으로 그와 약혼을 했어요.

결혼식날이었어요. 저녁이 되자 살림집 2층에 있는 새서방네 집에 사람들이 한구들 모여 새서방 새색시 노래체조 시킨다나요.

그런데 먼저 일구어 세운 신랑은 공공 갑자르더니 노래인지 귀속말인지 몇마디 웅얼거리더니 폭 주저앉지 않았어요. 난 속이 부글거렸어요. 한때 군관이였노라고 뽐내던 녀자가 시라소니 같은 남편을 얻었다고 흥이 날테니까요. 난 그 흥을 만회해 보려고 누가 청하기도전에 벌떡 일어나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나 일은 점점 꼬여 들었어요. 다음은 신랑신부의 쌍창을 시킬 차례인데 어느 새 신랑은 슬쩍 뺑소니쳤더군요.

나는 신랑을 찾아 오라고 성화를 먹일세라 두곡 세곡 록음테프 풀듯 연거퍼 노래를 퍼냈지요.

《샘물터에서》도 부르고 《처녀시절 꽃시절》도 부르고 《뼈곡새가 노래하는 곳》도 부르고...

마감엔 너무 목이 갈려 물그릇을 찾아 한모금

죽 들이키니 그게 물이 아니라 술이더군요.

손님들을 돌려 보낸 다음 찾아 보니 그 못난이는 옷방베란다에 숨어 쿨쿨 자지 않겠어요. 후끈 달아 오른 난 중주먹으로 그의 가슴팍을 두드리 깨웠어요.

《줄장부, 바지가 아깝군요.》

후닥닥 일어 난 그는 아래방에서 들을세라 음성을 낮추어 날 얼리려 들더군요.

《여보, 아무렴 첫날부터 싸우겠소?》

《여보라구요? 동문 아직 날 여보라고 부를 자격이 없어요. 난 오늘 비록 새색시 첫날옷은 입었지만 마음의 군복은 벗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파혼이란 말이요?》

《어쨌든 첫날부터 제대군관을 망신시킨 동무가 사나이구실을 할 때까지 우리 사이는 남남이에요. 오늘 밤부터 난 이 베란다에서 혼자 밤을 보내겠어요.》

난 그 사람을 베란다에서 방으로 쫓아 보냈어요. 처음부터 혼썰을 내서 신발을 단단히 신길 잡도리로 말이에요. 늦가을밤의 선기에 얹은 신부옷을 입은 몸이 으시시 떨렸지만 난 꼭 참았어요.

그는 내가 감기라도 걸릴가봐 겁이 나서 몇번씩 베란다문을 열고 제발 잘못했노라고 사죄했어요. 정 내가 뻔치자 안절부절 못하던 그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사실 난 며칠밤을 꿰소. 우리 직장의 생산원가를 꼭 낮출수 있는 기술혁신안인데 잔치때문에 미룰순 없었소. 그랬더니 오늘 밤에 어찌나 피곤한지 어디 견딜수 있어야지.》

그는 도면을 가져다가 불빛에 비쳐 보이더군요.

《이걸 보시오. 제대군관이라는 동무가 정 내 심정을 이해 못한다면, 자기의 체면이 공장보다 더 중하다면 당장 집으로 돌아 가도 좋소.》

난 도면을 볼줄 몰라서 그것이 실제로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알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 도면에서 한 인간의 가치는 알아 보았어요.

당장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고 싶은 심정에 격해진 난 목청을 높였어요.

《나 같은 왕도살을 안해로 맞이한 동무의 <불행>을 축하해요.》

나는 비로소 어떤 사람을 남편으로 맞이 들었는가를 깨닫고 그에게 충심으로 사랑을 바치고 싶었어요. 누구 말마따나 우리의 진정한 편애는 결혼후부터 시작된셈이지요.

정치지도원동무의 귀중한 조언을 기다리겠어요.

심란해 진 나는 온밤 잠들수 없었다. 남편도 궁핍거리며 기나긴 밤과 씨름하고 있었다.

어느덧 창밖이 푸름푸름해 졌다. 바람은 밤새껏 횡포를 부린것을 사과하듯 차창을 살살 어루

쓰다듬으며 어리광치고 있었다. 그때까지 복금이네 녀성중대원들은 혼곤한 잠에서 깨여 나지 못했다.

사위가 뒤흔 지자 복금이와 경식이가 나타났다. 복금의 머리에 쓴 양털수건의 자락이 까맣게 타서 너슬너슬해 진것이 얼핏 눈에 띄었다.

경식이가 흔들여 깨우자 연신 하품을 하며 떨떠름히 눈을 뜬 두 녀인은 복금의 눈짓에 비상소집구령을 받은 병사들처럼 제격 일어 났다. 이어 그들은 부리나케 짐들을 꺼냈다.

나는 복금이와 작별인사를 나누며 걱정했다.

《아직 금야까지는 60리길이라는데 좀 더 기다려보지 않구요. 지친 몸으로 무거운 짐들을 어떻게...》

《바람이 멎으니 아침공기가 참 상쾌해요. 눈길도 좋구요. 우리 종종 편지를 나누자구. 미처 못한 말들을 담아서.》

복금은 내 등을 쓰다듬으며 손님들을 돌려 보았다.

《즐거운 밤을 함께 보낸 손님 여러분, 우리 서로 여행의 길동무뿐만아니라 강행군길의 동행자가 되기를 약속합니다.》

대위가 성큼 나서며 복금에게 거수경례를 했다.

《난 제대군관동지를 혁명선배로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녀인들의 짐을 거들어 주면서 인사를 나누는데 남편이 부랴부랴 당반우의 가방을 내리었다. 그는 어머니가 싸준 음식꾸레미를 꺼내더니 나에게 내밀며 한쪽 눈을 끔쩍거렸다. 코허리가 시큰해 진 나는 잠자코 꾸레미를 받아 한사코 사양하는 복금의 배낭에 막무가내로 넣어 주었다.

보나마나 녀인들이 길음식인들 변변히 차비해 가지고 다니랴...

복금이가 말렸으나 나는 때를 쓰다싶이하여 바줄로 멜끈을 한 짐짝을 하나 졌다. 두다리가 휘청거렸다. 한때 포탄상자도 썩썩 메나르던 처녀 포수였던 나건만...

무엇이 들었는지 함통은 쇠덩이같이 무겁다. 어깨보다 먼저 마음에 쿵 실려 오는 무게였다.

렬차에서 내려 걸음을 옮기던 나는 무춤해 졌다. 철길에서 얼마간 떨어 진 도로에 간편하게 만든 발구가 있었다. 녀인들은 그 발구에 짐을 실었다. 그들이 앞뒤에서 영차영차 힘을 쓰자 바람에 쓸리고 다져 진 눈길로 발구는 썩썩 미끄러져 갔다. 온통 눈에 덮인 대지의 설경을 배경으로 발구와 함께 내닫는 녀인들의 모습은 마치 광막한 빙설대륙을 정복하려고 나선 탐험가들 같았다.

《뭣 있소. 유명한 남극탐험가들도 찢쳐 먹겠소.》

《신통한 궁냥이요. 팔짱 끼고 주저 앉은 사람 예겐 열린 길도 안 보이고 두팔을 걷고 나선 사람예겐 지름길이 열리거든.》

렬차의 창문마다에서 탄성이 물방으로 쏟아져 나온다. 밖에까지 따라 나왔던 대위가 너인들을 가리키며 부르짖었다.

《저것이 바로 우리 조선너성들의 모습이요.》

차손님들은 너인들이 산굼이로 사라질 때까지 따뜻한 눈길로 배웅해 주었다. 나는 그들을 따라서고 싶은 충동이 북받쳐 올라 이윽도록 도로에서 있었다.

차칸에 들어 오니 남편이 내 안색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어제 밤 미안하게 뻘소. 너무 서운해 하지 마오. 주소를 알았으니 다시 만날 기회가 생기겠지.》

나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너인들을 멀리까지 배래워 준 경식이가 들어오자 무산로친이 물었다.

《발구는 언제 다 만들었수? 이 허허눈판에서...》

그러자 경식은 손세를 써가며 말했다.

《아 글썸 어제 밤 복금아주머니가 나에게 안타까움을 털어 놓더군요.》

<경식동무, 지금 우린 수령을 파내여 바다물을 끌어 들이는 배관공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동무들은 강추위도 무릅쓰고 살을 에이는 물탕속에 들어가 일하고 있을텐데 우리가 어떻게 코앞에서 어물거리겠어요. 우린 공사장의 물을 퍼낼 양수기의 부속품들을 내가 일하던 공장에서 구해가지고 가는 길인데 송전선이 복구될 때까지 기다릴순 없어요.>

나는 도리질을 했지요.

<코앞이라구요? 아 글썸 60리 눈길이 산보길은 아니우다. 이 외진 곳에서 자동차를 구할수도 없는거구.>

<그래서 난 발구를 만들어 보자는거예요. 우린 군대때 차길이 막혀 발구로 포탄을 나른적도 있어요.>

<아 글썸 이 밤중에 발구는 어디서 얻겠어요?>

<자꾸 아 글썸, 아 글썸 하지만 말고 절 좀 도와 주세요.>

그리하여 우린 렬차에서 내려 눈바람이 뽕뽕 부는 캄캄지경을 헤매며 마을을 찾아 났지요. 어느 한 집을 찾아 문을 두드리니 아 글썸 주인령감이 짜증을 내는데 금시 쫓아 버릴 기상이겠지요. 복금아주머니가 차근차근 말하자 그 아바이도 감심한듯 도끼를 찾아 들더군요. 마침 그 집 창고에 소발구감으로 찍어 온 참나무가 몇대 있었지요.

우린 마당에 우등불을 피워 놓고 발구를 만들었수다. 아바이와 내가 자꾸 고개방아를 찧는 복

금아주머니더러 방안에 들어 가 눈을 좀 붙이라고 떠밀었으나 아 글썸 말을 들어야지요. 그런데 한참 일하다 보니 불무지에 나무를 엷어 놓던 복금아주머니가 불결에 곤드라졌는데 아 글썸 머리수건이 흘러 내려 라는것도 모르더군요. 그 양털수건은 결혼할 때 남편이 선사한 기념품이란 말이우다.》

경식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했다. 그의 입에서 늘 튀어 나오는 《아 글썸》가 눈굽에도 맺힌듯했다. 그는 새색시를 돌아 보며 툄툴거렸다.

《동무만 아니라면 나도 그들과 함께 가는건데...》

《당신이 뭐 나하고 의논이나 해봤어요. 괜히 저 혼자 우들령거리면서...》

새색시도 지지 않고 토달거렸다.

그 순간 뽕-하는 기적소리가 산아의 고고성마냥 모두의 청각을 찢터하게 자극했다.

만세!- 전기가 왔다. 오래 걸리겠다고 예상했던 6만선복구를 불과 하루밤사이에 해제졌구나!...

모두 기뻐서 한밤중에 눈바람속에서 남 모르는 위훈을 세운 사람들에게 감사를 드리었다.

나는 한편으로 복금이네 생각에 가슴이 알찌근했다.

경식이도 주먹으로 허공을 내치며 발을 굴렀다.

《아 글썸 복금아주머니 좀더 기다릴게지.》

그 말에 춤까지 덩실덩실 추던 무산로친이 엉거주춤해 졌다.

《아뽕사, 이 늙은게 제 생각만 했군. 이제라도 데려 왔으면...》

《인젠 10리쯤 갔겠는데 늦었수다.》

《참 성미들두... 그저 불 갈당이.》

이윽고 다시 숨 쉬며 살아 난 렬차는 룡마마냥 쾌속으로 달렸다.

나는 차창의 성예를 입김으로 녹이며 유리를 문질렀다. 혹시 너인들이 보이지 않을까 해서였다. 투명해 진 차창으로 아침해살이 비쳐 든다.

높고 낮은 기복을 이룬 구릉들이며 평퍼짐한 밭들이며 포시시 눈가루가 흩날리는 나무들이며 사방 흰눈의 포단에 싸인 대지는 아침해의 반사광에 은빛으로 번쩍거린다. 대지에도 표정이 있다더니 눈 부신 설경이 통채로 해시시 웃는것 같았다.

철길주변의 나무들은 백조자락을 날리며 뻗혀 지나쳐 달리고 저쪽 발뽕기들은 흰 모시주름치마를 걸친채 총총걸음치고 저 멀리 은빛갑옷을 떨쳐 입은 산봉우리들은 위엄스럽게 느릿느릿 물러갔다. 렬차가 넓은 강폭을 가로지른 철다리를 넘어서자 한동안 시야에서 사라졌던 도로가 다시 나타났다. 도로는 마치 헤어져 살수 없는 쌍둥이형제마냥 철길과 의 좋게 나란히 뻗어 갔다.

《아주머니들이 보인다.》

경식이가 소리쳤다. 열차의 창문들이 벌컥벌컥 열리었다.

경사진 언덕길로 발구를 밀고 당기며 올라 가던 녀인들이 손을 흔드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기관사에게 기차를 세우라고 소리를 지르고 싶은 걱정을 가까스로 자제했다. 손님들도 모두 안절부절 못하며 그들을 태우지 못하는것을 안타까와했다.

녀인들은 멀리 떨어 저 이미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승객들과 함께 가고 있는듯 아니 우리모두를 앞장에서 이끌고 가는듯 했다.

한참후에 창밖으로 내밀었던 상반신을 바로 잡은 경식이가 새색시에게 울먹거리며 말했다.

《복금아주머니를 보라구. 그의 부부는 소금발건설이 시작되자 아이들을 할머니에게 맡겨 두고 선참 자진해 나갔댔소. 그런데 청년결사대 시공참모로 일하던 남편은 아 글썽 해일이 들이닥칠 때 터진 제방을 막는 결사전에서 희생되었소. 복금아주머니 그처럼 사랑하던 남편의 뒤편까지 하느라구 저렇게...》

채 맺지 못하는 그의 말은 내 심장을 짹 움켜잡았다.

(그랬었구나. 마음속에 그런 큰 상처를 입고도 홀로 가정의 큰 짐을 짊머지고서도 그처럼 웃고 노래를 불렀구나!)

거인처럼 안겨 오는 복금의 모습!... 그 순간 나에겐 이때껏 도저히 넘지 못할 험산처럼 여겨지던 그 모든 고충과 난관이 보잘것 없이 낮은 고개처럼 느껴 졌다.

(내가 뒤걸음친건 결코 가정탓이 아니다. 의지가 박약한 내탓이야. 난 군복을 벗어도 낭떠러지가 앞을 막을수록 더욱 세차게 폭포치는 물처럼 생활의 흐름을 추동할줄 아는 진짜 군대성격을 간직해야 했다.)

큰 숨을 몰아 쉬던 남편이 내 손을 꼭 잡고 귀속말을 했다.

《나때문에 이 보배손이 가정의 울타리안에서 썩는구만.》

내 눈에 펴고인 눈물이 쭈르르 불을 타고 흘러내렸다. 남편은 어쩔줄 몰라하더니 급히 손수건을 꺼내여 내 손에 쥐여 주었다.

《남들이 보는데 눈물을 닦소. 지금이라도 무대에 다시 서는건 늦지 않소.》

《아니예요. 당신만 동의한다면 전 더 넓은 무대에 나서고 싶어요.》

나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당신 심정은 알만 하오. 소금발건설장엔 손풍금수도 필요할테니까.》

《그럼 당신은?...》

《내 걱정은 마오. 나도 군대식으로 살테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나는 기쁨에 겨워 거듭 되뇌이였다.

그때 경식이와 새색시가 내릴 차비를 했다. 무산로친이 의아해서 눈을 데룩거렸다.

《아니 자네들은 양덕까지 간다더니?》

《우린 소금발건설장으로 첫 나들이를 가기로 했습니다. 휴가를 더 뜻 깊게 보내자는겁니다.》

순간 우리 부부의 눈이 마주쳤다. 서로 묻고 대답하는, 애뜻한 정을 담은 눈길이 오고 갔다.

뿡- 다음 역에 다가들며 기관차는 장쾌하게 기적을 울린다. 열차는 인간사회의 속도이다. 눈보라를 헤쳐 온 열차처럼 우리의 생활을 실은 사회주의도 미래에 달린다. 수많은 복금이들의 정신력이 동력이 되어 줄달음치는 이 《사회주의열차》의 궤도를 따라 우리의 인생도 달린다.

나는 이 궤도에서 탈선될세라 서둘러 손풍금을 메고 일어 섰다. 열차가 멎은후 역 개찰구까지 따라 나온 남편은 집안에서 하던 잔소리군의 버릇대로 이것저것 넘려스럽게 일러 준다. 강변에 아이를 내놓은것처럼. 그러나 지금은 그의 《잔소리》가 조금도 싫지 않았다.

역전에서 얼마 못 가서 큰 길이 나졌다. 우리는 숨을 돌리며 발구를 기다렸다. 눈가루를 일구며 질주해 오던 자동차가 우리앞에서 급제동을 했다. 적재함에서 뛰어 내린 복금이가 어리둥절해 진 우리를 포옹했다.

《용케들 결심했구나.》

발구를 끌고 오는 녀인들을 본 자동차운전사가 그들을 차에 태워 준 모양이다. 뜨거운 심장은 못심장들도 뜨겁게 달구어 주는법이다.

《중대장동지.》

나는 복금의 따뜻한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이젠 날 언니라고 불러.》

《아니예요. 난 계속 군대때처럼 부르겠어요. 언니가 아니라 저의 상관이 되어 주세요.》

우리가 적재함에 오르자 어깨동무하듯 내 목에 한팔을 걸은 복금은 운전사에게 명랑하게 말했다.

《앞서 간 열차를 따라 잡아 보자요.》

자동차는 웃음을 싣고 노래를 싣고 열차와 경주하듯 내달렸다. 아름다운 미래의 바다로 줄기차게 내닫는 생활의 격류를 따라 나는 갔다. 내 사랑-손풍금과 함께.

몇해후 동해바다가에 처음으로 건설된 무연한 소금발을 찾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고난의 행군》의 승리자들이 우리 당 력사에 선물한 시대의 창조물에 《광명성체염소》라는 뜻 깊은 이름을 달아 주시였다.

그 감격의 시각,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웃으며 만세를 부르는 창조자들속에는 복금이기도 경식이네 부부도 나도 함께 있었다.

## 지름길

한창우

내 어린 시절 생각한적 있었더라  
빨간 감 무르익는 가을이 오면  
어머니 손 잡고 외할머니집 갈 때  
고개 넘어 또 넘어 너무도 멀어  
한순간에 가닿는 길은 없을가

그러나 문득  
한굽이라도 질러 가는 길이 나지면  
바위들을 넘어도 좋았더라  
미끄러 저 덩굴어도 좋았더라  
그처럼 누구나 원하리  
힘들어도 숨 차도  
가는 길 에돌지 않기를

허나 세월의 지름길은  
바란다고 곧추 열리는것 아니거니  
우리 다 알았던가  
내가 가고 인민이 가고  
조국이 가야 할 행복의 지름길이  
우리 장군님 앞서 가신 로고의 먼길  
오늘도 가시는 머나먼 전선길을 거쳐  
넓게 열려 진것을

돌이켜 보라  
새 세기의 첫 기슭에서 궁지높이 바라보는  
강성대국의 지름길이  
어떻게 우리앞에 펼쳐 졌던가

가사

눈보라 몰아 치는 깊은 밤  
쪽잠마저 그리운 전선길  
췌기밥으로 끼니를 에우신  
수수천만리 선군령도로  
조국만대 부흥할  
강성대국의 지름길을 열어 가신 장군님

그래서 산악이 막아 서면  
산악을 뚫을겨도 힘겹지 않더라  
그래서 바다가 막아 서면  
바다를 메워도 어렵지 않더라  
고난의 천만리 길을  
곧추 질러 간다는 생각에

군사를 앞세우고  
총대를 앞세워  
불길 만리 폭풍 만리  
불꽃처럼 웃음 날리며 가는 길  
한걸음에 날과 달을 앞지르고  
두걸음에 해와 해를 주름 잡는  
선군령도의 지름길이  
우리앞에 열려 있다!

수령결사옹위의 총검높이  
경애하는 장군님 진두에 모시고  
승리의 지름길로 폭풍쳐 가자!  
온 세계에 앞장서 갈  
강성대국의 그날로-

## 병사의 과녁은

최장수

내 어린 시절에 나무총을 메고  
아버지가 가르쳐 준 미제를 겨눴네  
장군님 주신 총에 총알 채운 병사  
오늘도 그 시절의 과녁을 겨눴네

내 학창시절에 실탄사격에서  
백발백중 명사수의 영예를 떨쳤네

장군님 주신 총에 총알 채운 병사  
오늘도 그 시절의 과녁을 겨눴네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친  
영웅들의 넋을 이은 조선청년이다  
장군님 결사옹위 총을 잡은 병사  
조국의 아들답게 이 한몸 바치리

## 지리산의 메아리

강일주

명산이 불 탄다  
명산이 몸부림친다

조화된 아름다움과 수려함  
부드러움과 장엄함으로  
찾아 오는이들에게  
넓은 세상의 참의미 깨우쳐 주던  
오, 이 나라의 명산 지리산이 불길에 휩싸였다

철화의 광란에 말려  
천왕봉바위는 부르르 떨고  
새봄의 달디단 진을 빨던 참나무  
몽청 허리 잘려 몸부림친다  
굶주린 호랑이한테 쫓기듯  
산양이며 복작노루들은 꼬리를 사린다

변절자의 뒤통무니 물고  
은밀히 기여 든 적 《토벌대》  
어느새 지리산유격대의 비밀장소를 포위했다  
결사전을 각오한 빨찌산들은  
증오와 복수의 총알을 날리고...

그곳엔 10여명의 빨찌산들뿐  
포위한 적은 수백수천을 넘는 대군  
비겁한 놈들의 《용감성》은 하늘에라도 오를듯  
악악 소리 치며 포위망 좁힌다  
하늘엔 비행기까지 띄워 놓고  
빨찌산의 투항을 강요한다  
《너희들은 포위되었다  
살겠으면 투항하라》

마라초 두툼히 말아 입구에 물던  
유격대의 최상아바이  
《작가선생, 저놈들이 지금 뭐라 지껄입니까.》  
그 말에 금이 간 안경을 추슬러 올리던  
우리의 주인공-종군작가 리동규  
쓰겁게 침 뱉으며 한마디 던진다

《승냥이와 구렁이가 마주 붙어 까냥은 새끼들  
그런 놈의 아가리에서 무슨 인간의 소리를...  
개들은 재간껏 짖어 대라 합시다.》

하하하  
허허허...  
사나이들의 절절한 웃음소리  
전호가에 맴도는 마라초의 냄새도 구수하다

땅과 말하는 농군이런듯  
언제나 똥을 모르던 고지식한 사람  
판가리싸움에선 맹수  
짧시간엔 원고지를 펼치던 정열가  
행동과 글로 위훈으로 추동하는 신문주필  
이 순간엔 적진에 던지는 결죽한 욕설로  
빨찌산의 의기를 돋군다

...

지리산 첩첩산악 손아귀에 거머잡고  
험악한 태산준령 평지같이 넘나드네  
...

누군가의 선창에 따라  
용감한 빨찌산들 노래를 부른다  
우리 주인공이 창작한 《지리산빨찌산의 노래》  
지리산하늘가에 울려 퍼진다

그 노래에 질겁한듯  
적진에선 또다시 요란한 총포성  
비행기의 확성기소리 악을 쓰며 대기를 켰다  
《마지막으로 말한다  
투항하라.》

《뭐 투항?!  
하하, <투항>이 뭐 네놈들의  
케케 묵은 류행가의 후렴인가  
에이, 껌끈한 놈들아.》

《...작가 리동규 들으라  
빨찌산의 신문주필 종군작가 리동규  
당신은 비전투원, 서울에도 잘 알려 진 작가  
총을 버리고 내려 오라...  
나를 모르겠는가.》

《?!...》  
금시에 얼어 드는 주인공의 가슴  
저 야수들의 무리속에  
내가 알고 있는 놈도 있단 말인가...

《나 리민  
내옆에 계시는 소좌는  
당신의 부귀영화를 담보한다  
나는 리민, 내려 오라...》

아, 리민 네가 끝내  
얕곳은 운명의 회룡은 아닌가

신음하듯 중얼거리며 입술을 씹는 주인공  
눈앞엔 추억의 갈피 펼쳐 진다  
파란 많은 지난 날의 기억은  
주마등같이 끝없이 떠오른다

×

어느 해였던지  
불우한 인연이 약속된 그날은

봄날의 저녁무렵  
서울장안엔  
시름 많은 하루살이 인생의 찌든 한숨이 무겁고  
사치한 귀부인들은 새날이 이제사 시작이런듯  
요염한 화장에 치마바람 역스럽다  
으스스한 골목엔 런애문단에 취한 사내들이  
녀학생의 단 입술 걸탐스레 빨아 대는 소리

인생이야 어찌 흐르던  
자연은 자연대로 자기 치장이어서  
벗꽃은 진한 향기 토하고  
산천은 봄날다웁게 자기의 노래를 짓는다  
생활의 여유가 있으면  
지는 해 남기는 저 노을에  
시혼을 엿을수도 있으리

자연과 이야기할줄 아는 능력  
시인의 직업적본능은  
이 저녁의 유혹에 시상을 엿으라 귀뜸하건만  
허나 슬프게도...  
감성은 이성보다 앞에 있는것  
굶주린 창자는 설령탕집의 냄새에 끌리고  
구멍 뚫린 빈 주머니는 발길을 잡는다

너는 애 써 고행의 길을 택한 《행복한 종아》  
《돈 키호테》적위안으로 발길 돌리는 주인공  
문득 그의 앞을 막아 서는 처녀 하나  
《저...》  
《뉘신지?》

누렇게 뜬 얼굴에 허름한 치마저고리  
하지만 눈은 새별눈, 자그마한 입술은  
또글또글 영근 소리만을 가득 채운듯

《아니 리숙?》  
《맞아요. 동규오빠.》

그렇다 그 처녀다  
《무학간 거지촌》의 이웃거지집  
《제비꼬리》 별명으로 불리던 처녀애  
치마자락에 숨겨 가져 온 거떡  
얼레달을 만들며 함께 먹던 숙이  
언젠가 본정경찰서에 끌려 갔던 초립동  
《무산자아리랑》을 썼다고 뼈를 비틀리고  
머리에는 뜨거운 골탄 쓰고 쫓겨 나왔을 때

온밤을 눈물속에 함께 지새웠던 리숙이

세월의 흐름속에 몰라 보게 성장한  
봉긋한 처녀의 가슴을 일별하는  
주인공의 겁 먹은듯한 두눈엔 서먹감도 섞이고  
부끄럼 많은 처녀는 고개 숙이고 섰다

갈림길 많은 생활이라 헤어진지도 수삼년  
어느 지방의 방직공장에 끌려 갔다던 숙이  
그리운 정 사무친 정에 끌려  
공원의자에 앉아 해후를 나누느라 시간을 잊는다

듣고 보니 모르고 있기보다 더 가슴 아픈 일  
인력거를 끌던 숙이 아버지  
그대로 길우에 쓰러진채 세상을 떠났고  
막내를 업고 친정에 갔던 어머니는  
지주놈의 겁탈에 항거하여 자살하고  
너동생과 함께 방직공장에 갔던 숙이는  
로동조합에 들었다 하여 쫓겨 났단다...

《...그래 지금은 어디서 일하오. 거처는?...》  
《사촌오빠와 함께 세방을 얻었지요  
일본 가 고학을 하던 오빠  
지금은 서울에서 창작을 하고 있어요.》  
《창작?!》  
《네. 울 오빠 저... 거길... 동규오빠 알아요.》  
《나를? ... 이름이 뭘데...》  
《리민이라구...》  
《아 리민, 얼굴 본적은 없어도  
작품은 몇편 읽었댔소.》  
《우리 오빠도 동규오빠 쓰신 글 읽었대요.  
만나봤으면 해요. 저도 펴... 보고 싶었어요.》  
《고맙소 리숙이!》  
이렇게 하여  
리민과의 기구한 인연을 맺은 우리 주인공

만나고 보니 리민, 그는 영민한 사람  
타고난 예리한 관찰력과 풍부한 상상력  
새로운 요소를 도입하여 생활을  
보다 높은 곳으로 끌어 올리려는 지향도 크다  
다만 변화 많은 시세에 대한 지나친 관심  
때때로 주인공을 불안케 했지만...  
하지만 세상에 완성된 사람은 없는법

두사람의 접촉은 다정한 문우관계로 상승하고  
사려 깊은 리숙의 두눈엔  
날 몰래 피워 올리는 사랑의 불길의 타오르고

로동녀성이지만  
너성답게 부드럽고 속기 빠르고  
고되인 로동에도 주점이 들지 않는 숙이  
주인공의 심신에 깊이 새겨 든다



어느 날 속이 차려 올린 소박한 주안상 마주하고  
리민과 무릎을 맞댄 주인공  
권커니 작커니 두루의 이야기끝에  
그에게 《카프》가입을 권한다

《<카프>에?… 난 싫소  
글쎄 문학의 <운동권>도 무익한건 아니지  
하지만… 문학이란 <합동품>은 아니니  
난 <개인능>, 혼자 수격수격 쓰려오.》  
랭정한 리민의 목소리는  
머나먼 세상밖 그 어데서 들려 오는듯  
아연해 진 주인공 진심 다해 리민을 혼든다

《잘 생각해 보게.  
한가치의 불은 부엌에서도 죽지만  
여러가치에 불은 불은 들판에서도 타오르는법.》  
《그거야 자연리치, 하지만 창작이라는  
신비의 로동에는 여럿이라는게 중요한건 아니지  
…물론 나도 <카프>의 리념은 반대하지 않소.  
생활에 허무와 절망을 주입하고  
비애와 죽음을 레찬하는 글  
추잡한 남녀관계에 열을 올리는  
너절한 창작조류는 반대하오. 경멸하오.  
그러나…》  
《그러니 리민 당신의 경향은?!…》  
《허 글쎄…  
생활에 충실하는 그것이 나의 경향  
생활은 넓고도 깊디깊은 <대양>  
난 그 <대양>의 밑바닥을 뒤흔드는 <잠수부>.》

제나름의 지론에 취하고  
쓰디쓴 술에 취한 리민  
그럴수록 영민한 눈은 더욱 광채를 뿌린다

《동규군, 우리끼리니 말이지만  
놈들은 <카프>를 나쁘게 보는것 같아.  
언질이 없어 안달치는 놈들…》  
《그러니 겁이 난단 말인가?》  
《허… 작가도 작가이기전에 인간  
나도 인간인 까닭에 인간의 지향이 있지  
사람들을 위하는 착한 일 많이 하여  
세상에 좋은 자옥 남기려는것  
말하자면 훌륭한 인간이 되려는 지향  
그리고 사람답게 잘 먹고 입고 쓰고 살고픈  
말하자면 훌륭하게, 잘 살려는 지향  
…인간인 까닭에 이 두가지 지향은…》  
《그러니 자넨 그 지향을 얼마나 성취했나  
이 세상에서 과연 그 두가지 지향  
다 성취할수 있을가.》  
《노력해야지. 원하는 자 성취할수 있는법.》  
《안될 소리… 돈을 위해선 량심을 팔고  
량심을 지키자면 굶주려야 하는 세상  
자넨 자신을 속이고 있네. 정신 차리게 리민.》

악정밑에선 백성도 악이 있어야 살수 있는것》  
《어 소름 끼치는 말 그만 두고  
술이나 마십세, 술이나…》

리민의 너두리 역겨운 지론 방안에 가뒹 두고  
밤길을 걷는 우리 주인공  
명암이 뚜렷치 않은 생각의 덩이를 구울린다

작가도 인간, 하지만 인간이되  
현실을 용납하지 않고 또 그에 굴하지 않고  
불공평한 세월의 본질을 파헤치는 사람  
그 세상이 안타깝고 저주로와 몸부림치며  
자신의 욕구를 뒤에 놓고 번민하는  
열정의 인간이다

작가는 작가다워야 하리  
생활전체를 아름답게 안고  
걱정을 터뜨리고 번개의 섬광 일으키고  
심각히 고뇌하고 사색하여  
민중의 참된 길동무가 되어야 하리  
자기의 가난전에 세상의 가난에 울고 분노하며  
민중이 찾아 읽는 글을 써야 하리

그렇다면 리민의 재능과 영민성은?  
피가 없는 손끝재간  
갑속에 몸을 숨긴 자의 요술은 아닌지

한쪽에선 《대동단결》 부르짖고  
한쪽에선 속된 묘사의 매혹을 제창하고  
리민은 《살기》를 원하고…  
최고의 지성으로 세상을 심판하는 문단이  
이처럼 안타까울줄이야…

오, 불행한 문단이며  
왜놈에게 나라를 빼앗긴것만도 심장이 터지는데  
문인은 왜 끼리끼리인가  
단순한 리치도 깨닫지 못하는 문단이다

몽치자 무산아동들아  
하나로 몽치자 가난에 우는 아이들아  
소년잡지 《별나라》 《신소년》… 모두 읽자꾸나  
뻗긴 나라 봄이 없는 이 나라에도  
그 언젠가는 밝은 해님 빛날것이니

시인의 열정 넘친 사색은 깊어만 진다  
쏟아 지는 글은 생활의 피 끓는 노래

우리들의 노래는 피 끓는 노래  
주먹을 쥐게 하고 이 갈게 한다  
동무들아 부르자 힘찬 이 노래  
미래는 우리의것 우리들세상

등잔불심지에 열정 태우며

고역에 잇닿은 참작의 순간  
동 터오는 려명을 마주할 때면  
심신에는 새힘이 그득하다  
금시에 밝은 세상 손끝에 닿을듯

하지만 희망하는 세월은 아직 멀고  
《무소불위》의 철쇄가 가깝다  
인간보존의 지향을 마구 짓밟는 세월  
《카프》가 눈에 든 가시였으니

감옥의 철문이  
《카프》며 우리 주인공이며  
육체며 정신이며 악 쓰며 빨아 처넣고 닫긴다  
오 결박 당한 문학이여  
결박 당한 인간의 정신이여!  
...

정신을 토해 뱉으라는 악착한 고문  
감방에 득실거리는 이와 빈대  
던져 주는 보리밥엔 돌맹이가 굴린다  
넋이 연약하다면 열백번도 죽었을 고통  
허나 작가의 정신이란 강한것  
별경계 달아 오른 쇠꼬챙이 살을 해집을 때  
마음속 곧추 세우는 붓은 더욱 날카롭다

지성을 꺾기엔 채찍이란 너무 가냘픈것  
그걸 알았는지 원썬놈들 이번엔  
고문실이 아닌 다담상에 끌어 낸다  
마주 앉은 놈은 고문대의 흉악한 형리대신  
넥타이까지 맨 꽤 깨끗한 《신사》

《자 앉으시오. 나도 젊었을 땐  
문학바람에 밀려 다니던 사람  
말하자면 동업자인셈  
참 <동업>이란 친애미도 아닌데  
이렇게 사람들을 <가깝게> 만든다니까.》  
안경을 벗으며 징글스레 웃는 놈  
쏟아 놓는 수작질은 더욱 역겹다

《...그러니 허물 말고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그래 동규군은 문학의 목적을  
어떻게 리해하고 있는지.》  
그 더러운 아가리로  
신성한, 더없이 신성한 문학의 목적을 론한다  
이것은 정녕 놀라운 일, 놀랄울수밖에 없는 일  
쓰겁게 웃음 짓는 우리의 주인공

《...굳이 나의 견해 묻는다면... 난 단순하오  
자라나는 아동들의 평등한 행복이 소원이요  
그래서 행복을 짓밟는 사회에 맞서  
하나로 뭉쳐 싸우자라고 쓰지요.》

《흐흐. 아동의 평등한 행복?...

당신은 공상가군요.  
평등한 행복이란 결코 있을수 없는거요.》  
《아니요. 결코 공상이 아니요.  
법이 공정하고 자유로우면  
평등한 행복은 가능한거요.》

《당신은 돈 키호테처럼 말하누만  
<인문과학의 목적은 공정한 법을 제정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권리를 주며 그 법을  
만인이 준수하도록> 하는것이라고 했지요...  
그러니 당신은... 일본에 예측된 이 나라에서  
그리고 어른들이 행복하지 못한데 아동들만?...  
과연 평등한 행복이 있을수 있을까요...》

원썬놈의 떠벌임에  
가슴속에 채웠던 저주의 말은 점점 탄력을 잃고  
심장은 집계에 잡힌듯 아파 난다  
창작의 순간이면 때없이 괴롭히던 생각  
성인들의 무지와 자각 못된 순종  
《주의》를 떠들며 저들끼리인 어른들  
이 세월에 과연 아동들의 자각과 단합은?...

《...인간생활의 교사인 작가  
그는 우선 명백하고 확고한 견해를 가져야지요  
정치, 사회, 룰리에 대한 자기 견해  
그것이 있어야 글을 쓰지요  
뚜렷한 <슬로칸>이 없는 당신들은...》  
《조롱하지 마시오.》  
《성내지 마시오. 이 순간에도  
앞을 내다볼줄 아는 작가들은  
카페나 극장에서 인생의 락을 즐기고 있지요.》  
《그들은 매문가, 옛 시인이 말했지요.  
<부귀영화는 고상한 사람에게 태워야 하고  
글재주는 바른 사람이 가져야 하느니>  
참된 지성은 안락을 목적인건 아니요.》

애 씨 놈의 말 부정하나  
《패전》을 인정하는 마음속의 속삭임  
허바닥은 타들듯 마르고  
두눈에 지켰던 불길은 생기를 잃는다  
...

그날 밤은 음산한 밤  
철창너머 아득한 하늘에는  
구름의 희롱에 감긴 달이 애처롭고  
흩어 진 걸레처럼 마구 불어 치는 바람은  
감방의 마지막온기마저 빼앗아 가고

그 밤은 피로운 밤, 궁지롭던 지난 날이  
부정되고  
성스럽던 로동이 부끄럽다  
타매와 환멸, 저주와 분노만이 가득찬 밤

빈한한 로력대중의 아동들에 대한 가냘픈 동정  
부정의와 악에 맞서 싸우라는 웨침은  
과연 어느만큼 현실성 있는 것이었던가

하다면...  
아동문학으로, 운문으로 과연  
뒤엎킨 모순의 세상 얼마큼 표현하리  
보다 적극적인 소설, 희곡에로의 지향은  
왜 없었던가

그 밤은 정녕 피로운 밤  
강태 앓은 내부의 자신 가차없이 끄집어 내  
타매의 불길에 던져 태우는 밤  
세상에 절실한 작품창작의 욕구  
불길처럼 활활 타올랐으니  
그 밤은 정녕 피로운 밤만이 아니었으리

그 피로움의 열매는  
완강한 충격적힘의 분출  
그 힘 있어 고문, 회유기만을 이겼고  
재능의 자연스러운 발전행정은 촉진되었거니  
운문으로부터 산문으로  
아동문학으로부터 성인문학에로의 이행을  
결심했다

우리 주인공의 3년 6개월의 옥중생활은  
안면 있는 낯 선 작가의 출생  
작가의 경력에 큰 자욱을 남긴 나날이었다  
...

감옥문을 나선 우리 주인공  
공장파 농촌, 어촌으로  
고통의 근로로 모순된 세상을 살 찌우는  
세상존재를 규정 짓는 로력자를 찾는다

찾으니 시야에 안겨 드는 어지러운 명암  
청각을 때리는 불협화음  
너공은 채찍에 청춘과 생명을 뺏기고  
농부는 하염없이 가난을 심고 가꾼다  
장마당엔 온갖 악이 부글부글 피여 끓는다

허구, 환상없이도 생활은 그대로 소설  
사로잡는 《빠포스》에 전몰하며  
고인 피 뚝뚝 찍어 붓을 달린다  
《우박》, 《어느 한 로인의 죽음》  
《너공》, 《여름》, 《공장방문기》...

작품은 어지러운 세상복판에 떨어 지는 폭탄  
가난에 짓밟힌 빈자들이여 책을 읽으라  
불행의 원인, 숙이고 때리는 세상리치  
깨닫고는 주먹도 불끈 쥐리

그렇다 소설은 암흑을 태우는 해불

작가는 민중계몽의 기수  
자부하는 영예도 크다  
창작순간의 고통은 행복이다  
하지만 아서라 작가여  
작가의 참행복은 아직도 멀리에 있는것

가을날 저녁 주인공을 찾아 온 리숙이  
두눈은 퉁퉁 붓고  
목소리는 너무 울어 듣기에도 애처롭다

《...옥이가, 동생 옥이가 죽었어요.》  
《뭐 옥이가?!...》  
《...폐병에 걸려 가지고도... 제사공장엘...  
머칠밤을 꼬박 기대에 잡혔어요  
...먹는건 대두박, 약 한첩 못 써봤어요  
기대옆에서 피를 토하곤... 아... 영영...  
이 세상에 나 홀로 남겨 두고  
아빠, 엄마도... 동생마저도 다... 아, 오빠...》  
얼굴을 싸진 손갈피짚으론 고통 같은 진한 눈물  
짓씹어 삼키는 오열은 이 나라의 절통한 만가  
가슴 터지는 불행 참울수 없어  
벌떡 일어 나 떠창문 열어 제끼는 주인공

밝은 기승스러운 마가울의 찬바람  
아무 미련 없이 바람을 붙잡는 나무잎  
지겨운 세상살이떠남이 무삼 기쁜듯  
고패치며 저 멀리 어둠속에 사라진다  
우리르니 하늘에는 싸늘한 그믐달  
어두운 구름장은 어지러운 꼬리 끌며 내닫고  
어데선가 들려 오는 주정뱅이의 노래소리  
죽어 가는 이 세상의 마지막음향이런듯...

《...옥인 저한테 이 돈을... 남겼어요  
책을 좋아 하는 이 언니에게... 보탬하라고...  
아, 그 돈으로 약이라도 한첩...  
그렇게 좋아 하던 수수지짐 한점이라도  
사먹고 갔더라면 이다지는...  
오빠 말씀해 줘요. 오빠 쓰신 글  
그래... 몇이나 사읽을수 있을가요, 네?》  
《?!...》

《오빠 우리를 동정하죠  
하지만 굶주린 사람에게 밥그릇을 내주는것보다  
더 현실적인 동정 뭐가 있어요  
...밥그릇을 빼앗는 세상 이 세상이 없어야 해요  
듣자니 작가는 인류의 량심, 정의의 수호자  
그렇다면 오빠, 이 세상 부실 방도 밝히세요  
그 싸움의 앞장에 서주세요  
그런 길 걷는 오빠 따라 난 끝까지 가요...》

리옥의 죽음, 숙이와의 접촉은  
작가의 또 한단 높은 성장을 재촉하거니  
더러운 세상 향해  
돌맹이 하나 못 던졌던 겁쟁이

자신은 매미처럼 숨어  
항거하라, 투쟁하라 웨쳤던 지난 날이 가소롭다  
량심의 설교자, 가난의 동정자  
그런 자의 글의 생명력은 얼마...

타매가 클수록 훌륭한 결심 더욱 굳다  
참다운 작가 그는 곧 한편의 작품  
가장 훌륭한 설교는 행동의 모범  
도탄속에 허덕이는 민중 위해  
단연코 팔 걷고 전구에 나서리  
이 몸을 초물처럼 태워 어둠에 맞서리  
투쟁의 피로 적신 붓으로 글을 쓰리라  
가슴 쪽 펴고  
추악한 세상 쏘아 보며 우뚝 선 그  
심장에 뛰는 복수의 피  
두눈에는 무서운 번개가 병긋거린다

작가의 열정은 한번 타오르면 끝수 없는것  
시위와 폭동, 비밀결사, 청년야학...  
빳장 깊은 악정의 대문예  
단연 돌맹이를 던지는 주인공

피땀을 짜는 고역  
투쟁의 거리를 뛰어 다니는 낮을 보내면  
밤은 밤대로 투쟁  
검질긴 추격과 체포령 피하여  
뼈라를 쓰고 붙이고 째이 생기면 창작...

생활이 곧 투쟁  
하여 《리동규 그는  
투쟁의 거리를 뛰어 다니는 투쟁의 작가》

사회가 주는 값 높은 칭호  
이제는 창작순간이 작가 혼자만이 아니다  
그의 령혼속엔 작가와  
요구성 높은 독자, 시대를 굽어 보는 평론가  
언제나 함께 있다

《카프》가 해산되어도 붓은 달린다  
파렴치한 원쑤들의 위협  
원고삭제와 압수, 외국수정...  
그럴수록 정신은 더욱 강하다

원쑤여, 더욱 날뛰라  
기어이 싸워 이기리라  
압박의 도수가 세질수록  
반항은 더욱 거세여 지는법

눈에 쌍심지를 켜든 원쑤놈들  
또다시 작가를 철창속에...  
못판에 굴리고 거꾸로 달아 매고...  
육체에 줄수 있는 고통이란 고통 다 준후엔  
또다시 판에 박은 굴종을 강요하고

놈들의 개지랄은 무섭지 않다  
하나 홀어 지고 붓을 꺾는 문단의 사태  
감옥을 찾아 온 리민의 설교는  
더더욱 가슴을 찢는다

《동규군, 숙이와 자녀사이도 범상친 않으니  
문우겸 혈육겸 진심 다해 말하네...  
글 쓰는것으로도 모자라 싸움판이요?》  
《불의와는 타협할수 없고 굴할수 없는 그것이  
작가의 기질, 현실이 날 싸움터에 부른거요.》  
《그러지 말고 숙이와 성례나 치르고  
우리 함께 깊은 산속에 들어 갑시다  
이것 보게, 강원도 두메로 들어 가신  
박선생님이 보내신거네  
소금 한말 지고 우릴 오라네. 때를 기다리자네  
...<지장이 붙여 복장이라>  
우린 복을 타고 나지 못한 운명  
자고로 천재가 세월을 낚는건 아니지  
세월이 천재를 낚는법  
동규군의 몸부림이 있어 세상이 달라 질건 없네  
또 작가란 정치인도 투사도 아니네  
고지능 고창조의 두뇌로  
인간의 정신을 향상시키면 그만  
그러니 두메에서 강호문학이나 하면서  
때를 기다리세, 응?》

《리민, 그건 현실도피  
문학의 참의미를 거부하는것  
현실은 오직 두 길뿐 투쟁 아니면 굴종  
민중은, 생활은 우리의 도피를 용서 안할거요  
우선 리숙이부터 용서 안할거요.》

《얼마전부터 공장합숙에 아예 나간 숙이  
듣자니 그도 무슨 운동권에서 뛰어 다닌다는데...  
난 그 애도 자네도 구원하고 싶네.》  
《아니, 구원 받아야 할것은 바로 자네  
작가는 못될망정 참백성은 되여야잖소  
신음하는 동포를 외면하고 산속에?...》

《후... 그러니 어쩐단 말인가  
나라를 뺏긴 <렐등민족>의 몸부림  
그것은 우연히 일어 나는 작은 산불  
내 말을 막지 말게  
굳이 감옥행을 고집하는게 현자의 길일까  
문단에 쟁쟁한 저 렬상섭, 김동인...》  
《닥치오. 그따위 너절한 추물들이  
재능아, 현대인이라는 소리겠지  
당신은... 정말 무섭게 변했소, 무섭게.》  
...

리민을 보내고 호올로 감방에 앉으니  
그의 변질보다 더욱 가슴 아픈것

《우연한 산불》이라 일컬은 우리의 투쟁  
분하게도 그 말은 사실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소작료를 낮추라 일어 서고  
인간이하의 멸시에 항의하고...  
하건만 투쟁은 번마다 처절한 실패  
강토 삼천리는 피바다, 삼천리가 그대로 감옥  
신심 잃은 사람들 뿔뿔이 흩어 지고  
의지 박약하여 굴복하는 자의 크악한 수치심은  
《우연한 산불》에 말려 든결 저주한다

연약한 몸부림, 거슬린 감정의 자연폭발  
그것으로는 안될 일  
가난을 송두리채 들어 내자  
일제놈 쫓아 내고 뺏긴 나라 되찾자  
어벌이 큰 결사전을 벌려야 하리  
동포모두가 하나로 뭉쳐 싸워야 하리

허나 이끌어 줄 위인은 어데  
명백한 지도리님은 무엇  
오, 피롭다 라침판이 없는 배  
등대 없는 대양을 표류하는 배  
배는 이제 더 어디로...  
주먹으로 광 광 가슴을 치고  
지끈지끈 깨져라 머리를 벽에 쫓는다

허나 작가여 무산자여 조선민족이여  
탄식 말라 희망을 안으라

보천보의 밤하늘을 태운 불길  
삼천리 내 나라의 어둠을 밀어 던진다  
두터운 감방벽 뚫고 날아 온 소식  
아버이 **김일성** 장군님 우리에게 계신다!

철성판에 오른 이 나라 건지시려  
정의의 보검 높이 드신 우리 장군님  
민족이 구세주, 아버이를 모시었으니  
오, 조선은 살았다  
감방벽 두드리며 울며 웃는  
주인공의 가슴 행복으로 마냥 부른다  
...

민심이 천심이라 백성의 소원 하늘에 닿았는가  
하늘이 내신 우리의 **김일성** 장군님  
드디어 압제의 쇄사슬 끊으시고  
해방의 새날을 안아 오셨다

만세 만세 해방 만세!  
만세 만세 자유 만세!  
거리를 메우며 흐르는 사람들의 물결  
소작료난가리에 깔렸던 농부  
채찍에 살점 뜯기던 너공

풀뿌리에 매달려 시들어 가던 아동  
모두가 거리에 펼쳐 나섰다  
움츠렸던 가슴 보란듯 쪽 펴고  
목청껏 두팔 흔들며 만세!  
《민족의 영웅 **김일성** 장군 만세!》

해방은 작가의 붓끝에 먼저 찾아 왔는가  
안해 숙이와 함께 거리를 헤치며  
경모하는 장군님께 향한 민중의 감사의 정  
심장으로 체험하며 사색을 무르익힌다  
수난에 빠진 이 겨레 건지시려  
우리 아버지 장장 헤쳐 오신 수천수만리  
힘준하고 거룩한 그 자욱자욱마다에  
삼가 서사시의 다발을 엮고 싶은 마음 불 같다

《우리의 노래》  
희곡 《태양을 기다리는 사람들》  
《새벽의 노래》...

할 일이 많고 써야 할것이 많은 세월  
마음속엔 시름 한점 없어  
흐르는 시간이 보배같고  
한초를 쪼개 쓰고 싶은 조급한 행복도 크다  
오, 그 화창한 봄날은  
정녕 한찰나의 유혹이었던가  
해방의 열기에 열음을 덜으며  
이 땅을 짓밟는 아메리카의 피 묻은 군화  
해방된 땅에 또 무슨 《해방자》란 말인가

백골이 락인된 《군정》  
바야흐로 새날 밝던 이 땅에 장막을 덮는다  
해방만세소리는 감옥에 끌려 가고  
행복을 노래하던 레코드판은 산산조각...

풍만한 새 생활이 약속하는  
훌륭한 《다수확》을 확신했던 주인공의 붓  
이제 다시 천근만근 무거워 진다  
붓끝에는 온 우주가 다 매달린듯...

통란할 현실 뼈 아픈 실망  
오 도대체 조선은 해방을 맞았는가  
아니면 그것은 여름밤의 짧은 꿈이었던가

아니다  
저기 북녘은 밝은 해빛  
경애하는 장군님의 품속에서  
인민이 허리를 펴고 사는 세상  
자유론 인간찬가 넘치는 세상

밝은색으로 채색된 북녘땅  
들려 오는 전설 같은 이야기  
드디어 우리 주인공 암흑의 땅 결별하고  
경애하는 그이 품에 안길

거대한 행운의 결심 굳게 다진다...

안기고 보니... 세상은 희한한 세상  
동편에 솟은 해 서편에 질 때까지  
저녁에 솟은 별 새벽에 여물 때까지  
천지는 온통으로 새삶의 노래  
새벽의 고요한 음향 대지에 퍼지면  
집집의 문 옷음에 떠밀려 열리고  
기운찬 수탉들의 나팔소리에  
전야에 나가는 황소 우렁찬 영각으로 화답한다  
이슬에 목 적신 고운 새들은  
밤 새워 애 써 지은 새 노래를 읊조린다  
초목도 금수도 바위마저도  
저마끔 저들대로 흥스러운 음향  
천지는 그 어디나 탄생의 노래

노래는 빛을 주고 열을 주는  
은혜로운 태양을 우러르는 찬가  
천만사람이 전하는  
전설 같은 사랑의 이야기는 강산에 넘친다

그 사랑 그 해빛 한번 닿으면  
이름 석자 못 가졌던 《김애기》  
복 많이 잘 살라 《김복순》으로 다시 태어나고  
한생 머슴으로 허리 굽은 로인  
들썩 추녀 높은 지주집의 주인이 되고  
하늘구경 못해 본 인력거군은  
대지복판을 달리는 기관차를 끌고  
코흘리개의 푼전도 깎아 내리던 가게방주인  
길손들 불러 들어 혼연스레 이것저것 권한다

《...허 여러분네들, 이 연필 보시우다  
우리 나라에서 만든 <삼천리>연필  
내 린색한 사람이라 여러분의 눈총도 받았지만  
허 이제 달라 졌으니 마음껏 가져 가시우  
자식들에게두 주고... 여러분네도 까막눈 뜨자면  
이 연필 있어야 하니 어서 골라 잡으시우.》

《린색한》의 후한 선심, 구수한 이야기솜씨  
들려 주는 그 다음의 이야기  
또 얼마나 놀라운가

《...언젠가 이 찌그러 진 가게에  
너인 한분 들어 오셨소  
너인이 들어 서시자 웬걸  
침침한 방안이 온통 환해 지겠지  
...살아 가는 형편이랑 가게일이랑  
두루 물으시는 너인의 부드러운 음성  
상냥한 미소!...  
글쎄 여러분 그분이 누구신지 아시오?  
백두산의 녀장수라 소문이 자자한 그분이었소...  
너사께서는 물으시었소  
<주인님, 연필은 있습니까?>

<네 몇자루밖엔...  
우리 나라 연필이 없다 보니...?  
<...그럴테지요. 장군님께서 걱정이 크십니다.>  
아니 우리 장군님께서  
새 나라 세우시느라 바쁘신 장군님께서  
코흘리개들의 연필까지 크게 걱정하시다니...  
아둔한 이 골통 아무리 췌짜봐야  
그 높으신 뜻 어찌 짐작이나 할수 있었겠소  
...너사께서 다녀 가신 뒤  
파연 얼마 안되어 이 연필이 나왔구려  
글쎄 우리 인민정권이,  
새 나라 정권의 첫 회의에서 여러분  
이 연필문제를 맨 선참 토의했다오...》

연필! 인민정권의 첫날 의정에 오른 연필!  
그렇다 연필은 문명  
문명을 새 나라의 첫째로 내세워 주시는 분  
정녕 경애하는 장군님은  
연필로 새 나라의 첫 걸음 이끄시질 않는가

대대로 물려 오는 무지와 몽매에  
단연 종지부를 찍으신분  
오 정녕 그이는 인간의 육체와 정신  
그모두를 해방시켜 주신 자애 깊은 은인

가게방주인의 이야기 품고  
또다시 새롭게 세상을 둘러 보니  
짓눌렸던 인민의 정신적본능  
전대미문의 속도로 풍부해 지고  
활기론 생활속에는  
시간 다르게 새 언어가 첨부되는 세상

이 세상에서 문학과 새롭게  
학문의 《제1과》부터 다시 배우고픈 욕망  
위대한 스승의 가르치심이 간절한 소원  
아 **김일성** 장군님을 만나뵈웠으면!...

자나깨나 뵈고 싶은 욕망  
그런중에도 문득 아서라 무엄한 생각  
**김일성** 장군님은 바쁘신분  
해방성업에 소금 한줌 바친것 없는 너  
아서라 문단에 변변한 작품 하나 남기지 못한  
보잘것 없는 초라인생이 무엄하게도 감히...

그럴수록 욕망은 더더욱 어방 없고  
행운에 대한 기대는 커가고...

오 우리의 태양은  
온 누리를 다 안고 계시다  
이름 없는 작가의 마음속 소원  
헤아려 시간을 내시는 **김일성** 장군님

꿈은, 정녕 꿈은 아닌가

심지부터 괴롭히던 곡절 많은 생은 사라지고  
마음은 동계동계 구름우에 뜬다  
행복의 무아경에 세상은 온통 해빛  
어떻게 그이께 삼가 절을 올렸는지...  
태양의 미소는 눈 부시다  
안기니 그 품은 넓고 넓은 대양

《어서 일어들 서십시오  
우리를 찾아 38도선을 넘어 온  
동무들의 애국적소행을 환영합니다.》

우렁하신 음성 이끌려 삼가 머리를 드니  
천만 대적 위락파락하시던 청년장군  
안광엔 천재의 분식 없는 지혜가 번뜩이고  
너그러운 미소에는 진심만이 넘친다

《장군님... 그 힘만 만주광야  
박달나무를 열구는 추위속에서  
얼마나...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고생이야 조선사람들 다 겪었지요.  
산에서 드문히 동무들의 이야기랑 들었습니다  
국내공작원들이 가져 온 동무들의 작품도 읽고...  
우리 인민이 당하는 고통과 설음  
그리고 그속에서 몸부림치는 작가들의 고충  
작품속에서 읽을수 있었습니다.》

오, 놀랍다 민족의 운명 건 결사전의 나날  
무명시인들의 글까지 읽으시다니  
미숙한 작품에서 인민의 생활 절감하시고  
작가의 창작적고충까지 헤아려 주시다니

그 말씀에 심신을 죄였던 불행과 고통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고진감래》라 그 뜻이 새삼스럽다  
문학과 자신을 이 순간에 다 구원 받는  
인생의 위대한 전환을 예감한다

《장군님, 가르쳐 주십시오  
해방된 오늘 문학은, 작가는  
어떤 길로 나가야 합니까!》

《...》  
잠시 생각에 잠기시여  
방안의 해살 이끌고 거니시는 장군님  
이윽하여 창문을 여시고  
활기 넘친 거리를 굽어 보신다

밖은 한창 질어 가는 봄  
푸르른 가로수있세  
태양의 애무에 한껏 기운을 돋우고  
곱게 단장한 제비는 자유의 창공을 날으고

뎡-뎡- 종소리 울리는 전차

새 생활에 흥이 난 사람들로 바쁘다  
억세인 창조의 음향은  
승엄한 방안에 깃을 접는다

《...우리는 초행길을 제 힘으로  
걸어 가야 합니다. 모든걸 제 힘으로!  
문화도 제 힘으로 자기의것을 건설해야 합니다.  
우리의 고유한 민족문화를 말입니다.  
...정치도 문학도 인민대중속에 들어 가는것  
이것이 나의 철학, 우리의 주장입니다.》

오, 정치도 문학도 인민속에!  
동서고금의 철학사, 문학사  
그 어느 폐지에서도 읽을수 없었던 금언  
짧은 그 말씀속에  
얼마나 위대한 사상이 집약되어 있는것이라  
그 얼마나 거룩한 사랑이 소용돌이치는것이나

나라 없고 이끌어 줄 위인 만나지 못해  
진창길 여기저기 덩굴며  
참다운 미학관 찾아 헤매온 쓰디쓴 한생  
위대한 은사 자재로운 스승 만나니  
순간에 인민과 문학, 인민과 작가 하나되고  
문학의 목적, 작가의 로력 뚜렷하다

《...대중속에 들어 가십시오.  
그들에게서 배우기도 하고  
생활의 진리를 가르쳐도 주시오  
당신들은 새 사회건설에서  
선도자, 고무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손으로 꿈을 정도의 작가, 예술인밖에 없습니다  
동무들에 대한 기대가 큼니다.》

하시는 말씀 한마디한마디는  
세상 처음 듣는 명언  
선도자, 고무자!  
대성인의 한량 없는 믿음과 신임

진정 새롭게 깨달으니  
아버이 없는 자식없듯이  
조국이 없는 문학과 작가 있을수 없고  
수령을 모시지 못한 조국도 있을수 없는것

(오, 리민, 자네가 이 영광된 자리에  
함께 있었더라면...)  
해방열에 뒀던 그, 미군정의 폭압에  
모든것을 체념한채 서울거리를 헤매고  
북에 함께 가자는 동료들의 권고는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아름 벅찬 행복이 커갈수록  
이 순간도 탁류속을 방황하는 리민네들이

가슴을 아프게 찌르는데

우리 장군님 그들의 등 떠미시여  
연회석에 세워 주신다  
이런 인사불성...  
미처 감사의 인사도 못 올렸는데  
죄 많은 이 몸들을...

죄책감에 속은 까맣게 타들고  
부끄러움에 얼굴 들수 없는데  
해빛 같은 미소 지으신 장군님  
순수 술잔까지 부어 주신다  
걱정은 끝내 터져  
삼가 높이 든 술잔은 펴리고  
두눈엔 뜨거운 눈물이 고인다

《...그러지들 마시고 자, 어서 들시다.  
동규동무에게는 수수지집을 덧놓았으니  
그것부터 들어 주시오.》

(수수지집!!)  
번개 같은것이 번뜩 지나고  
(...아니, 그럴수 없지... 그 일까지 어떻게...)

《...동무의 처제될 처녀가 모진 아픔속에서도  
...그처럼 좋아 하던 수수지집 한그릇 안 사먹고  
언니를 위해 혼전을 남기고... 숨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린  
온밤 잠들수 없었습니다...  
언니를 위하는 가혹한 정성  
생명보다 책을, 문명을 생각하는 고결한 마음...  
얼마나 훌륭한 조선녀성들입니까  
제일 행복해야 할  
우리 녀성들이 왜놈때문에...  
정말 분한 일입니다...  
참 식사를 앞에 놓고 이야기관을 벌렸습니다.  
자, 들시다. 동규동무도 어서...》

으흐흑... 그만이야 폭을 터치는 눈물, 눈물  
아, 장군님 우리의 은인  
민족의 어버이이시여!

삼천만 동포 모두 겪는  
만난불행과 슬픔 다 안으신  
오, 우리 장군님의 마음 얼마나 아프셨으랴  
항일의 혈전만리  
저 아픈 마음 안으신채 홀려 왔으니

그이는 정녕 인민을 위해 태어나신분  
감각이며 감정이며 이성이며  
활동이며 목적이며 소원이며  
자신의 전부를 인민을 위해 바치시는분

뒤돌아 보니  
인류와 함께 흘러 온 수수천년의 문학사  
제나름의 악에 대한 선의 승리를  
자유와 평등을 념원하여 《유토피아》의 리상을  
미덕이 검비된 리상적인간을 그리며 수수천년...

문노니 문학사에 력사에  
언제 이처럼 위대하고 뜨겁고 다심하신  
하늘이 낸 위인 있었던가  
세상 제일가는 어버이를 모신  
오, 조선의 거룩한 행복이여!

아니다 우리 주인공이여  
아직은 다 알았다 말하지 말라  
이제 태양의 그 품모 다 알자면  
백년을 천년을 더 살아야 하리  
그이 거룩하심 다 쓰자면  
대양이 잉크되여도 모자라리

따뜻한 그 사랑은 햇빛이여서  
서울에 남겼던 사랑하는 리숙이  
38도선 넘어 평양에 오고  
행복한 부부 장군님 주신 대궐방에  
가마를 걸었다

대학강좌장, 중앙보도기관의 책임적인 위치...  
하나를 주시면 열백을 더 주시려는 어버이  
작가의 붓에 열정 주시려  
그들을 저택에도 불러 주신다  
항일의 나날의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때로는 허물 없는 독자되시여  
변변치 않은 작품의 랑독도 들어 주신다

그 사랑에 떠받들려 련이어 쏟아 지는 소설  
《함성》, 《그의 승리》, 《복귀》  
《씨 뿌리는 사람》...

할 일은 태산같아 창작의 여가엔 교재집필  
초고중문학교과서며 문법교과서  
《현대조선문학사연구의 체계》  
《조선어문법체계》...  
축적되었던 지식의 샘이  
사랑의 힘에 받들려 폭을 넘는가

분망한 그속에서도  
남 몰래 품어 키우는 열광의 희망  
아, 그것은 위대한 장군님을  
문학에 모시고픈 욕망

비천한 재능 두렵기도 하다  
허나 어찌하랴 심혼을 짝 사로잡는 형상  
기어이 세상에 자랑하고 싶은데야



그 보배롭던 념원하는 희망은  
전쟁으로 하여 래일로 미루어야 했다

정의와 진리, 문화와 문명  
인간행복의 교살자 미제  
이 땅에 또다시 노예의 운명 강요하거나  
조국의 귀중함 사무치게 간직한 인민  
산악같이 일떠섰다  
우리의 작가들 단연 종군을 탄원하였다

응당한 소행 대견하시여  
《작가들이 성스러운 싸움마당에 나가  
적들과 싸우면서 글을 쓰겠다는것은  
참 훌륭한 생각입니다  
이것은 미제에 대한 불 타는 증오심과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높이 치하하시며  
손수 종군작가의 신분중에  
수표까지 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

그 사랑이 무적의 힘을 낳아  
전투마당에서는 펄펄 나는 싸움군  
전투가 끝나면 전호가에 원고지를 펼친다  
종군기 《해방된 서울에서》  
수기 《잊혀 지지 않는 참상》  
현시실화...  
련속 발표되는 글은 싸우는 전선의 불굴의 정신  
승리를 고무하는 힘찬 북소리

×

좌- 설레임소리  
밀림의 설레임소리  
수수천년 태고연한 정적만을 노래하던  
지리산의 밀림이 설레인다

그것은 이 나라의 행복을 교살하려 드는  
자유론 인민을 억압과 압제의 사슬에 얹으려  
드는

불의의 침략에 항거하는  
이 나라 산천의 몸부림

피로움과 즐거움, 슬픔과 행복이 한데 뒤엉킨  
추억의 깊은 상념에서 깨여 난  
우리의 주인공  
설레이는 산발을 추연한 눈빛으로 바라보는데...

문득 그의 귀전에 울리는 소리  
깊고 깊은 사색을 깨친다  
《이보게 동규.》

우리의 주인공 눈길을 들어  
자기앞 바위에 걸터앉은 자를  
훑어 지게 쏘아 본다

그것은 타락과 변질, 배반과 변절  
인생의 가장 더럽고 추한 모든것이 응결된  
인간 아닌 인간  
어제날에는 높은 지성, 높은 지능의 창조를  
운운하던  
작가 아닌 작가-리민

마지막투항편고를 안고  
여기까지 찾아 온 인간추물  
그 무슨 《구원자》나 된듯  
제나름의 《인생철학》을 늘어 놓는다

《작가도 인간  
인간의 최고본능은 자기 보존  
예로부터 강자필승에 약자필패요  
강약은 부동이라 했거늘  
저 강대한 힘에 맞선다는것은  
맨발로 바위차기, 부질 없는 만용  
그러니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

인간의 최고본능은 자기 보존  
그래서 너는  
썩은 고기덩이보다도 못한  
그 더러운 자기 목숨의 보존을 위해  
인간의 도리도 작가의 량심도  
현신짝 버리듯 췌던졌느냐

아니, 너는 아직 모르고 있다  
누가 강자이고 누가 약자인가를  
자기를 지키기 위해 일떠선  
자각된 인민의 힘이 얼마나 강한가를

가련한 인생을  
랭소어린 눈길로 굽어 보는데  
그의 속생각을 아는지 모르는지  
기염을 토하는 리민

《우리는 작가  
정치가도 투사도 아니네  
작가의 사명은 문학창작  
문학은 정치이전의 신성하고 숭고한것  
그러니 내려 가세  
더우기 저런 막벌이군, 농사군...  
무식쟁이, 천한 사람들과 함께  
이런 궁벽한 산간오지에 생을 묻기에는  
자네의 재능이 너무나 아까운것.》

《뭐라구?》  
저도 모르게 일어 서는 우리의 주인공  
격한 심장은 쿵쿵 흥벽을 치받고  
양다문 입술은 부르르 떨리고  
이발이 부드득 갈린다

무식쟁이? 천한 사람들?  
네 감히 누구를 모욕하러 드느냐  
그들이 얼마나 귀중한 사람들인지  
얼마나 고결하고 숭고한 녀를 지닌 투사들인지  
너는 알거나 하느냐  
분노에 떠는 손은 권총을 더듬어 잡는다

겹에 질린 눈길로 뒤걸음치는 리민  
《나는 자네의 친구, 자네의 사촌처남  
자네는 숙이를 사랑하지?  
그러니 숙이를 생각해서라도 내 말을 들어  
주게.》

아, 숙이  
사랑하는 숙이  
불러 보면 언제나 정겹고  
힘과 용기를 주는 그 이름  
그대는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는지

숙이, 사랑하는 숙이  
내 죽더라도 더럽게는, 비굴하게는 살지 않겠소  
그것은 그대의 깨끗한 사랑에 대한 배반  
나를 낳아 주고 키워 준  
어머니조국과 인민에 대한 배반  
사랑과 믿음으로  
방황하던 이 몸에 재생의 활력을 주시고  
참다운 삶의 길을 열어 주신  
위대한 **김일성** 장군님에 대한 배반

숙이, 사랑하는 숙이  
나를 믿어 주오  
그리고 기다려 주오  
내 그대의 사랑을 고이 간직하고  
기어이 승리하고 돌아 가겠소

황황 타는 눈길로  
리민을 쏘아 보는 우리의 주인공  
터져 나오는 추상 같은 웨침  
《나에게는 너 같은 친구, 너 같은 처남이 없다  
너는 이 하늘아래 머리를 들고 살 자격이 없는  
더러운 인간추물  
조국도 문학도 친구도 혈육도  
이 땅의 모든것을 배반한 변절자  
내 그 모든것의 이름으로 너를...》

천천히 총구를 올리는 주인공  
황황히 그 손을 부여잡으며  
무릎 꿇고 애걸하는 리민  
《제발 그러지 말게  
난 자네의 처남, 숙이의 오빠란 말이야.》  
《그 이름을 더러운 입에 함부로 올리지 말라!》  
《제발 살려 주게  
난 자네를 데리고 내려 가지 못하면

영낙없이 죽는 몸  
그러니 옛정을 생각해서라도...》

《하하하》  
호탕한 웃음을 터치는 우리의 주인공  
찌렁찌렁 산발을 올리는 웃음소리  
썩한 눈으로 그를 올려다 보는 리민

《그 더러운 목숨이 그리도 귀하냐  
좋다, 살려 주마  
더러워서라도 내 네놈을 죽이지 않겠다  
너는 인간의 최고본능은 자기 보존이라 했지  
옳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우리 다시는 망국노로, 노예로 살수 없기에  
자기의 존엄과 자유를 지켜, 조국을 지켜  
이렇게 싸우는것이다  
가라, 가서 푹푹히 보라  
정의의 위업에 떨쳐 나선  
인민의 힘이 얼마나 강한가를  
어서 가라, 가서 오래오래 살라  
하지만 너는 오늘을  
두고 두고 영원히 후회하게 될것이다!》

축 처진 어깨, 초췌한 걸음걸이  
맥없이 다리를 끌며 산을 내리는 리민  
그것은 죽음의 나락, 인생의 종말로 가는 길  
...

악에 반친 놈들  
드디어 공격을 시작했다  
또다시 지리산의 산발을 흔드는 총성, 폭음...  
《돌격》에 기세 오른 놈들  
손에 잡힐듯 가까이 왔다

마지막수류탄 거머잡은 빨찌산들  
서로 뜨겁게 포옹한다  
값 있게 살아 온 인생을 축복하고  
값 있는 최후를 약속하며 포옹, 포옹!

...우리는 용감한 지리산빨찌산  
최후의 승리 위해 목숨 걸고 싸운다...

결사전에 나가며 부르는 노래  
원썬들의 간담 서늘케 한다  
전우들 피 흘리며 쓰러지며  
신념의 노래 부르고 또 부른다

최후의 순간을 눈앞에 둔 우리 주인공  
삼가 평양하늘 우러러  
경애하는 장군님을 찾는다  
(경애하는 장군님, 장군님께 드리는 헌시 한편  
쓰지 못한 죄 많은 리동규 장군님의 안녕  
길이길이 축수합니다. 아, 장군님!)

이제는 이 세상의 마지막일을 해야 할 순간  
죽음으로써 마지막 《작품》을 창작해야 할 순간  
두손에 수류탄 높이 쳐들고  
전화기에 우뚝 올라 선 주인공  
《이놈들아, 내가 리동규다  
장군님의 품속에서 작가로 성장한 리동규  
장군님의 전사 <종군작가>  
너희들의 <투항>강요에 대답하련다.》

맹호마냥 적진에 날아 드는 주인공  
《**김일성** 장군 만세!》  
짜르릉... 지리산을 울리는 폭음 폭음...

...  
이렇게 우리 주인공은 최후를 마쳤다  
가장 불우한 인생길에서 눈물도 많았던 사람  
가장 값 높은 생의 행복에 눈물도 많았던 사람  
그 한생의 마지막노래와 문학은  
《**김일성** 장군 만세!》

## 상식

# 컴퓨터가상현실의 리용기술

가상현실이란 컴퓨터의 도형 표시기술과 조종기술을 리용하여 조성한 가상적인 환경에서 인간이 현실세계와 같은 느낌과 감각을 받도록 하는것이다. 기술의 발전에 의하여 시각과 청각만이 아니라 인간의 5감(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모두 느낄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자동차유회의 경우를 보자.

이전에는 단순히 건반이나 조향륜을 리용하여 영상표시장치에 나타나는 정황에 대처하며 각이한 음성이나 소리로 현실감을 주었다.

가상현실기술을 응용한 자동차유회에서는 실제의 자동차에서와 비슷한 환경을 조성해 준다. 정면과 측면 지어는 뒤면에 까지 화상을 투영기로 비쳐 주어 운전사가 사방을 둘러 보는 느낌을 그대로 재현한다. 또한 운전사의 복장과 장갑에도 특수한 수감부가 설치되어 그의

사소한 몸놀림과 손동작에 따라서도 자동차가 응답하게 된다. 지어는 좌석에도 구동장치를 설치하여 기동하거나 정지할 때 온몸으로 가속도를 느끼게 된다.

이러한 가상현실체계는 그 실현방도에 따라서 두가지로 나눌수 있다. 즉 투구를 쓰고 장갑을 끼고서 혼자서 즐기는 형과 카메라와 투영기를 리용하여 일정한 공간에 가상현실을 조성하는 형태가 있다. 이러한 가상현실기술이 우리 생활에 어떻게 리용되고있는가.

가상현실기술은 건축, 교육, 군사분야와 오락을 비롯하여 매우 넓은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다.

가상현실기술이 제일 먼저 도입된것은 군사분야이다. 비행기나 탱크, 함선의 조종기술을 습득하는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많은 비용과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다. 지어는 위험을

세월이 흘러 수십여년  
이 땅은 놀라운 일도 많아  
영생부활의 소원이 현실로 되는 땅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  
지리산의 이름 없는 골짜기에 남긴  
작가의 충성의 그 웨침 찾아 주시였다

작가의 위훈 높이 평가하시여  
그에게는 공화국영웅칭호를  
유가족에게는 은정 넘친 민음  
사랑의 선물도 안겨 주시였다

흔적없이 사라졌던 지리산의 메아리  
장군님의 사랑에 받들려  
오늘도 래일도 이 땅에 울려 간다  
우리 문인들의 심장에  
작가들이 잡은 붓에  
수령승배, 수령결사옹위의 열정 차넘치라  
쉽없이 쉽없이 속삭이며...

동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가상현실기술을 리용하여 실제의 비행기좌실과 같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상에서도 비행기 조종기술을 습득할수 있다. 또한 컴퓨터모의전쟁을 진행하여 실제로는 조성하기 어려운 정황을 체험하면서 훈련을 진행할수 있다.

설계도면과 도안을 시제품이나 모형을 만들지 않고 가상현실기술을 통하여 체험해 봄으로써 막대한 물적, 인적자원과 시간을 절약할수 있으며 보다 질이 좋은 제품을 만들수 있다. 또한 인간이 직접 체험하기 어려운 화재현장에서의 소방작업이나 원자로폐기물이 처리와 같이 위험한 작업환경에서의 동작을 모의한다.

지금은 가상현실체계가 값 비싼 장비이므로 특수한 용도에만 쓰이고 있으나 앞으로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텔레비전과 같이 평범한것으로 될것이다.

## 고전소설 《량반전》과 《흥부전》에 대하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통하여 세상에 널리 자랑할만 한 문화적재부를 창조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최근 고전소설들인 《량반전》과 《흥부전》이 좋은 작품들이라는 뜻 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고전소설 《량반전》과 《흥부전》은 봉건사회말기의 시대를 집약적으로 잘 반영한 작품들이다.

《량반전》은 1760년대 말경에 연암 박지원(1737~1805)에 의하여 창작된 그의 대표적인 풍자단편소설이다. 작품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전라도 정선군에 어질고 글 읽기를 좋아 하는 한 량반이 살고있었다. 새로 부임되어 오는 군수들마다 의례 그를 찾아가 인사를 하곤 하였으나 그 량반의 집이 원체 가난하다 보니 해마다 고을에서 꾸어 먹은 환자쌀이 어느덧 천석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마침 그때 그 고을을 돌던 관찰사가 그 사실을 알고 량반을 잡아 가돌것을 명령한다. 군수가 관찰사의령을 받고 난처해 하는데 고을의 신분이 미천한 어떤 부자가 자기가 환자쌀을 대신 갚고 량반이 되려는 생각으로 량반을 찾아 간다. 관찰사의령이 내린지 얼마 안되어 고을로 울려보낸 쌀을 보고 이상해 난 군수가 량반의 집에 가보니 상민의 옷차림을 하고 《소인》을 개울리는 가관이 펼쳐 진다. 사연을 알게 된 군수는 이런 일은 문서가 있어 증거를 남겨야 한다고 하면서 고을사람들이 다 모인데서 량반매매문서를 작성하고 공포하게 한다. 매매문서를 한참 듣고 있던 부자가

두팔을 내저으며 나를 도적놈으로 만들려느냐고 항의하며 떠나는것으로 작품은 끝이 난다. 이상의 간단한 내용에서 보는바와 같이 《량반전》은 리조말기 무너져 가는 계급신분관계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

부패무능한 량반에 대한 풍자해학적인 비판의 방법은 결국 당시의 지배계급에 대한 신랄하고도 무자비한 폭로가 아닐수 없다. 봉건왕조 전 기간처럼 신성시 되고 부러워 하던 존재인 량반을 량반의 처와 부자의 입을 빌어 한푼어치도 못되는 무용지물로, 도적놈으로 낙인한 《량반전》은 그 내용의 진보성에 있어서뿐만아니라 형상수법과 구성 등에서 새로운 특성을 가지고 있어 18세기 우리 나라 문학발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흥부전》 역시 작자와 창작년대는 정확치 않으나 대체로 18세기경에 창작완성된것으로 보고 있다. 《흥부전》은 인민구전설화인 《방이설화》에 기초하여 창작되어 여러 이본들을 가지고 있다. 《흥부전》은 욕심 사납고 못된 형 놀부와 어질고 의리 깊은 동생인 흥부네 형제간의 이야기를 통하여 가정률리도덕문제와 함께 당대사회의 사회계급상태를 생동하게 펼쳐 보이고 있다.

가난속에서도 제 집에 등지른 제비에게 온갖 성의를 다하여 보은박씨의 덕으로 부자가 된 흥부와 의식적으로 제비다리를 분질러 놓고 그 제비가 물어 온 박씨의 《덕택》으로 패가망신하는 놀부, 형한테 매를 맞고 오면서도 제 형의 악덕을 감추려고 안해에게 술대접 잘 받고 이토록 취해서 온다고 말하는 흥부의 어진 마음씨와 대조되게 온갖 나쁜짓은 도말아 하면서 부모의 제상에 제물 대신 그 이름을 쓴 쪽지를 놓고 제사를 하는 놀부의

패륜패덕아적인 행위.

이 모든것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면서 작품에서는 계급분화가 심해 지던 당시의 현실도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다. 놀부와 그 녀편네의 형상을 통하여 상품화폐관계가 발전함에 따라 착취적성격이 더욱 강화되던 봉건사회말기의 지주, 토호들의 착취자적인 악랄한 성격을 보여 주었다면 량반대신 매를 맞고 돈을 벌라고 《권고》하는 리방의 형상을 통해서는 극도로 문란해 진 봉건통치체제의 부패상과 돈이면 그 무엇이든 해결되는 자본주의적관계의 발전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작품은 예술적 측면에서도 재치있는 풍자와 해학의 수법을 리용하여 인물들의 성격형상을 생동하게 하고 주제사상도 더욱 뚜렷이 하였다.

가난한 흥부의 집안살림과 그의 외모에 대한 해학적묘사는 가난한 흥부에 대한 눈물겨운 동정과 쓸쓸한 웃음을 자아내게 하며 놀부와 그 녀편네에 대한 풍자는 날카롭고 신랄한것으로 하여 증오와 격분, 경멸감을 불러 일으키게 한다.

이와 같은 풍자와 해학, 대조와 과장의 수법을 적절하게 능란히 적용하여 작품의 주제사상을 훌륭히 해결하였다는데 《흥부전》의 가치가 있다. 물론 시대적 및 세계관적제한성으로 인한 부족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흥부전》은 봉건사회말기의 불합리한 사회현실을 진실하고 생동하게 반영한 중세풍자소설의 대표작으로 되고 있다.

이처럼 고전소설 《량반전》과 《흥부전》은 계급분화가 촉진되어가고 상품화폐관계가 점점 발전되어 가던 봉건왕조말기의 사회형편을 풍자해학적수법으로 예리하게 폭로비판한 우리 나라 중세소설문학의 대표적풍자작품들이다.

리원희

# 스물한발의 《포성》

-안변청년발전소 군인건설자의 일기중에서-

한웅빈

## 1. 군대와 사민은 어떻게 다른가

6월 13일

군대와 사민이 어떻게 다른가. 유치원생에게나 적당할듯 한 이 물음에 대답하는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것을 나는 오늘 비로소 알게 되었다. 글쎄 신병훈련을 강한 《우》로 마치고 군인선서를 하여 진짜배기군인이 되고 게다가 여기 발전소 100리물길굴공사장에서 벌써 한주일나마 발파가스와 착암기소리, 뿌연 버력물에 젖어 신대원냄새도 어지간히 빠졌다고 생각하고 있던 오늘에야 말이다...

《동문 군대요, 사민이요?》

성난 소대장의 물음에 나는 가장 씩씩하게 대답하려고 애 썼다.

《군덩니다!》

군대의 지휘관들이란 대답을 어물어물하면 더욱 성을 내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신병훈련기간에 충분히 체험한바였다.

그러나 소대장의 시꺼먼 눈썹은 나의 가장 씩씩한 대답에도 불구하고 화산처럼 우에로 치달아 올라 갔다. 좀 더 성이 나면 그 눈썹은 이마에서 튀어 나가 화살처럼 날아 가 버릴것 같았다.

《군대? 군대라면 그 꼴이요? 그래 동무생각엔 군대가 사민과 다른 점이 무언것 같소?》

《...》

그걸 모를 사람이 어데 있겠는가.

그러나 진작 대답을 할려고 하니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혼탕이 되어 버려 갈피를 잡을수 없었다. 다른 점이 너무도 많았다. 우선 옷차림에서부터 완전히 다르다. 사민은 웃이고 모자고 신발이고 마음 내키는대로 입고 쓰고 신고 하지만 군대는 오직 군복, 군모, 군화만을 착용할수 있다. 입대하기전에 내가 일하던 작업반만 해도 신발들이 몽땅 제각기여서 얼굴을 쳐다보지 않고도 누가 앞에 서 있는지 알수 있었다. 그러나 군대에서는 어렵도 없다. 물론 발이 굉장히 커서 해마다 두번은 사관장을 애 먹인다는 우리 분대장만은 제외이지만...

《한-심하군!》

소대장의 긴 탄식이였다. 그는 분대장에게 력

으로 나를 가리켜 보였다.

《이 동무에게 우리가 처음 왔을 때 이야기를 해주오.》

분대장은 그때 나의 목달개를 달아 주고 있었다. 내가 목달개를 다느라고 군복을 이리 뒤집고 저리 뒤집으며 끙끙대는것을 보고는 《무슨 놈의 목달개 다는 본때가 그래? 한시간이 걸리겠군. 군대는 무슨 일이든 빨랑빨랑 해치울줄 알아야 해. 담배 한대 피우는 사이에 말이야.》 하고 제앞으로 휙 끌어 갔던것이다. 그는 군복을 한번도 뒤집지 않고 목달개를 달아 나가며 지체없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럼 이야기해 볼가? 우리가 여기에 처음 왔을 때 뭐가 있었는지 알아? 동무생각엔 뭐가 있었을것 같아?》

《...》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안단 말인가.

《간단하게! 무슨 서론이 그렇게 기오?》

소대장이 툭 내쏘듯 말하자 분대장은 한숨을 쉬었다.

《그럼 서론은 그만 둡시다. 계발식으로 해볼가 했는데... 에- 우리가 여기 처음 왔을 땐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그는 그 수수께끼로 나를 꼭 골탕 먹이고 싶은듯 말꼬리를 길게 끌었으나 소대장을 흘깃 보고는 스스로 대답했다.

《아무것도 없었어. 물과 돌, 흙, 이게 전부였던 말이야. 비까지 내렸구... 그러니 동문 우리가 천막을 치고 병실부터 전개했을거라고 생각하겠지?》

하고 그는 내가 그렇다고 대답하기라도 한듯 통쾌하게 부정하였다.

《천만에! 그따위는 우리 생각속에 애당초 없었어. 우린 갱굴진을 위한 박토작업부터 시작했던 말이야. 알만 해? 전투부터 시작했다 이거야! 그건 왜서인가? 병사는 전투를 위해 있는것이구 사느것이거든. 싸우지 않으면 병사는 죽은것과 같단말이야.》

병사는 전투를 위하여 산다. 그러니 이것이 사민과 다른 점이라는것일가. 그러면 사민은 뭐 놀기 위해서 사는가. 사민들도 일을 한다. 그리고 자기들이 하는 일을 전투라 부른다. 《70일전

투》, 《100일전투》, 《200일전투》… 좀 많은가. 그들이 하는 일도 어버이수령님의 유훈관철이며 위대한 장군님의 명령지시관철이다. 그런데…

《안되겠소. 말로 해서는…》

소대장이 머리를 흔들었다.

그사이 분대장은 목달개달기를 마쳤다. 5분도 채 안 걸렸는데 반듯하게 달아 놓았다.

《알만 해?》

목달개를 어떻게 달아야 하는지는 알만 했지만 말로써 안되겠다던 소대장의 말뜻은 알수 없었다. 다른 무엇으로 깨우쳐 주겠다는건데 그게 무엇일까?

그런데 소대장은 더 말없이 나가버렸다. 이제 오겠지. 내가 군대와 사민이 어떻게 다른가를 대뜸 알게 될 그 무엇인가를 가지고…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소대장은 시간이 이윽히 지나도록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교대시간이 되었다.

산중턱에 평- 하니 뚫려 있는 갭입구, 그곳으로부터 산허리를 휘감으며 뻗어 나간 회숙회숙한 버력장, 덜컹거리며 굴러 가는 광차의 행렬, 교대시간마다 지심깊이에서 먼 포성처럼 울려 나오는 발파소리, 산의 입김처럼 갭구로 느릿느릿 흘러 나오는 습기찬 발파가스… 이것이 내가 이제부터 군사복무를 해야 할 초소였다.

갭구주위에는 자그마칙한 가설건물들이 몇 채서 있는데 그것은 소대별 공구창고와 탈의실, 세면장이다. 그와 좀 떨어져 저 꽤 큼직하게 지은 건물은 압축기실로서 24시간을 거의 압축기의 동음과 진동에 휩싸여 있다.

내가 탈의실에서 작업복을 갈아 입고 나왔을 때도 압축기는 변함없이 돌아 가고 있었다. 그런데 창고에서 착암정대들을 둘러 메고 나오던 분대장이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나를 손짓하여 부르더니 압축기실 창문으로 끌고 갔다. 창문으로는 더운 공기가 물려 나오고 있었다.

분대장은 창턱에 팔꿈치를 올려 놓으며 손가락으로 압축기를 가리켰다.

《저게 뭘지 알아?》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압축기지요 뭐.》

《누가 그걸 묻는가? 저것 말이야!》

그제야 다시 보니 그의 손가락은 압축기가 아니라 그밑의 기초를 가리키고 있었다. 손가락끝에는 착암기처럼 묻어 있었다. 분대장은 착암조장이었다.

《기초지요. 콘크리트기초.》

《맞았어! 그런데 콘크리트를 뭘로 만드는데는 아니냐?》

픽- 하고 웃음이 나왔다. 완전한 유치원생으로 아는 모양이다.

《모래, 세멘트, 자갈이지요.》

《알긴 아누만! 그런데 여기 어디서든 모래를 본적이 있나?》

《모래요?》

나는 생각해 보고 놀랐다. 모래를 본 기억이 전혀 없었다. 진흙과 석비레, 바위… 골짜기의 물도 바위돌들사이를 흐르고 있었다. 바닥도 바위돌투성이였다. 그래서 골계수들은 샘물처럼 맑았다.

《없지? 없을게야. 이 근처엔 모래가 없어. 이젠 지질학적으로 확인된거야.》

아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로구나. 나는 드디어 알아 차렸다. 나를 《유치원식문답》에 끌어 들인것은 이야기를 위한 준비였던것이다.

《그런데 압축기를 설치하려면 기초콘크리트를 쳐야 하고 기초콘크리트를 치려면 모래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엔 모래가 애당초 없다 이거야. 있다는건 흙과 돌뿐이고 그런데다 압축기기초는 고강도콘크리트로 하여야 하거든. 실어 오려면 석삼년이 걸리겠고. 물론 석삼년이야 아니지. 보름이나 한달쯤 걸리겠지만 우리한테 석삼년맛잡이거든. 기다린다는건 말도 안되는것이였지. 지질학적으로는 모래가 없다고 했지만 우린 모래를 찾아 냈고 사흘만에는 기초콘크리트를 멋들어지게 완성했다네.》

《어데서 찾았습니까? 지질학적으로도 없다면서?》

《만들어 냈지.》

《모래를 만들어요?》

허튼 소리로부터 들리지 않았다. 분대장은 원래 허튼 소리를 잘했다. 허튼 소리로 소대를 웃겼고 떠들썩하게도 했다. 모래란 오랜 세월 풍화과정이 만들어 내는것이다. 그런데 사흘동안에 모래를 만들어 냈다구?…

《만들어 냈다니까. 모래를!… 산등으로 골짜기로 몽땅 훑었지. 물이 마른 골짜기를 파보기도 하고… 없더구만. 학자선생들이 거짓말을 한게 아니더라 말이야. 그래서 우린 모래란 무엇인가 하는걸 연구해 보았지. 그랬더니 놀랍게도 모래나 돌이나 흙이나 다 원래는 같은 물질이였다는 결과가 나오는게 아니겠나. 돌이 좀 굵게 깨지면 자갈이 되고 가루처럼 바스라지면 흙이 되고 알갱이로 깨여지면 그게 바로 모래고. 흙이구 자갈이구 모래구 돌이 깨여져서 만들어진것이더라 말이야. 이 지구도 원래는 하나의 돌덩어리였을게거든. 안그래?》

분대장은 하나의 울퉁불퉁한 돌덩어리였던 지구가 쏘아 지는 운석비와 솟구쳐 오르는 화산으

로 모래와 흙의 지층을 만들어 가던 혼돈의 시대를 그려 보기라도 하는듯 눈을 조프리고 앞을 바라보았다.

《그래서요?》

《그래서?》

분대장은 자기의 환상에서 빠져 나오기 싫은듯 여전히 한눈을 조프리고 앞쪽만 보고 있었다.

《바위를 깨뜨려 모래를 만들었지. 큰 놈은 자갈로 쓰고 가루는 내버리구... 여-!》

그는 갑자기 버럭 소리질렀다. 나는 깜짝 놀랐다.

《정희! 그 정대를 어데 가져 가?》

그가 이제껏 눈을 조프리고 본것은 수억만년전의 지구가 아니라 공구창고였던것이다. 공구창고에서는 강정희라는 갈데 없는 녀자이름을 가진 상등병(초급병사)이 정대를 이것저것 만져 보다가 한대 끄집어 내어 들고 있었다. 그는 마주 소리쳤다.

《이거야 못 쓰게 된 정대가 아닙니까? 지레대를 하나 버릴려고 그림니다.》

《정신 없는 소릴! 그건 수굴정대를 만들거야. 그 자리에 도루 넣어 두라구!》

《알았습니다!》

그제야 분대장의 조프렸던 눈이 제대로 되었다.

《그랬더니 얼마나 멋쟁이모래가 되었겠나? 사령관아바인 직접 나와 보구 아주 만족해서 <역시 군대가 군대야.> 하엿다네.》

그제야 나는 그 이야기가 소대장에게서 지시받은 《처음 왔을 때 이야기》의 계속임을 깨달았다.

《이런 말을 들은적이 있나? <100리물길굴을 관통하기전에는 조국의 푸른 하늘을 보지 말자!> 이건 우리 소대 소보원이 전투소보에 썼던 말이야. 어때?》

《정말 멋 있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감탄했다. 그러나 분대장은 쫓하고 혀를 찼다. 《멋 있다가? 멋 있는게 문제가 아니야. 그 말이 우리 군인건설자들의 심정을 그대로 담고 있다는게 중요한거야. 알았나?》

《예.》

《예?》

분대장은 또 한번 혀를 찼다.

《무슨 대답이 그래?》

나는 얼른 자세를 바로 잡고 규정대로 대답했다.

《알았습니다!》

《그래야지. 군인은 뭘 하고 있든 군인이여야 해. 잠을 자도 웃기는 소리를 하고 있어도 군인이여야 한단 말이야.》

이야기가 하도 동서남북으로 왔다갔다 하여 미처 따라 가기 어려웠다. 어쨌든 이 이야기도 역시 군대가 사민과 어떻게 다른가를 알게 해주려는것이라...

그때 모였구령이 내렸다. 갭에 들어 갈 시간이 된것이였다.

소대장의 말은 길지 않았다. 원래 긴 말을 좋아하지 않는 성미 같았다.

《오늘 소대의 전투임무는 어제와 같소. 특별히 강조된것은 버력을 완전히 처리하고 발파하는것 이요. 때문에...》

그는 말을 결속할 때면 거의 어김없이 《때문에》라는 말을 썼다. 그 말이 나오는것은 이야기가 곧 끝난다는것을 의미했다.

《락석작업이 끝나면 지체없이 일을 시작해야겠소.》

...동발들과 레루길에서는 물기가 번질거렸고 배관들에서는 압축공기 흐르는 소리가 성급하게 칙칙거렸다. 천반에서 물방울이 툭툭 떨어 졌다. 온몸을 휘감는 탁하고 습기찬 발파가스...

《저- 소대 전투소보원이 누굽니까?》

나는 동발에 부딪치지 않으려 머리를 잔뜩 수그리고 걸으며 같이 가는 강정희상등병에게 물었다. 그가 왜 그런 녀자이름을 가지게 되었는지는 분대장이 나에게 이야기해 주었었다. 그의 집에는 아들만 다섯이었는데 아버지는 딸이 하나 있기를 바랐고 여섯째가 태어날무렵에는 정희라는 이름까지 지어 놓았다. 그런데 아버지는 여섯째가 태어나기전에 갑작스런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여섯째는 유복자로 태어났다. 이번에도 또 아들이었다. 그러나 아버지가 유언으로 남긴 이름이라고 하여 그는 정희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는것이다. 이름과 반대로 그에게는 녀자 비슷한 데라고는 전혀 없었다. 크지 않은 키에 거의 4각형에 가까운 다부진 몸, 게다가 말주변이라곤 영 없어서 한마디한마디 할 때마다 고통스러운듯 씨근거리곤 하였다.

이때도 그는 《전투소보원?》 하고 반문하더니 몇걸음 지나서야 한숨을 쉬듯 씨근거리며 대답했다.

《내가... 소보원이야.》

《예?》

나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말주변이라곤 도무지 없고 하루종일 가야 몇마디밖에 하지 않는 이 상등병이 전투소보에 것처럼 멋 있는 말을 썼단말인가. 남의 마음속을 알아 보려 우정 말주변이 없는척 능청을 부리는것이 아닐가 하는 의혹조차 들었다.

뒤에서 광차 내려 오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동발에 붙여서 늘인 배관우에 올라 섰다. 광차가

잔등을 스치듯이 하며 내려 간 뒤에도 나는 그냥 배관을 타고 걸음을 옮겼다. 광차가 또 지나갈것 같아서였다.

그때 광- 하고 배관 두드리는 소리가 뒤에서 울려 나를 화닥닥 놀라게 했다.

《저 배관 타고 가는게 누구야?》

나는 굴러 떨어 지듯 배관에서 내려 섰다. 성이 잔뜩 난 사관이 스파나를 들고 뒤에 서 있었다. 그는 한바탕 욕을 퍼부을 기색이었으나 간데라볼로 나를 비쳐 보고는 흥 소리를 냈다. 《신대원이로군.》 하는 뜻이었다. 음성이 낮아 졌다.

《이 압축공기배관은 사람으로 말하면 갱도에선 숨줄이라고 할수 있어. 그런데 숨줄을 밟고 다닌다면 어떻게 되겠나? 흔들려서 런결부분들이 벌어지고 바람이 새게 돼. 그러잖아도 막장에선 바람이 약하다고 노상 불평인데.》

그의 옆구리에서는 가방이 데롱거리고 있었다. 수리공이겠지.

《알았나?》

잔뜩 주접이 들어 서 있던 나는 서둘러 대답했다.

《알았습니다!》

순간 나는 동발에 머리를 호되게 쫓고 주저앉아버렸다.

《아이쿠!》

그는 놀란듯도 하고 어이없어 하는듯도 한 얼굴로 나를 보았다.

《갱안에서 노상 그렇게 차렷자세를 하다가 하루 못 가서 머리가 감자자루처럼 될거야. 동문합선에서 해병들이 어떻게 인사하는지 아나?》

그는 내가 신병훈련기간 분동작으로까지 배운 팔을 쭉 펴서 꺾어 올리는 거수경례가 아니라 팔꿈치를 허리에 붙인채 손만 들어서 이마에 갖다대는 묘한 경례를 해보였다.

《이건 배갑관이 좁기때문이야. 그런데 우리 갱도는 천반이 낮은 말일세. 차렷자세는 마음속으로 취하면 돼.》

그는 스택스적 걸음을 옮기다가 앞에 서 있는 강정희상등병을 보고는 손가락으로 이마를 쿡 내질렀다.

《상등병이 있으면서도 음-》

강정희상등병은 뭐라고 알아 듣지 못할 말을 씨근거리듯 웅얼대며 씩- 웃기만 했다. 사관이 앞으로 사라지자 나는 강정희상등병에게 물었다.

《누굽니까?》

《몰라? 중대 위생지도원이야.》

《수리공이 아니구요? 스파나까지 들었던데요.》

《사람의 탈도 보고 설비의 탈도 보고...》

그는 잠시후 갑자르듯 한마디 더 붙였다.

《지도원은 뭐나 다 사람의 몸처럼 보지.》

하긴 공기배관을 숨줄이라고 했지. 메고 있던 건 수리가방이 아니라 위생가방이었구나...

《재미 있는 사람이구만요.》

《그래.》

그는 왜서인지 갑자기 우울한 어조로 말했다.

《앞서라구. 내가 뒤에서 가지.》

뒤에서 따라 오며 내가 더는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보살펴 주겠다는 뜻이었다. 사실 상등병은 전사의 교육교양을 책임진다. 규정에 그렇게 있었다.

뒤에서 갑자기 꺼지는듯 한 한숨소리가 들렸다.

왜 저렇게 한숨을 쉴까. 갑자기 우울해 지고... 다시 한번 한숨소리가 들리더니 강정희상등병이 불쑥 물었다.

《나하고 같이 가기가... 재미 없지?》

《예?》

나는 너무도 의외의 물음이어서 돌아 보았다. 그는 그냥 걸으라고 손짓을 하였다. 나는 다시 걸음을 옮겼다.

《재미 없을거야. ... 이상하거든... 아무리 재미 없는 이야기두 분대장동지가 하면... 재미 있는데... 내가 하면 아무리 재미 있는 이야기두... 재미 없어 지거든.》

나는 하마트면 웃음을 터뜨릴번 하였다. 통담인줄 알았던것이다. 그러나 머리를 돌리자 너무도 진지한 표정과 부딪쳐 나는 당황하지 않을수 없었다. 얼른 되돌아 서며 얼토당토 않은 말로 굶뻐버렸다.

《그런거야 뭐랍니까. 큰 일도 아닌데...》

《...》

나는 급급히 걸음을 옮겼다. 뒤에서 그의 중얼거리듯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큰일이야... 아니지. 그렇지만... 아니, 그건 중요한거야. ... 중요하구 또... 쟁장!》

그 어조에서는 너무도 깊은 생각과 또한 자신에 대한 유감스러운 감정이 가득 담겨 있어 나는 대답할 말을 찾을수 없었다.

그의 말뜻을 나는 얼마후에야 깨닫게 되었다...

드디어 막장에 이르렀다. 그런데 막장에는 마치 소대장이 특별히 강조한 사항에 도전이라도 하는듯 한 정황이 조성되어 있었다. 버력이 있는 곳까지 10m 나마 되는 구간에 레루길이가 없었던 것이다. 레루가 보장되지 못해서였다. 이러루한 일들이 요즘은 드물지 않다고 한다. 《지금은 모 든것이 부족해.》 하고 강정희상등병은 말했다. 그러나 일은 해야 한다. 전교대에서는 한줄로 늘어 서서 리레식으로 버력을 날라다 광차에 실었다고 한다.

우리 소대는 그들보다 3~4m 더 늘어 난 거리



로 버력을 날라야 했다.

(오늘 버력처리를 다 하긴 틀렸구나.)

나는 거의 천반에 닿도록 쌓여 있는 버력을 보며 생각했다.

레루길이 있어야 할 10여m 구간에는 전 교대에서 놓은 침목들만 정연한 종대를 이루고 늘어 서 있었다. 그것만 보아도 전교대에서 얼마나 레루를 고대하였는지를 짐작할수 있었다. 레루만 있으면 우리 소대는 버력을 얼마든지 처리할수 있었다. 그러나 레루는 없었다. 10~15m 나 날라다 실어서는 저 버력을 다 처리할수 없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소대의 책임으로 될수 없다. 레루를 보장 못한 일꾼들의 책임이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하며 소대장을 보았다. 다른 대원들도 소대장을 보고 있었다.

소대장은 광차가 멈춰 선 레루길끝에 서서 막장의 버력더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더니 레루길 없는 침목을 밟으며 막장으로 갔고 그곳에서 광차를 바라보았다. 마치 거리를 가늠해 보기라도 하는듯 했다.

나는 그가 《별수 없구만! 레루장을 만들어 낼수는 없는거고, 여기서 광차까지 쪽- 늘어 서오. 재미역사라도 해봐야지.》 하고 말하리라고 생각했다. 다른 말이란 할수 없는 정황이었다.

그런데 소대장은 바닥을 가리키며 명령했다.

《침목들을 몽땅 들춰 내오.》

화풀이라도 하려는듯 했다.

전 교대에서 정연하게 박아 넣었던 침목들은 잠간사이에 다 통거 저 나왔다.

소대장은 두팔을 앞으로 내밀어 광차로부터 자기 발밑까지 두개의 가상적인 직선을 평행으로 그어 보였다.

《과고 침목들을 든든히 박아 넣소!》

그는 침목을 레루장으로 전환시키려는것이였다!

이렇게 되어 나는 전후복구건설시기 이야기를 쓴 책들에서나 읽었던 나무레루길을 여기 100리 물길공사장에서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고 나무레루길로 버력을 실어 나르게 되였다...

버력은 폭폭 자리가 났다. 발파전에 버력을 깨끗이 처리할수 있다는 확신은 시간마다 굳어 저 갔다.

만일 침목마저 없었더라면 어쩔번 했는가.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었을것이다. 아니, 아니다! 그런 경우에도 소대장은 역시 그 어떤 방도를 찾아냈을것이다. 나에게는 이렇게 생각되였다. 소대장에게는 난공불락이라는것이 없을것이라고...

막장은 언제나 석수에 젖어 있다. 굴속에는 가물철이란 없다. 천반에서도 벽에서도 바닥에서도 늘쌍 석수가 흐른다. 산의 내장속에 얼마나 물

이 많은지를 나는 여기에 와서 알게 되였다.

그런데 이날은 석수가 별로 더 많이 흐르는것 같았다. 양수기가 물을 계속 뽑아 내고 있을것인데도 발밑에서는 물이 그냥 질벅거렸고 얼마후에는 발등까지 물에 잠겨 들기 시작했다. 처음은 일하는 정신에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침목레루》가 물때문에 뜨기 시작할 때에야 우리는 막장에 물이 차오르고 있음을 깨달았다.

《양수기가 고장났습니다!》

밖에서 들어 온 강정희상등병이 소대장에게 보고했다. 소대장이 그를 양수장에 보냈던 모양이였다.

우리 갯은 내리갯이였다. 양수기만 멎으면 막장에는 물이 시시각각으로 차오른다. 정도가 지나치면 일할수 없게 되는것은 두말 할것 없다. 소대장의 입가에 굵은 주름이 잡혔다.

《수리하고 있겠지?》

《시간이 걸리겠답니다. 날개를 교체해야 한답니다.》

《...》

소대장은 불어 오르는 물을 묵묵히 내려다 보며 서 있었다.

한 구대원이 투덜거렸다.

《눅았구만! 오늘 일은 다...》

그는 자기 말에 스스로 놀랜듯 말을 툭 끊고 입을 다물어 버렸다. 소대장이 휙 돌아 보았던것이다. 눈썹이 우에로 치켜 올라 갈듯 움칫거렸다. 그러나 곧 소대장은 아무 말도 못 들었다는듯 평온한 기색으로 돌아 갔다.

《작업속도를 더 빨리! 광차에 버력과 물을 같이 퍼담소!》

광차바가지에 버력과 물이 함께 쏟아져 들어 갔다.

《물 더! 흰쌀 한말에 좁쌀 한말이 들어 간댔어!》

아까 투덜댔던 구대원이였다. 그는 자기 실언을 보상하려고 서두르는것임이 누구에게나 뻔드름했지만 소대장은 진짜로 감탄하는듯 목소리를 높였다.

《흰쌀 한말에 좁쌀 한말이 들어 간다? 그러니 버력 한광차안에 물이 두광차쯤 들어 가지 않을가?》

와- 하고 웃음이 터졌다. 그 구대원은 소대장의 《감탄》과 소대의 웃음에 완전히 활기를 되찾았다.

《소대장동지, 제가 학교 다닐 때 뭘 제일 잘했는지 압니까?》

《속제를 틀리게 하고 변명하는것이 아니였소?》

《야- 소대장동지,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일결에 한마디 잘못된결 가지구...》

또 웃음. 그러자 구대원은 가장 큰 칭찬이라도 받은듯 빙글거려 댔다.

《그래 뭘 제일 잘했소?》

《수영이었습시다!》

《아주 좋구만! 오늘은 수영을 톡톡히 해야 할 것 같은데.》

소대장의 말은 과장이 아니었다. 물은 발목을 넘어 서고도 계속 불어 올랐다.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수영》을 해야 하리라는것이 불 보듯 명백했다.

그런데 탈은 《수영》을 하기전에 생겼다. 물이 불어 오르면서 《레루토막》들이 제각기 떠올라 레루길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기 시작한것이였다. 제자리에 억지로 눌러 넣으면 용수철에 튕기 기라도 한듯이 불끈불끈 솟아 올랐다. 나무가 물보다 가볍다는것이 얼마나 저주스러웠던가! 나는 침목을 박아 넣고 손을 떼기 바쁘게 밤물고기처럼 튀어 오르는 그놈에게 턱주가리를 든든히 얻어 맞았다.

이젠 별수 없구나 하는 생각이 턱주거리의 열열한 느낌과 함께 스며 들었다. 그래서인지 갑자기 나에게서는 모든것이 꿈만하게, 아니 꿈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뿌연 물은 걸쭉한 기름처럼 다리를 감고 도는데 수면에 간데라불빛과 전등불빛이 어러 물은 맹렬히 소용돌이 치는것 같이 보였다. 수면에서 반사된 불빛은 천반과 옆벽에서 어지러운 무늬를 그리며 부산스레 흔들렸다. 천반과 옆벽이 흔들리는듯 했다. 바닥도 흔들리는듯 했다. 머리가 갑자기 어지러워 지면서 메스꺼움이 치밀었다. 팔다리의 맥이 삼시에 쭉- 빠져 나갔다. 내가 왜 이럴까. 착암기소리와 말소리가 아득히 멀어 지며 귀가 멍멍해 졌다. 뒤이어 눈앞이 새까매 졌다.

《이 친구 왜 이래?》

하는 강정희상등병의 놀랜 소리를 들으며 나는 철썩 넘어 지고 말았다. 웃으로 스며 드는 차거운 물의 감촉과 야릇한 안도감을 느끼며 나는 의식을 잃었다....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눈앞에서 위생지도원을 보았다. 식초냄새가 지독하게 풍기고 있었다.

《정신이 좀 드나?》

《내가 어떻게 된겁니까?》

《별 일 아니야. 가스에 취했던거야.》

발파가스에 취해서 넘어 진것이였다. 머리가 깨여 저 나가는듯이 아프고 계속 구역질이 났다.

위생지도원은 내 코에 마개를 연 병아구리를 가져다 댔다.

《숨을 크게 들이 쉬라구.》

코구멍이 바늘로 찌르는듯 했고 눈물이 쏙 나왔다. 병에는 농도 높은 식초에 적신 솜이 들어

있었던것이다.

《그냥 들이 쉬라구. 계속! 그러면 좀 나아 질거야.》

시키는대로 했더니 그의 말대로 좀 나아 지는 듯 했다.

내옆에는 두명의 구대원이 동발에 기대여 앉아 있었다. 그들도 역시 발파가스에 쓰러졌던 모양이였다. 그들은 머리를 몇번 흔들어 보더니 옆에 놓인 밥국통에서 뿌연 물을 한식기씩 퍼서 꿀꺽 꿀꺽 들이켰다.

《동무도 마시라구.》

식초가 좀 많이 들어 간 김치물인데 그 맛이란 어떻다고 말하기 어려운 기묘한것이였다. 시큼한가 하면 텅고 그런가 하면 쓰기도 하고 송진냄새도 났다. 세상에 없을 피이한 《김치물》이였다.

이것이 위생지도원의 발명품이며 중대에서는 《가스해독제》라고 부르는것임을 나는 알아 차렸다. 《저친군 저걸로 박사가 되겠다는거야.》 하고

분대장은 말한적이 있었다. 《한모금 마시면 깨끗이 해독되는걸 꼭 만들겠다는건데 좋다구 하는 건 죄다 쓸어 넣는다네. 아마 좋다구만 하면 양재물도 서슴없이 쓸어 넣을거야.》 하고는 내가 눈이 둥그래서 쳐다보자 픽- 웃었다. 《걱정할건 없어. 그렇게 만든걸 저 친군 제가 먼저 뒤 식기 쪼마시고는 눈을 뜨부럭거리며 서너시간씩 기다려 보니까.》

바로 그 물건이였다.

두 구대원은 그 발명품에 정신이 든듯 입가를 쭉쭉 문대고는 비틀비틀 일어 났다.

《걸을만 한가?》

위생지도원의 물음에 그들은 손을 뻗 첫고 걸음을 옮겼다. 나는 소대가 우리를 데리고 나가지 않은것이 이상스럽게 생각되였다. 소대는 철수했으리라고 생각했던것이다.

그런데 두 구대원은 입구쪽이 아니라 막장쪽으로 가고 있었다. 위생지도원이 나에게 눈짓으로 그들을 가리켰다.

《따라 가라구.》

그제야 나는 두 구대원이 막장으로 《전투를 계속하러》 들어 간다는것을 깨달았다. 소대는 여전히 막장에 있는것이였다. 나도 그들을 따라 갈수밖에 없었다. 머리속에서 뇌수는 수은덩어리처럼 이구석 저구석으로 굴러 다니는듯 했고 다리는 후들후들 떨리며 접철처럼 접혀 들러고만 했다. 지도원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데나 털썩 드러누워 버리고 싶었다.

그러나 두 구대원은 그냥 가고 있었다. 나도 그냥 따라 갈수밖에 없었다. 그냥 걸으니 얼마간 나아 지는것 같았다. 마침내 나는 막장에 이르렀다....

막장은... 허나 그것은 막장이 아니었다. 물주머니였다. 물은 이미 허리를 치고 있었는데 소대는 그 물속에서 침병거리고 있었다. 진짜 《수영》을 하고 있었다.

나무레루는 이미 없어 졌고 광차는 레루길이 끝난, 막장에서 15m 나 되는 거리에 못 박혀 서 있었다. 그런데 소대는 무엇을 하고 있는것일까.

나는 처음에는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였다. 자맥질이라도 하듯이 물속에서 버력을 담아서 연신 한곳에 쏟아 놓고 있었다. 소대장이 소리쳤다.

《출발!》

출발이라니? 철수명령일까. 아니었다. 소대는 모두 버럭더미에 달라붙어 밀기 시작하였다. 소대장은 버럭더미에 출발구령을 내린것이였다.

그러자 놀랍게도 버럭더미가 쭉- 쭉- 앞으로 움직여 나가는것이 아닌가. 마치 환상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것 같았다.

잠시후에야 버력이 때목우에 실려 있음을 알아 보았다. 동발과 침목으로 무은 때목, 나무레루를 쓸수 없게 되자 소대는 물을 레루길로 전환시킨 것이였다. 《물레루》였다!

광차바가지에는 전투소보가 걸려 있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이란 없다!》

불가능한것이 있다면 그것은 조선말이 아니라 고 하신 최고사령관동지의 명언을 실천으로 받들자!》

불가능이란 없다. 그렇다. 난공불락이란 없었다!

《소대장동지!》

누군가의 커다란 목소리다. 나는 아직 구대원들의 이름도 얼굴도 다는 몰랐다.

《왜 그러오?》

《물이 더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왜?》

《때목이 더잘 뜰테니까요!》

《인차 소원대로 될게요!》

웃음소리, 소대는 그 사이 줄곧 웃기만 했던듯했다. 때목이 광차결에 이르자 버력을 옮겨 싣기 시작하였다. 와당탕 쿵당거리는 소리...

강정희상등병은 《전투소보》를 벗겨 들고는 몇 줄 써서 다시 걸어 놓았다. 말할 때에는 한마디 한마디를 굵뜨고 힘있게 하던 그가 글에서는 여간 빠르지 않았다.

《명령을 수행하기전에는 쓰러질수 없다!

가스에 취해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 나 전투에 참가하고 있는 전사 박철동무!》

그런데 왜 내 이름만 있을가. 두 구대원의 이름은 왜 없을가. 다음순간 나는 스스로 그 이유를 깨달았다. 구대원들에게서는 이런 일이 레사로운 일로 되어 있는것이라.

《소대장동지!-》

때를 밀고 들어가면서 분대장이 옆에서 밀고 있는 소대장을 보지 못하기라도 한듯 굉장히 큰 소리로 불렀다. 나는 그가 왜 그렇게 높은 목소리로 찾았는지를 알아 차렸다. 자기가 이제 할 말을 온 막장이 다 듣게 하려는것이였다.

《제가 뭐가 되고 싶었는지 압니까?》

《동무도 수영선수가 되고 싶었소?》

분대장은 그런 물음만을 기다렸던듯 큰 소리로 부정했다.

《아닙니다! 류벌공입니다!-》

소대장은 크게 웃었다.

《희망이 성취된걸 축하하오!》

《소대장동지 건강을 축복함!》

와- 하는 웃음소리. 나도 웃었다.

옆에서 요란한 한숨소리가 들렸다. 강정희상등병이였다. 그는 분대장을 한껏 부러움이 실린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이때는 그의 심정이 이해되었다. 나도 부러웠다. 큰 소리로 기지 있는 응답을 하여, 소대가 모두 크게 웃게 하고 싶었다.

분대장은 한대 생각이 난듯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냈으나 곧 랑패한 기색으로 집우 던졌다. 물에 죽탕이 되었던것이다. 누구나 모두 같았다. 소대장도 다름바 없었다.

그때 강정희상등병이 씨근거리며 말했다.

《젓지 않은 담배가... 있습니다.》

그의 안전모속에서 마른 담배가 나왔다. 담배갑은 한바퀴 죽- 돌았다. 나에게 왔을 때는 한대 밖에 없었다. 나는 강정희상등병에게 내밀었다.

《피우십시오.》

그는 머리를 흔들었다.

《난 안 피워.》

《예?》

분대장이 나의 어깨를 툭 쳤다.

《알고 있으라구. 저 친군 담배를 피우면 안돼.》

《예?》

《규정을 어길수 없거든!》

분대장은 담배연기를 길게 내뿜었다.

《담배공급 받으려 련대에 갔더니 량식공급장이 명단을 보다가 뭐했는지 알아? <강정희? 동무네 정신 있소? 이 공급장의 목이 날아 나게 하자는 거요? 녀성에게 담배를 공급하라는건 우리 인민군대 후방규정에 없단 말이요!> 하고 뻑- 그어버리고 말았으니까!》

말이 끝나기도전에 웃음이 터졌다. 그중에서도 제일 크게 웃는것은 강정희상등병이였다. 그는 자기로 하여 소대가 크게 웃게 된것이 더없이 기쁜듯 입이 귀밑으로 돌아 갈 지경으로 웃고 있었다. 이때 나는 아까 입궐할 때 《그건 중요한거야.》 하던 그의 말이 문득 떠올랐다.

웃음, 이것이 없다면 몇개의 간데라불이 뿌영게 불어 오르는 수면을 비치는 좁은 막장, 그속에서 물에 허리까지 잠그고 버력을 담는 막장은

얼마나 스산할것인가. 절망속에서 허우적이는듯이 보였을것이다...

분대장은 때를 밀고 들어 가며 노래를 뽑았다.

어야 더허야 어야 더허야

그는 이 노래를 끄집어 내려고 류벌공이야기를 꺼냈던것인지도 모른다. 그러자 마치 모두들 분대장처럼 류벌공이 되기를 희망했던듯 목청을 합친다.

압록강 2천리에 노를 저어라  
얼음장을 헤치면서 떼는 흐른다

좁고 어두운 막장에서 울리는 《압록강 2천리》는 신비한 힘을 가진듯 하였다. 이 노래가 이때처럼 구성지게 들린적이 나에게는 아직 있어 보지 못했다. 강정희상등병의 목소리가 류달리 두드러 지며 청청하게 울렸다. 말 한마디 하기도 힘들어 하던 그의 입에서 노래소리는 사뭇쳐 흐르는 급류처럼 흘러 나오고 있었다.

백두산의 나무로구나 천년이나 자란  
이깔나무 참나무는 때를 지어서

순간 누구도 뜻하지 않았던 쟁쟁하고 맑은 처녀의 목소리가 웅글은 노래소리들우로 새처럼 나래치며 막장을 울려 우리모두를 깜짝 놀라게 하였다.

혜산 초산 돌고 돌아 몇밤-새웠나

련대군의소의 간호원이었다. 현장치료차로 나왔다가 우리들속에 뛰여 들었을것이다. 누구도 알지 못했다. 그가 언제부터 우리와 함께 일하기 시작했는지를, 가름한 얼굴에서는 텅겨 오른 물방울들이 간데라불빛에 반짝거리고 있어 마치 눈물에 젖은듯이 보였다.

의주 가면 진달래꽃 피여 나리라

그때 내 눈에 왜 눈물이 핑-돌았는지 나도 알수 없다. 노래속에 때를 밀고 나가니 불현듯 나의 발밑에서 2천리 장강이 출렁이며 흘러 가고 미구에 눈앞에서 진달래와 철쭉꽃이 핀 강변의 아름다운 벼랑이 솟아 오를듯 한 환각을 느꼈다...

《간호원동무가 노래를 정말 잘하던데? 가수가 왔다가 울고 가겠어!》

일을 마치고 나오면서 간호원에 대해서 누구나 한마디씩 했다. 그때 소대장이 지나가는 말처럼 불쑥 말했다.

《그 동문 학교때부터 노래를 잘 불렀소. 중앙축전에도 한두번만 참가한게 아니고. 가수가 될 줄 알았는데 군복을 입었거든.》

《예?!》

강정희상등병이 깜짝 놀랜 얼굴로 소대장을 쳐다보았다.

《그 그럼 아는 사이입니까?》

소대장은 눈이 휘둥그래서 쳐다보는 강정희상등병의 안전모채양을 쿡 눌러 눈아래까지 썩워 놓았다.

《그랬을것 같다- 이 말이요!》

와- 하고 웃음이 터졌다. 소대장도 익살에서는 누구에게 뒤지지 않았다. 어찌 보면 군대생활의 언어는 익살로 충만되어 있는듯 했다.

소대장은 이제야 수리가 끝난 양수장을 지나면서 아쉬움이나 불만이 아닌 말로 소대전체를 유쾌하게 했다. 양수기 돌아 가는 뿜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고는 이렇게 말했던것이다.

《1소대는 수영훈련을 못하게 뻔군!》

우리는 1소대에 막장을 인계했던것이다. 막장에서는 발파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쿵 쿵쿵...

병실에 돌아 와서야 나는 소대장이 군대와 사민이 다른 점이 무엇인가 묻던 생각이 났다.

교대시간을 1시간가량 앞두고 휴식할 때 소대병실주변을 돌아 보던 중대장이 장마가 예견되니 병실주변 배수로로 깊숙이 파야겠다며 래일 아침에 검열하겠다고 하였다. 나는 분대장에게 말했었다.

《언제 한다는겁니까? 교대를 끝내면 새벽일텐데...》

바로 이 말을 병실에 들어 오던 소대장이 들었다. 그의 눈썹 끄트머리가 화살처럼 위로 치켜 올라 갔다.

《동문 군대요, 사민이요?》

군대와 사민은 어떻게 다른가. 오늘 하루전투를 끝내고 돌아 온 지금에야 나는 소대장이 왜 《말로써는 안되겠소.》 하였던지를 깨달았다. 오늘의 전투가 바로 그 대답이었다. ...

나는 이제까지 왜 이 발전소건설을 군인들이 해야 하는가 하는 의혹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알만하다. 그것은 바로 이 공사는 명령 앞에서 《알았습니다!》 한마디밖에 모르는 사람들만이 할수 있기때문이었다. 모든것이 부족하고 없는것이 더 많은 이 시기 《고난의 행군》의 나날에는...

이 일기에 한마디 더 부연하고 싶은것은 아침에 중대장이 소대병실주위를 돌아 보고 배수로로 잘 봤다고 아주 만족해 하였다는것이다.

(다음호에 계속)